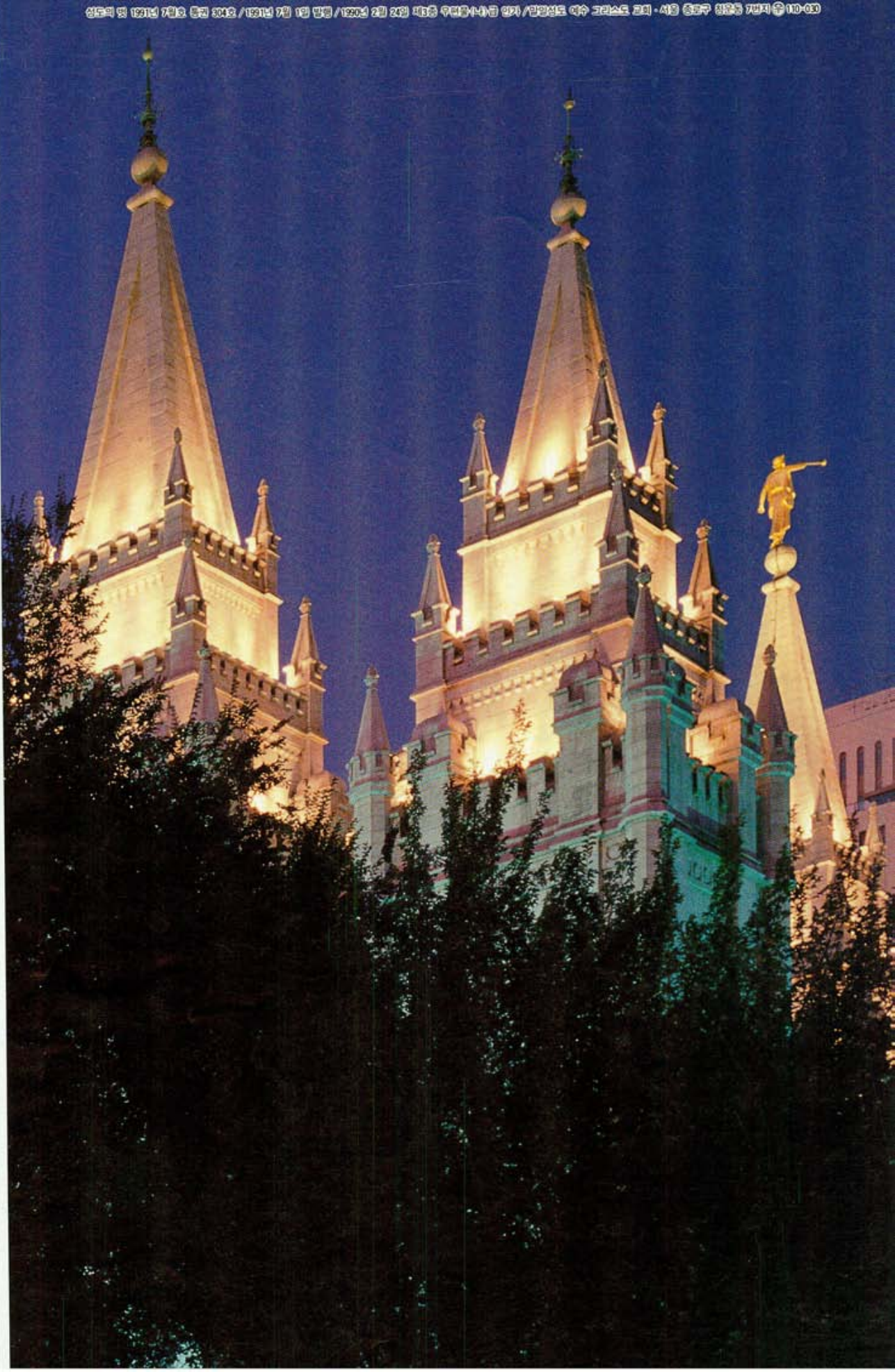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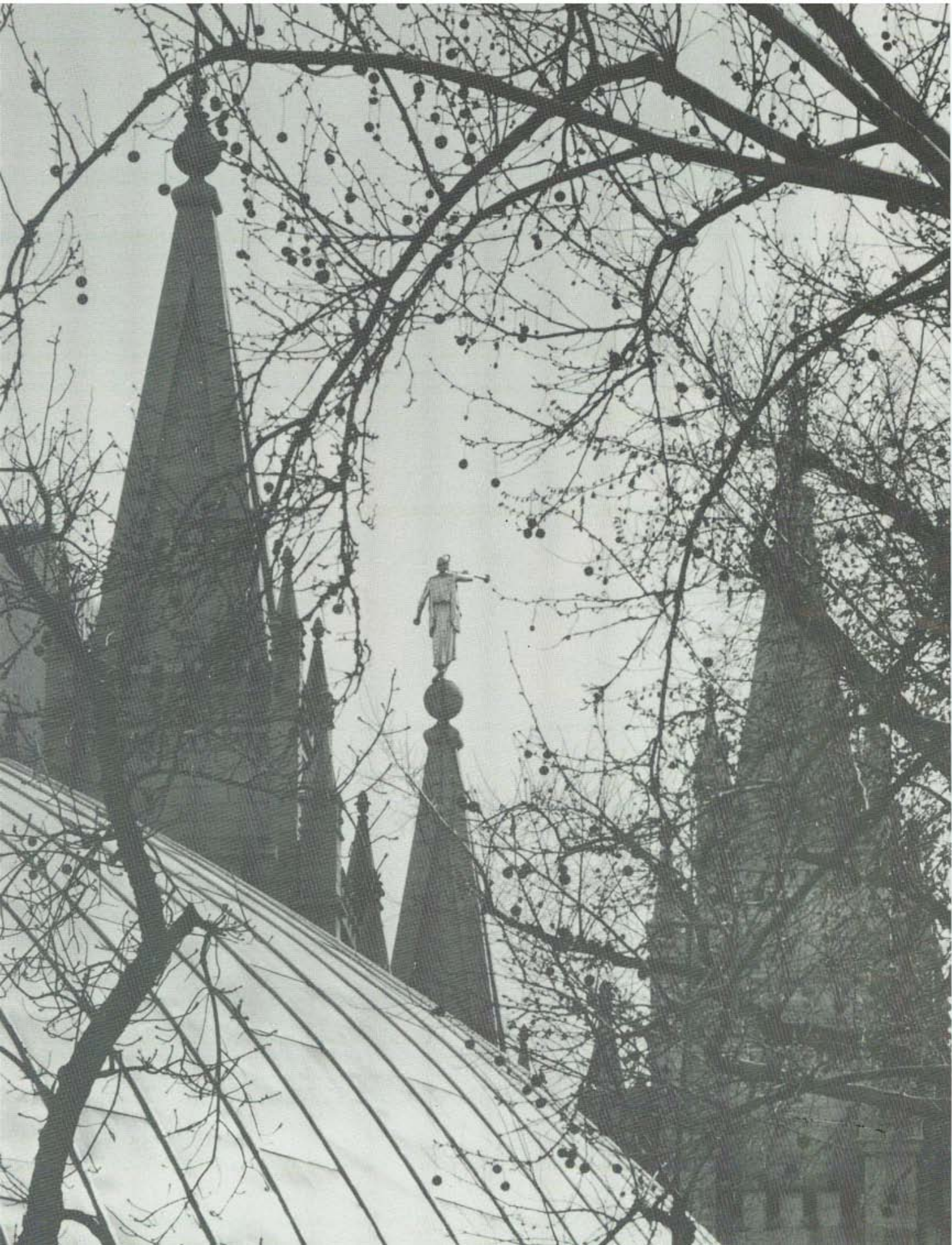


1991 7월 7일

# 성도의 빛

만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1차 연차 대회 보고

1991년 4월 6-7일 유타주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에 관한 기록

**교**회의 제161차 연차 대회의 개최 모임인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회가 시작되면 먼저 교회 대관장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제게 그분을 대신해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 대회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 연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시고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대회에서 말씀하실 만큼 충분한 기력을 갖지 못하셨다. 대회에 참석한 회중들은 토요일 오전 모임과 일요일 오전 모임에 참석하신 벤슨 대관장님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벤슨 대관장님은 자택에서 TV로 중계되는 그 외의 대회 모임의 진행을 지켜 보셨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대회 모임을 사회했다.



대회의 행정 조치는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발표되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총관리 역원 중에서 다섯 분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알렉산더 비 모리스 장로, 엘 알든 포터 장로, 엘 리오넬 캔드릭 장로,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해롤드 지 힐렘 장로.

또한 새로 여섯 분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유타주 센터빌 출신-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어 출신-크리 엘 코포드 장로(현재 뉴욕 선교부 선교부장임),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출신-조셉 시 뮌 장로(영국 솔리힐에서 근무하고 있음), 솔트레이크시티 출신-그레이엄 더블류독시 장로, 멕시코 치와와시티

출신-호르헤 오 로하스 장로,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지난 1월 1일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와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1보좌와 제2보좌의 직책에서 각각 해임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톨런 지 크레이븐 장로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받았다. 커스버트 장로는 한동안 매우 위독했다. 그래서 커스버트 장로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대회 모임에서 기도드릴 때 그분의 쾌유와 회복을 간구했다. 그러나 힝클리 부대관장이 일요일 오후 모임이 끝날 무렵 폐회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모두가 비통함을 느꼈다.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님이 별세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려 왔습니다. 커스버트 장로님은 수년 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으셨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열성을 다해 충실히 훌륭하게 봉사하셨습니다.”

대회 진행 과정은 북반구의 전지역에 영어와 기타 15개의 언어로 방송되었다. 생중계 및 녹화 중계 방송이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의 교회 단위 조직에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배부되었다. -편집인.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엘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영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헬즈

통 권 : 제304권, 제28권, 제7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1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7 320

Printed in Korea 7/91

# 색 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르침 벨라드

가족 옥스, 넬슨, 벨라드

가족 역사 텅기, 헤이트

감사 애쉬튼, 몬슨(일요일 오전),  
힝클리(일요일 오후)

결혼 힝클리(일요일 오전)

경전 공부 아이어링, 헤일즈, 웰즈

경청 넬슨

게시 크레이븐, 고슬린드

관용 패커, 던

고만 라슨, 하워드

교회 성장 힝클리(신권 모임),  
힝클리(일요일 오후)

권능 기번즈, 클라크

금식 현금 몬슨(신권 모임)

기도 몬슨(토요일 오전), 넬슨, 기번즈,  
스코트, 아이어링, 헤일즈

노인 옥스

단합 크레이븐

모범 옥스, 스코트, 헤일즈

복지 몬슨(신권 모임)

봉사 클라크, 몬슨(신권 모임),  
몬슨(일요일 오전), 헤일즈, 맥스웰

부 라슨

부활 패커

사랑 크레이븐, 몬슨(신권 모임),  
몬슨(일요일 오전), 던

선교사 페리

성신 아이어링, 웰즈

성전 사업 텅기, 헤이트

성찬 로렌스

속죄 파우스트

순결 스코트, 페리

순증 스코트, 위스린, 디아가, 아이어링,

힝클리(일요일 오후)

신권 크레이븐, 페리, 클라크

신앙 라슨, 애쉬튼, 크레이븐, 위스린,  
클라크, 고슬린드, 웰즈, 맥스웰  
십일조 힝클리(신권 모임)

안식일 로렌스

양심 위스린, 파우스트

역경 패커, 크레이븐, 파우스트, 애쉬튼

영성 패커, 스코트, 페리, 클라크, 디아가,  
아이어링, 헤일즈, 웰즈

예배 몬슨(토요일 오전), 로렌스,  
고슬린드

예수그리스도 넬슨, 로렌스, 기번즈,  
몬슨(일요일 오전), 파우스트, 웰즈,  
맥스웰,

예언자 넬슨, 크레이븐, 아이어링,  
힝클리(일요일 오후)

요셉스미스 기번즈, 헌터

용서 하워드, 몬슨(일요일 오전), 던

이혼 힝클리(일요일 오전)

안내 맥스웰

장애자 패커

재림 힝클리(일요일 오후)

지도력 크레이븐

지혜의 말씀 페리

책임 하워드, 파우스트

청소년 스코트

태도 애쉬튼

평화 몬슨(토요일 오전) 위스린,  
몬슨(일요일 오전), 웰즈

회개 하워드, 위스린, 클라크, 디아가,  
파우스트

회복 기번즈, 헌터, 힝클리(일요일 오후)

희망 애쉬튼

# 목 차

-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1차 연차 대회 보고

## 토요일 오전 모임

- 4 기도의 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 7 1990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7 물의 동함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 10 “여호와의 잊지 말고”  
딘 엘 라슨 장로
- 12 회개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 15 “네 부모를 공경하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18 “즐거움의 소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토요일 오후 모임

- 21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윌포드 지 에들링
- 22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러셀 엠 넬슨 장로
- 25 “죽은 자의 구속”  
얼 시 텅기 장로
- 27 예언자  
롤런 지 크레이븐 장로
- 29 주일 예배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장로
- 31 구세주와 요셉 스미스… 닳은 점과  
다른 점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 33 의로운 결정을 함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36 마음의 평화  
조셉 비 워스런 장로

## 신권 모임

- 39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엘 톰 페리 장로
- 41 “신권을 존중함”  
제이 리처드 클라크 장로
- 44 변화  
아곱 디아가 장로
- 46 그리스도를 따르는 젊은이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 48 “왕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2 교회의 형편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58 외롭지 않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2 1830년 4월 6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64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 67 가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70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74 인간의 가족을 연결시킴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77 어린이들을 가르침  
엠 러셀 블라드 장로
- 80 장벽을 쌓기 전에  
로렌 시 던 장로
- 82 의로움의 본보기

재니트 시 헤일즈 자매

## 84 평화

로버트 이 웰즈 장로

- 87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90 말일의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음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 56 교회 총관리 역원

- 92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95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 소개

- 102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 103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105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 음악을 위해 참여한 합창단 : 물론  
청소년 합창단, 로버트 시 보우든  
-지휘자 클레이 크리스찬슨-오르간  
반주자(토요일 오전 모임) : 릭스 대학  
연합 합창단, 켈들 넬슨과 제임스  
브래그-지휘자 클레이  
크리스찬슨-오르간 반주자(토요일 오후  
모임) : 브리감 영 대학교 연합 남성  
합창단, 맥 윌버그와 로널드  
스테일리-지휘자와 리처드  
엘리오트-오르간 반주자(신권 모임) ;  
태버내클 합창단, 저널드  
오틀리-지휘자와 존 롱거스트와 로버트  
컨덕-오르간 반주자(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  
대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 : 제드 에이  
클라크, 웬던 앤더슨, 필 셔틀리프,  
크레이그 아이어몬드, 존 루쿠, 페기  
젤링하우젠.

# 기도의 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벤슨 대관장님은 또한 이렇게 권고 하셨습니다. ‘좀더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회가 시작되면 먼저 대관장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 연단에 서시어 여러분에게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시고,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시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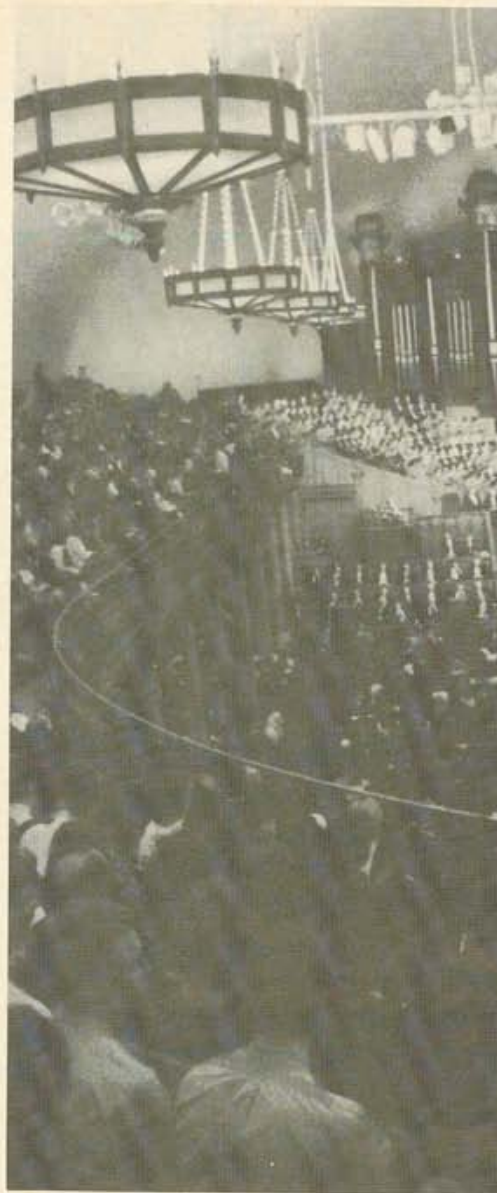
예언자께서는 어린이들이 인사 말씀과 대관장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 편지를 받으실 때면 쉽게 눈물을 보이시며, 자녀와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가정적인 분이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저에게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미국 대통령께서 어제부터

3일간을 미국 국민의 기도의 날로 정하고 중동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성명을 발표한 것을 기뻐하시며, 아울러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것에 감사드리며,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국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음을 모아 영원한 평화는 물론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양측의 전쟁 피해자들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의로움을 대가로 취합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들이 소리높여 ‘평화, 평화’를 외쳐 대다해도 사람들이 각자 평화를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순결과 성실함과 훌륭한 성품에 관련된 원리들을 영혼 속에서 성숙시킬 때까지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와야 합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8년 703쪽)

벤슨 대관장님은 또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좀더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일을 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며,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선으로 이끌어 온



대회 광경

사람들은 전능하신 분과 대화를 통하여 힘과 영감과 일깨움을 받아 왔습니다.” (하나님, 가족, 국가 :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4년, 8쪽)

또한 얼마 전에 브라질 사울 파울로에 모인 수많은 청중에게 벤슨 대관장님은 이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기도를 통하여 받은 권고는 제가 받은 다른 거의 모든 권고보다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제 삶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나의 안전을 위한 뜻이며 또한 힘의 근원이며 성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 보이지 않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힘이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 사웅 파울로 성전 봉사자 및 교회 직원들에게 주신 말씀, 1982년 11월 2일)

벤슨 대관장님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다음 찬송가 가사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가슴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기도는 한숨의 짐과  
눈물 흘림이며  
하나님께 가까이하려  
우리러보는 눈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 진리, 길이니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가르쳐 주옵소서

벤슨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 간증의 말씀은 오늘날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에 적격한 날에 특히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지속시키기를 겸손히 권고합니다.” (브라질 사웅 파울로 성전 봉사자 및 교회 직원들에게 주신 말씀, 1982년 11월 2일)

우리의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의 이 간절한 권고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관례로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문짚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에 일 시 텅기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와 물론 지 크레이븐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엘 알든 포터 장로, 엘 리오넬 켄드릭 장로,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그리고 해롤드 지 헬팩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크리 엘 코포드, 조셉 시 무른,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멕시코 치와와시 출신인 호르헤 에이 로하스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인 훌리오 이 다빌라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1991년 1월 1일자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 결정되었습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였던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와 제2보좌였던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의 노고에 감사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물론 지 크레이븐 장로를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모두 찬성 지지를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받은 형제님들은 지금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칠십인 회장단(좌로부터) : 딘 엘 라슨 장로, 매리온 디 탕스 장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 1990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 물의 동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장애자에 대한 모든 생각과 부드러운 태도와 도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0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통계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90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784
지방부 수	479
선교부 수	256
와드 및 지부 수	18.0%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수	130

(본 통계는 1990년 한 해 동안 45개의 스테이크와 785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줌)

## 교회 회원

1990년말 현재 교회 회원 총 수	7,760,000
1990년 동안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78,000
1990년 동안 침례받은 개종자 수	330,877

## 선교사

복음 선교사	43,651
--------	--------

##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회원

워렌 이 퓨 형제 교회 감사 위원회의 위원 : 아이잭 엠 스튜어트 형제, 태버내를 합창단 역임 ; 헬렌 우드럽 앤더슨 자매와 도나 디 소렌슨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 역임. \*



**“예** 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요한복음 5 : 2~4)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경전에 묘사된 소경, 절뚝발이, 귀머거리, 혈기 마른 자, 농아, 성 불구자 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학문을 익히거나 의사 전달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듣거나 보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지적이나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과 정신 지체자 및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결함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가족에게 말씀드립니다. 장애라든가 불구라는 말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모든 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리를 가르침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욱 큰 용기와 인내심을 갖게 되며, 원하지도 않았으며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닥쳐온 벗어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좀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음

저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장애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스스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말인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모든 고통은 어떤 면으로든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겨 났다는 개념을 배워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같은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는 초기 사도들 중에서도 그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를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 : 1~3)



장애와 연관지어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자는 부주의나 학대 행위로 인하여 생겨 나며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약물 중독에 걸린 결과로 생겨 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무고한 자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 자연 법칙은 통제될 수 있음

세상이 창조되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한 목적에는 자연 법칙은 인간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운영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예외이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연 법칙은 기적에 의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자들은 베데스다 못의 절뚝발이처럼 물이 동하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절대로 놀리지 마십시오

이 점을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이나 지각없는 어른들이 장애자를 놀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를 흉내내거나 놀리거나 혹은 조롱하는 행위는 잔인한 것입니다. 그같이 모욕하는 행위는 육체에 가해지는 것보다 더욱 깊은 고통을 줄 수가 있으며, 그같은 치욕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것처럼 잔인한 짓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반드시 보응받게 되며, 그 행위를 회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불행한 사람을 절대로 놀려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여섯 살 때에 저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들

나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소녀들이 과일을 따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뇌성 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맞춰 봐." 라고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녀 아이가 절뚝거리며 걷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그 소녀가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소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녀는 끈 껴어났으나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조롱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결코 잊는 적이 없으셨으며, 늘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다음 가정의 밤 시간에는 시간을 내서 가족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장애자들이나, 얼굴이나 모습 또는 성격이 특이한 사람 및 자기들과 어울리기에는 피부가 너무 검거나 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라며,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장애자들이 외로움과 당황스러운 일 또는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혼을 치료하며,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와 같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밴도사에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반원 중에는 계단을 오르는 데 크게 불편을 겪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반원들이 들어오다가, 그 중 두 명의 건장한 급우들이 친절하게 그를 들어 계단 위로 올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참으로 훌륭한 면에서 장남들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이 조금도 다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명의 급우이며 친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3 참조) 소년이나 반원들에게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소년의 급우들은 불구의 몸속에 갇혀 영원히 완전케 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영혼을 위로하는 천사처럼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 육체 속 어딘가에 그녀의 참다운 모습이 있음

최근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는 몸이 마비되고 귀도 막은 10살 정도의 소녀가 가족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의 다정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가족이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기에 제게 가까이 오도록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하이드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딸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몸을 돌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딸 아이의 육체 속 어딘가에 참다운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소녀의 육체 속 어딘가에 참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모두 그들의 육체 속 어딘가에 그들의 참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전세에서 모든 영들은 완전한 형태로 있었으며, 그들의 모든 능력과 정신적인 힘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신체와 정신 장애는...육체적인 것입니다." (복음 질문에 대한 응답, 조셉 필딩 스미스 2세 편집, 전 5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3:19) 육체적이란 "현세적"이란 뜻이며 현세적이란 말은 "일시적"이란 의미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이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계약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멸의 생애 동안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왕나비가 못생긴 유충에서 나오듯이 영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함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의 뼈와 근육과 살이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 (교리와 성약 138:17)

"영혼은 육체로 돌아가겠고 육체는 영혼으로 돌아가겠음이라.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리라.” (엘마서 40 : 23)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나… 영과 육체가 다시 제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 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산 영육이 되리니,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임이라.” (니파이서 9 : 13)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 : 19)

만일 인간의 생각이 필멸의 생에 한정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은 너무 불공평하고 또한 불변할 듯이 보이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좀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전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에 관한 내용이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24 : 33-41 참조)

필멸의 생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에 비하면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현미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를 필멸의 생의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에 비해서 지구상의 모든 대양을 합치더라도 영생을 표현하는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필멸의 죽음을 겪은 후 부활하게 되어 결코 끝이 없으며 끝이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끝없는”, “영생”, “영원토록”이라는 말들은 복음과 생을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치유의 그날은 올 것입니다. 불구가 되었던 육신과 온전치 못하던 정신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장애자인 가족 때문에 생활을 다시 정리해야하고 자원과 시간을 들여 장애자인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특별한 영웅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장애자 가족에 대한 모든 생각과 부드러운 태도와 도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후회와 실망에 찼던 시간들을 개의치 마시고, 이같은 요구 조건 속에서는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시간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놀랄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계시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자들은 일상적인 행동 양식과 훈련에 적응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노력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미비한 정도의 성과밖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보내신 모든 마음과 영은 모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7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정심만을 살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동정심을 억누르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 4 : 5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죽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때가 왔을 때, 받게 될지도 모르는 봉사과 동정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애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비용도 더 필요하며 또한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부모님을 돕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또한 장애자들에게 그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사회 사업가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를 돕는 많은 단체 중 하나를 골라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곳에 들러 몇 시간 봉사를 하는 것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기심도 없이 이 일을 한다면, 선행의 통장에 저축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같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을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 그때는 아직 아니나 가까왔느니라.” (교리와 성약 58 : 3-4)

저는 앞으로 부활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육신과 정신이 완전한 형태로 부활될 것입니다. 이생이 아무리 길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고 고통과 기다림의 세월이 아무리 멀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후에 나의 권능의 날이 임하리니, 그때에 가난한 자와 절름발이와 소경과 귀머거리가 어린 양의 혼례에 와서 장차 임할 큰 날을 위하여 예비된 주의 만찬을 먹으리라.

“보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58 : 11-12)

저는 장막 저편으로 가신 분들의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주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여호와를 잊지 말고”

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세상의 부를 취하는 것이 부에 대한 견해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역사는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하신 형제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폭넓은 경험과 배경을 갖고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형제님들이며, 이 형제님들이 부름받은 것은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갈 준비를 할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민수기 14:8)이라고 묘사했던 땅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꼭 한 세대 동안 그들은 거칠은 광야에서만 지내며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곧 경험하게 될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를 염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신명기 9: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얻게 하시니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신명기 6:10~12)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염려하였듯이,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오는 모든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을 부하게 만들었나니, 보라,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 그런고로 또다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나는 속세의 부보다 더욱 큰 부를

너희에게 제시하고 또 주려 하노라. 이는 곧 약속의 땅이니,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에는 주께서 오실 때에 아무 저주도 없으리라.” (교리와 성약 38:17~18)

역사를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주신 풍요로움이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부를 취하게 되면 곧 이어 영적으로 퇴보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 대해 염려했던 일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취하게 된 부를 당연히 여기며 그 축복의 참된 근원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급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신명기 8:7~14, 17)

초기 말일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가난과 싸워 가며 그들이 살 집을 만들고 살아 남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금광지로 가는 도중에 솔트레이크 지역을 지나면서 새로 발견된 금광에서 노다지를 캐내어 부자가 되려는 소망을 애기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일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몇몇 성도들 사이를 오고 가는 그같은 짐새를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금광이 1,280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부는 인간의 감정을 무디게 합니다." (교회사 일지, 1949년 7월 8일)

그리고 후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평소처럼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잊고 세상적으로 비대해져서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조롱과 약탈, 가난 및 온갖 박해를 이겨 내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부유함을 이겨 낼 수 없게 될까봐 크게 두렵습니다." (제임스 에스 브라운, 개척자의 생활, 솔트레이크시티 : 조지 큐 캐넌 앤 선즈 출판사, 1900년, 122~123 쪽)

영 대관장님은 영감에 찬 지혜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염려했습니다.

영 대관장님이 초기 생도들에게 준 권고는 물몬경에서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 표현했던 감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부를 얻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위험은 이러한 축복이 있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풍족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를 공중에서 내려다 본 풍경. 앞쪽에 보이는 것이 솔트레이크 성전임. 뒤에 동형의 지붕으로 된 건물이 태버네클임. 오른쪽에 원형 고대기로 된 흰 건물이 북 방문자 센터이며 이 센터에는 복음 중심의 생활에 관한 것이 전시되어 있음. 왼쪽에 보이는 직사각형의 지붕으로 된 건물은 물몬경에 관한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남 방문자 센터임.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인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없이 나누어 저들도 너희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좃으리니, 햇빛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게 되리라." (야곱서 2 : 17~19)

부를 탐하는 일이 종종 허욕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 및 탐욕을 초래하게 되며, 부를 얻게되자 교만하고 자만하여 오만해지는 경우를 자주 대하게 됩니다.

물몬경에서 엘마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면 니파이 백성들은 그들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과 레이맨인들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땅이 황폐해지고 재산이 손실되어 회복될 가능성마저 없을 듯이 보이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엘마는 이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동포를 잃어 크게 낙망하였고, 저들의 양떼와 가축들을 잃어 그러하였으며, 레이맨들의 발에 밟혀 농토를 잃으며 또한 그러하더라.

"고난이 극심하여 거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저들이 완악하고 가증한 까닭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심판이라 믿게 되어, 저들의 임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러하여 저들은 보다 온전히 교회를 일으켜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돈강 물에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니(엘마서 4 : 2~4)

백성들간에 이같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 극적인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땅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며,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곧 다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부도 얻게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니파이인들은 이 시험을 견디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비극을 경험한 지 3년 만에 엘마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저들이 힘써 일해 얻은 엄청난 부와 값진 비단과 잘찬 세마포와 풍성한 양떼와 가축과 온갖 금은 보화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저들은 참으로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더라.” (엘마서 4:6)

세상의 부를 취하는 것이 부에 대한 견해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역사는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곳곳에 따라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필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사치품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물질적인 부를 늘려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은 항상 같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볼 때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를 구해서는 안된다.
- …담내지 말라
- …혈벙은 자를 입히라
- …굶주린 자를 먹이라
-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구제하라
-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라
-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 …감사하라
- …겸손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명기 6:2-3)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신명기 8:1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회개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면 복음이 가져 오는 감미로운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나시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이 연단에 서서 회개에 관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남자 아이들이 하는 게임으로, 둥구렇게 원을 짓고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의 어깨를 때리면서 “전달”이라고 말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맞은 아이는 그 옆의 아이의 어깨를 때리면서 “전달”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째 아이 역시 그 옆의 아이를 때리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며 옆의 아이를 때림으로써 자기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학생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놀이를 하면서 어깨에 멍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도 유치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술취한 운전수가 자신이 술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유로 손님을 고소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도우려 했던 의사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짓을 했다고 변명하거나 또는 자신은 사회적인 병폐로 인하여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술을 타하며, 알콜 중독자들은 타고난 천성을 타합니다. 그리고 가학자나 음행을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을 타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오랫동안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같은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습관은 세상적인 상황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옛날 일기기는 하지만 영예롭지 못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나 또한 성이 났으니 이는 동생의 제물은 당신께서 용납하셨으나 내 것은 용납하지 아니하셨음이니”(모세서 5:38)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덴과 레뮤엘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니파이를 비난했습니다. (니파이일서 16:35~38 참조) 빌라도 역시 구세주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박을 것을 허락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그들이 불순종하였거나 축복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당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큰 죄를 야기시킨 것을 책망하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 : 19~24 참조) 구세주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마르다는 마리아가 구세주의 말씀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 : 40 참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아내는 나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뭐.”라고 하든가 또는 “그것은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식의 말을 들읍시다. “그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라든가 “그녀에게 책임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번째 큰 계명(마태복음 22 : 35~40 참조)을 쉽사리 어기고 있으며,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악마가 나를 피어 그렇게 한거야”라는 농담투의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결과를 접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 불편을 당하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무모한 악순환의 테두리 안에서 뛰쳐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한 잘못을 이웃 탓으로 돌리며 그 쪽으로 넘겨 주려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첫번째 단계는 단지 자신이 범한 잘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만과 자기 합리화, 또는 사나이의 호기에 빠져 있다거나 자존심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어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잘못을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 (니파일일서 17 : 45)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니파이삼서 11 : 2 참조)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 : 3 ; 힐라멘서 2 : 28 참조)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변명하려는 태도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영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흠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신앙개조 제2조)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잘못을 아담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맞게 될 진정한 위험은 험착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단으로 행한 행위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말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 또한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 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회개의 과정에 방해가 되며 또한 우리가 승영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부적당하거나 의심이 가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려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사용하는 듯합니다. “내 목적은 선을 행하거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거짓말을 조금 하거나 조금 속이거나 약간 불성실하거나 또는 법을



여기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숨기고, 적을 대항하기 위해 조그만 함정을 파며, 지식이나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들 하는 관행이야.” 또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지.” 라고 말하거나, “사람과 전쟁에는 어떤 행동이든지 정당화될 수 있어” 라든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유발시키는 그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통해서도 그것을 옳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칠 자가 많을 것이요, 마음이 교만하여지며 저들의 계락을 주님께에서 깊이 감추며...” (니파이서 28 : 9)

어떤 사람들은 성구를 인용해 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선을 이루고 한 나라가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어겨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니파이가 레이밴을 죽이는



내용을 흔히 인용하는데, 니코이가 영의 속삭임을 따르기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니코이는 “주께서 악인을 치시어 의로운 뜻을 이루시고자 함” (니코이일서 4:13)을 확신하고 또한 (제가 믿기로는) 그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벌을 가하거나 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주님에 의해 타인의 목숨을 취하는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수단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제가 가능한 한 항상 옳은 곳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만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나,

“그때에 내가 저들에게 밝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니코이삼서 14:22~23)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에 관한 것이었으며, 거기에서 채택된 원리는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적인 영생을 위한 것일지라도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려깊은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그릇된 수단으로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그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더 큰 선”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한 악행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목표가 선하다 할지라도 정도를 지나치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따금씩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엘마서 41:10)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면 복음이 가져 오는 감미로운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란 가지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책임 능력도 없는 어린 시절의 게임을 생각하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을 중단하며, 그 일에서 빠져 나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행한 가해 행위를 인정하고 나서, 단지 그 일에서 손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이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것처럼 위험한 놀이나 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의식을 받아야 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교리와 성약 98:11)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모든 일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98:14 참조) 심지어는 수단과 같은 하찮은 일에서도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몸담고 있지 않고 떠나야만 하는 기타 단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대한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자신을 포함하여 때때로, “나는 잘못이 없어 - - 환경상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했을 뿐이야.”라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읊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진할지라도 나의 꾀괴함을 증거하리라”(욥기 9:20)

또한 “아마 약간은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의도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행위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응답을 드립니다.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리와 성약 137편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네 부모를 공경하라”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마치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과도 같이 복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대회를 치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전쟁 때문에 많은 말일성도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140명이 넘는 말일성도들이 군인 회원들을 지도하고 예배 모임을 갖고 우정 증진을 하였습니다. 참전한 말일성도 군인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추가로 짐을 짊어졌으며 아직까지도 그 짐을 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스테이크, 와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전통이 되어온 형제애와 자매애를 통한 봉사 활동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위협에 처해 있는 양편 모두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지도자들의 평의회 모임이나 모든 교회 모임과 가정에서 그리고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을 할 때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전쟁이 빨리 종결되고 사상자의 수가 매우 적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선포된 미국 국민의 감사의 기간 동안 전국 도처에 있는 수백만 종교인들과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사랑과 조의를 표하며, 평화 유지를 주도하고 포로와 난민들을 보살피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임무를 맡으신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신중하게 전쟁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최근 전쟁이 치러졌던 아라비아 반도 저편에 서있는 한 산위에서 수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다섯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 : 12)

오늘 저는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마치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직물과도 같이 복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인류의 거룩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늘 나라의 다스림을 본뜬 가정의 다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성스러운 가족 관계를 반항시키는 것으로서, 가족이

이 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유지하는 경우 서로에게 천국에서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쁨이나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은 또한 자녀를 낳고 돌보며 가족 역사를 준비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영원한 의식이 행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세주께서도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 다섯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시면서, 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레위기 20 : 9 ; 신명기 21 : 18~21 ; 마태복음 15 : 4 ; 마가복음 7 : 10 참조) 제가 알고 있는 한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극형에 처해지는 별로 다스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사이야서 13 : 20 ; 마태복음 19 : 19 ; 누가복음 18 : 20 참조)

다른 많은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의로움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모든 일이란 모든 의로운 일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 : 20)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순종과 본받는 다른 것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의 훌륭한 성품을 본받으며 그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크게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떠한 선물도 몇 마디 진지한 감사의 말씀보다 부모에게 더 귀중할 수는 없으며,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의로운 생활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3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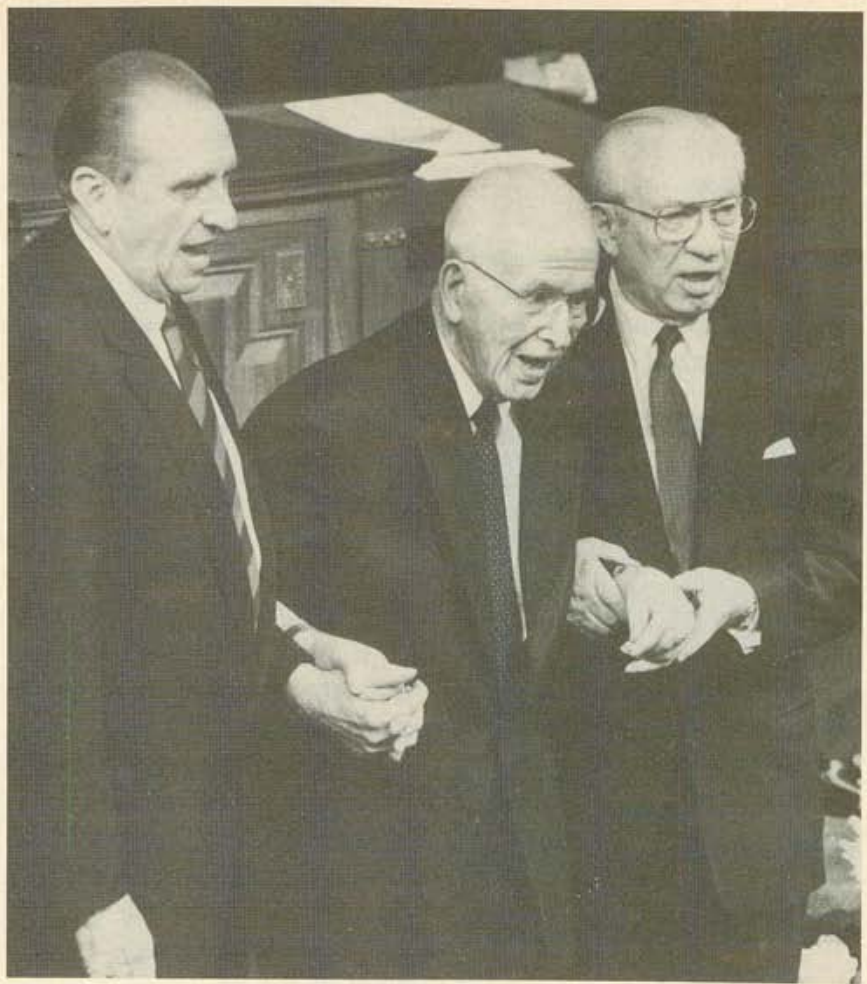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부모의 권고에 따라 의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 드릴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가족이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하며, 돌아가신 부모가 생애 동안 행하던 대업을 계승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년기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나이든 부모들을 보살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1년 반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는 가족에게 “나이든 부모와 조부모에게 사랑과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든 회원을 돌보아 줄 가족이 없다면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분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7쪽)

최근 들어 노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나 되는 3천 5백만 명 정도에 달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그때가 되면 85세 이상의 노인들만도 5백만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회중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대관장단.

문제 및 노인 문제”, 데저레트 뉴스사, 1990년 5월 7일, C-1쪽)

교회 지도자들은 가끔 성장한 자녀 가운데 걸으려는 훌륭한 말일성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로한 부모에게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악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부추겨서 그분들의 재산을 상속해 주도록 유도한 다음 양로원에 보내고는 적절히 보살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정규적으로 방문해서 사랑을 보여 드리지도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대변자인 예언자 이사야가 천둥같은 소리로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 : 7)라고 꾸짖은 것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라고 믿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드셨을지라도 가능한 한 선택의 자유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선택을 빼앗기는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노년기에 스스로 생활하고 돌볼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 드리십시오.

“그분들이 독립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는 가족과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살며 보살피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지역 사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 8쪽 참조)

혼자 살 수 없는 연로한 부모님을 자녀들이 모셔다 함께 살게 되면, 이로써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며 온 가족이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게 되면, 다른 자녀들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여 그에 따르는 축복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양로원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은 그같은 양로원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면에서만 노인들을 보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정규적으로 부모님을 찾아 뵙고 전화도 하여, 지상 생활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계속될 가족 관계에서 지속되어야 할 영적이고 정서적인 도움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이 살고있는 어떤 국가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의무가 미국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또한 더욱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아시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일이 아직까지 중요한 의무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노인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매주 자녀들의 방문을 받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4분의 3이 최소한 매주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자녀 중 3분의 2가 연로한 부모를 돌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테저렛 뉴스, 1990SUS 5월 7일, C-1쪽 참조)

말일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나이든 부모와 노인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저도 제 가족 및 말일성도 친구들 가운데서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총관리 역원들과 그 부인들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일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타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나던 소년 시절, 저는 할머니께서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시며, 교통편 및 오락을 준비하시던 모습을 지켜 보던 것이 생각납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보좌로 봉사하시던 할머니는 “노인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노인의 날이란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유타주에 살고 있던 물론 고유의 행사로, 1875년 개척자 사진사였던 찰스 알 새비지 형제가 당시 관리 감독으로 있던 에드워드 헌터 감독을 설득하여 현재 우리가 연금 생활자라고 부르고 있는 분들을 공경하기 위한 날을 제정한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첫번째 노인의 날 행사는 솔트레이크시티 서쪽에 위치한 솔테어에서 야외 행사로 거행되었으며, 참가하는 분들을 기차로 모셨습니다. 그 행사 및 노인의 날 제정자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템플 스케이 남쪽 모퉁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치러지던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거의 유타주 전역에서 행해져서 70세 이상된 모든 노인들에게 관광 여행과 음식 및 오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기념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이기는 했지만, “종교 때문에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도록 하며, 참석한 사람 중 가장 연장자는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종파에 관계없이 그 행사의 귀빈으로 모신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셉 하이너만의 “노인의 날 : 유타 고유의 전통,” *계간 유타 역사지*, 53(1985년 봄) : 158에서 인용)

이 기념일을 주관하던 위원회는 1970년에 해체되었으며, 연금 생활자로 불리우게 된 이분들을 공경하는 책임은 스테이크 부장에게로 넘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 연금 생활을 하는 회원 수는 계속 늘어 왔지만,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경로 혜택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지역 사회, 사업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연로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다섯번째인 이 계명은 흔히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서 6 : 2)으로 불리워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 : 12) 저는 이 계명과 약속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길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최소한 일부분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저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인 찰스 딕슨과 장모인 트루 딕슨과 더불어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준의 외할머니인 아들레이드 화이트 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85세의 미망인이던 콜 할머니는 노인들이 “출애굽기”라고 칭하던 상황 속에서 살아 남으신 분으로 1912년 멕시코 북부에서 추방당한 용감한 말일성도 중의 일원이셨습니다. 그후 자녀들이 미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콜 할머니가 만년에 유타 카운티에서 준의 부모님이 계시는 근처에 사시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콜 할머니의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이 이 연로하신 모친을 상냥하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상냥하게 돌보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 뵈었으며, 특히 저의 장모님은 매일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또 자주 집으로 모셔오고는 하셨습니다. 콜 할머니의 자녀들은 할머니가 원하시면 어디든지 참석하시도록 하였으며, 언제나 관심과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몸이 아프실 때는 모든 것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콜 할머니의 자녀들은 확실히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같은 공경심을 본 지가 약 40년의 지난 지금, 저는 그 열매를 봅니다. 준과 그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공경하던 모습을 본 대로 이제 그들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모님이신 트루 딕슨자매님은 건강과 활력을 축복받아 그분의 어머니가 필요로 했던 것 같은 보살핌이 요구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주 찾아 뵙고



템플 스캐어에 있는 북 방문자 센터의 곡선 창문. 솔트레이크 성전이 보인다.

전화를 드리며 또한 어머니가 원하시면 모든 가족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들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깨우친 자녀들이 돌보아 드리고 함께 해 드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준의 어머니의 날이 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같은 모범과 원리를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제 아내가 친정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 보고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도 언젠가는 자녀들이 아내가 그들에게 보여 준 모범을 따라 보살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 날들이 길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같이 가치있는 모범은 수세대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참으로 의로움은 등불이 되며 가치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교리와 성약 59 : 23)

다가을 그때에, 우리는 각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즐거움의 소리”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은 쓰라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달콤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울한 소리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혹은 즐거움의 소리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미스와 우리 모두에게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 신문에서 가격이 싼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건물을 완전히 태워 버린 끔찍한 재난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거리로 뛰쳐나와, 그들의 삶의 공간과 지상에서 사용하는 소유물들이 불에 휩싸여 연기로 변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불길을 피해 나온 한 노신사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는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전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쓰라린 마음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숙한 가치관을 보여 주는 즐거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그같은 상황에 상처를 입지 않을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전의 상황만을 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실망감, 죽음, 손실 또는 실패 등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들이며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로인해 원망하거나 계속 분한 마음을 갖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도록 용기를 부여받습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지 채 4개월도 안돼서 교회 지도자들은 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 일부 지도자들이 몸을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라, 너는 물문경을 기록하며 나의 일 곧 나의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느니라. 나는 너를 환난에서 건져 내었고, 또 네가 모든 원수로부터 구출되었고 사탄의 권세와 흑암으로부터 구출되었음을 네게 가르쳐 주었느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24 : 1, 8)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요셉

교리와 성약에서는 다음 교훈이 주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즐거움의  
소리니 하늘에서 들리는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즐거운 소식이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즐거움의 소리요,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니라. 좋은 일의 즐거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우나” (교리와 성약 128 :  
19)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움의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매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미망인 댁을 방문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 자매님에게 음식이 든  
상자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려 할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분은  
“고마와요 감독님, 그냥 인사만 하더라도  
다시 들려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을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음성이 흔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의  
소리는 진실로 환영받을 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로 인한 슬픔을 갖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거나 남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즐거움의 소리를 잠재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즐거움의 소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낙천적인 면을 보여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진지한 칭찬 한 마디로  
마음을 고취시키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칭찬 한 마디로  
2개월 동안 좋은 기분을 갖고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저서인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잠언 25 : 11)라고  
기록했습니다.

격려의 말은 아주 짧고 간단할 수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 : 로버트 이 새클리 장로,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리처드 피 린지 장로.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지금 귀환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유와 같이  
귀중한 어떤 것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기꺼이 즐거움의 소리를 외치는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게 변모되었음에도 그들의  
즐거움의 소리는 그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치른 손실과 희생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신뢰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희망이 샘솟아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온 세상에  
즐거운 소식을 가져 왔으며, 그 단순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시련을 좀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조사에  
의하면 슬픔이나 고통은 그것을 야기시킨  
사람보다 그것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쓰라림과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마 볼백은 암에 걸린 어린 환자들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구상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익살스럽고  
낙천적인 말을 하며, 그것은 통하여 이  
어린이들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웃는  
모습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  
어린이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에마 볼백, 나는  
머리를 기르고, 성장하여 보이므로 가고  
싶다, 뉴욕 : 하러 앤 로, 1989년)

열 여섯 살이 된 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어 감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작가는 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아이들에게 온  
편지도 읽어 보았는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낱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말은 바로 “태도”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자기들보다 더 크고  
힘센, 그래서 상대할 수조차 없을 듯이  
보이는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그러면서도  
적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희망은 참으로 굉장한  
무기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실족할 때에,  
희망이라는 대포를 꺼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경전에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 :  
2~3)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즐거움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 : 33)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낙천적이 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암 환자들이 체득했고  
의학적인 탐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대회 방문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바로 마르게 하”(잠언 17:22)는 것입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대회를 하는 중에 여러 스테이크에서 모여 조직한 잘 훈련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대회를 장식하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합창단을 바라보다가 저는 맨 앞줄에 있는 네 명의 합창단원이 목소리가 아닌 손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들이 참여하도록 용기를 준 합창대 지휘자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곡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운율 없이도 그들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이 그들의 즐거움의 소리를 힘있고 격려를 주는 것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는 엄숙한 즐거움의 소리로 인생의 폭풍우 속을 헤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힘을 돋우어 주는 실질적인 것이 되게 고귀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로마서 14:19)

어느 날 아침 심한 통증과 고통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난 남편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그의 아내에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오늘 난 참으로 고마움을

느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아내는 그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에 하는 즐거움의 소리는 더욱 신선하게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람처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값진 하루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하고 감사를 표하며,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도움을 외치는 사람은 돕는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짧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날을 더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니(사도행전 3:1~9)

이때에 베드로가 한 다음과 같은 기쁨의 소식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사도행전 3:12)

베드로는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앉은뱅이의 두 발이 선한 것들의 기쁨 소식을 취하여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해 듣고 보게 하였습니다.

아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이 온전한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 “이제 곧 또 한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시간과 봉사도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고무적이며 의미깊은 태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의 소리를 분명하게 발하는 것은 우리의 사기를 높여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비극을 당했을 때나 행복할 때 모두 즐거움의 소리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 원리에는 인간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 또는 냉소적인 자세에 굴복당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은 결코 없습니다.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지침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이 가르침의 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고 낙담에 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쓰라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달콤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울한 소리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혹은 즐거움의 소리를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즐거움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기쁜 소식을 출판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종종 화형을 당했습니다.

용기있는 사람들에 의해 관습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있는 즐거움의 소리는 우리가 인생을 혼자서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 : 10) 왜냐하면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니파이서 25 : 23)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의로운 목적에서 나온 친절할 행위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은밀히 행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행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기를 높여 주고 격려하며 힘을 주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문과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자비롭고 참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음성으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 : 34)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사실은 참으로 큰 즐거움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와 의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의 소식을 외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제가 드리는 즐거움의 소리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즐거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토요일 오후 모임  
1991년 4월 6일

#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들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수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교**회 및 교회 조직의 본부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합당한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1990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의 교회의 예산, 회계 및 감사 제제, 이와 관련된 재정 결산 명세서 그리고 기금 영수와 지출 관리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간 교회 본부 기금은 주님의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교회의 본부 기금 계정은 교회의 빠른 확장과 다양한 활동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재정 기록부가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을 지닌 감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업무는 교회의 각 부서와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부, 학교, 관리 본부 및 각

부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워드 스테이크의 지역 기금에 대한 감사 절차는 교회 감사부가 제정한 것이며, 감사 보고서는 교회 감사부에서 검토합니다. 교회 재정 기록부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교회 소유 및 운영 재단 법인 사업체는 교회내의 감사자,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교회내의 재정 관리 체제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의거하여 재정 기록부와 감사부 책임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토론한 결과 우리는 예산, 회계 및 감사 관리가 교회의 필요 사항과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처리되었으며, 1990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본부 기금이 모든 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회계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교회 감사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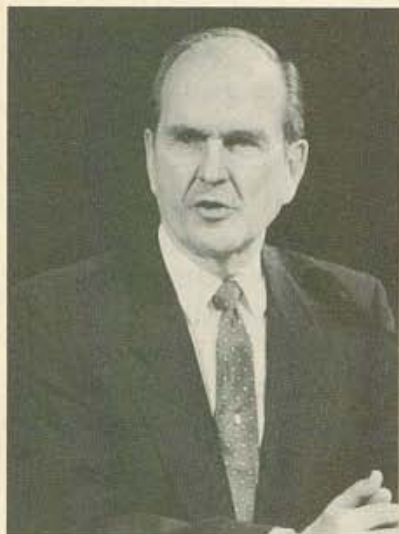
윌포드 지 에들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또한 자녀나 부모, 배우자, 이웃 및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로 경청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위한 개회 기도를 하면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님은 우리가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쓰여진 많은 기사들은 경청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잠언에 나오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9:20)는 중요한 교훈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린이, 부모, 배우자, 이웃, 교회 지도자 그리고 주님에게 배우기 위하여 경청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 자녀

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녀들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한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막내딸이 네 살 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하루종일 겨우 아홉 명 밖에 안되는 아이들을 돌보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지쳐 있는 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네 살 짜리 막내를 재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의 심한 상사가 하는 것처럼 막내 딸에게 “옷을 벗어라, 벗은 옷을 걸어라. 잠옷을 입어라. 이를 닦아라. 기도를 해라”는 등의 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딸 아이는 머리를 한쪽으로 쳐들면서 애원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며 “아빠, 제가 아빠의 소유물이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 아이는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힘으로 다루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구세주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특권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인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기쁨에 찬 일에서부터 고달픈 역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열망을 그만큼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즉흥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믿고 그들의 느낌을 이해할 때에 자녀들은 포근한 안도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일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든 이유로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침묵은 가끔 오해를 부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저때문에 화 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엄마가 뒷짐을 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고독을 느끼거나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돌보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가장 많이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부모와 교사 여러분, 어린이들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 부모

자녀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는 일은 영적이나 혹은 육체적인 생과 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 년전 저는 뉴욕의 어떤 의과 대학으로부터 중요한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강의 전날 아내와 저는 저희를 초청한 교수의 집에 저녁을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때 그교수는 자랑스럽게 의과 대학에 다니는 아름다운 딸을 소개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그 교수가 슬픔에 가득 차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난 제 딸을 기억하시지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매력적인 따님을 잊을리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는 흐느끼며 “어제 밤 제 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말하기를 “딸 애가 어느 젊은이하고 무도회에 가도 되느냐고 묻길래 저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애가 왜냐고 이유를 묻기에 그저 불안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딸 애는 항상 순종적이었는데 그 날은 제가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면 무도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 애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도회에서 술 잔이 오갔고, 제 딸을 데리고 간 젊은이는 얼마큼인지는 모르지만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젊은이는 과속으로, 회전할 곳에서 회전을 못하고 길 난간을 들이받고 밑의 저수지로 빠졌습니다. 둘 다 모두 물에 잠긴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제가 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다가 올 불행을 알고서도 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경험이었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다음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 : 8) 부모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에베소서 6 : 11)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명한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 배우자

남편과 아내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저는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쓴 매리온 지롭니 부대관장님의 전기글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 아이다 자매님에 대한 롭니 부대관장님의 유우머와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롭니 부대관장님이 아이다 자매님의 청력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번은 아내의 청력이 걱정이 되어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나쁜지 물어보았으나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서 알아 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 주기를 먼 방에서 아내를 불러 보고 아내가 들을 때까지 가까이 가면서 계속 불러 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아내가 부엌에 있을때 침실에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았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엌문 앞에 가서 ‘여보, 내 말이 들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어쩐 일이에요 제가 세 번씩이나 대답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도 어떤 부부들은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서로 이야기 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원활한 의사 소통의 지름길입니다.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관계라면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약속들이 종종 중요시 여겨져서 배우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며 게으름에 의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즐거운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한 영적인 필요조건입니다.

훌륭한 배우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 이웃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이웃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주님은 거듭 거듭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 : 18 ; 마태복음 19 : 19) 정치 및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에 대해 경청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인내심과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경청자는 말씀을 하는 사람의 감정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외국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만난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케네디 형제님은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며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안경까지 벗어서 마치 모든 관심을 쏟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원치 않는다는 듯이 하고 경청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합니다.

## 교회 지도자

교회 회원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충실한 회원들은 구세주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고리와 성약 1 : 38)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훌륭한 신권 지도자와 그 분의 아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서 저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외국말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저는 그 분들에게 영어를 공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육년이 지난 지금 빈센조 콘포르테 형제님은 아내인 케틀리나 자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두번째 선교부장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선교사들을 접견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물론경을 공부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이 권고와 다른 권고를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분은 예언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음 경전에 나온 것같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사도행전 3 : 22~23)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예언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에게 기울일 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현명한 회원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합니다. (교리와 성약 1:4 참조)

###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몇차례 일어난 신성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을 소개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는 특별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라고 첫째되는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경륜의 시대에 기록된 모든 경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행위와 순종하는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가장 많이 쓰여진 희랍어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것 이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시해야 합니다. 응답을 듣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아주 조용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1:16)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한 뒤에 잠시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독재와 전쟁의 상처를 입고 있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적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한 예로써 얼마전에 스베틀라나라는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는 성경을 구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고 있는 레닌그라드에서는 성경이 몹시 귀했고 비쌌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구하게 해 달라고 매우 진지하게 자주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내 스베틀라나와 남편은 희망을 가지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핀랜드의 헬싱키로 여행을 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어느 날 공원을 걷는데 떨어진 가을 낙엽 밑에서 무엇인가가 발에 걸렸습니다. 주워서 펴보니 그것은 러시아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기쁨에 들떠 스베틀라나는 이것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던 다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스베틀라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다른 책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하자 스베틀라나는 물론 갖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러시아판 물문경을 스베틀라나에게 주었고 교회로 스베틀라나의 가족을 초대 하였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으며, 그 뒤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레닌그라드에 있는 교회의 초기 회원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스베틀라나의 경험은 주님께서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다음 약속을 대변해 주는 한 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 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니파이서서 28:30; 강조 첨가)

귀 기울여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는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각 장애자로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2)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레이첼 아이빈스 그랜트 자매님의 경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랜트 자매님은 한번도 자신의 귀가 안들리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칠십대가 되어 귀가 전혀 안들리게 되지만 그 분은 여섯 자녀를 키울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청각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공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때로 서로 말다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레이첼은 웃음을 터트리곤 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서 그저 그들의 화난 얼굴만 보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자매님은 아들 히버 제이 그랜트가 교회의 제7대 대관장이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은 듣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저의 처지를 불평하기에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구속주께서는 것처럼 충실하고 신앙심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니시니.” (베드로전서 3:12)

의인들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주]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사야서 65:24)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가리지 않으시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3)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또한 자녀나, 부모, 배우자, 이웃 및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자세로 경청할때, 여러분의 영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성신의 “작고 조용한 소리” (니파이일서 17:45)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기록한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므로 기도를 통해 배우기 위하여 경청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 경청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리며, “저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교리와 성약 133:16~17)들을 때에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죽은 자의 구속”

얼 시 텅기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종들이 어려울 때 도와 주십니다. 이러한 많은 도구와 기술이 이제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실패는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2월 저에게 온 부름에 대해 주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름을 겸손히 받아 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재능을 바치겠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저의 아내 조앤과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부모님과 친척들 또한 이일을 수행하는 저의 능력에 신뢰를 보여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가족 역사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래서 오늘 이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위대한 구속 사업이 제정된 방법대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대로 잠막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는 수 많은 봉사자들과 자원 봉사자 그리고 성전 선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완전하고 비이기적인 봉사는 우리가 구세주와 이웃을 위해 지녀야 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충실한 성도들에 의해 수 백만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회는 한때 이 지구상에 살았던 거의 이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으로써 이 사업을 도왔으며,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집행되는 거룩한 의식들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권고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7년에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해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 대표 모임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컴퓨터의 놀라운 능력과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이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패커 장로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겠으나,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이즈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맥스웰 장로, 러셀 앤 넬슨 장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197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라기는 현재와 과거의 세대 간에 걸속을 맺게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엘리야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1836년 엘리야를 요셉 스미스에게 보내시어 심으신 씨는 완전히 성장한 나무가 아니라 단지 씨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보 협회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족 탐구가 시작된것은 1844년 보스톤에서 신 영국 역사 계보 협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 의해 심어진 조상의 계보에 대한 관심의 조그만 씨앗은 꼭 8년 만에 싹트기 시작하여 주님이 마련해 주신 컴퓨터 기술과 도구의 결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 전 겸손한 청중들이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자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침례를 받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가족 역사 센터와 성전에 가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찾으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업이 참됨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이 사업을 관리하시고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정보 자료, 발명품, 여러 종류의 보조 자료 등과 같은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종들이 어려울때 도와 주십니다. 이러한 많은 도구와 기술이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실패는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1500 개나 되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새로운 도구는 가족 탐구라고 이름 붙혀진 컴퓨터 보조 자료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조상철에는 가족 관계로 연결된 칠백만 이상의 성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명을 제출한 사람의 신원도 제공되어 같은 가계가 함께 협력해서 탐구하게 해 줍니다.

둘째, 가족 역사 도서실 목록은 교회의 가족 역사 도서실과 그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셋째, 국제 계보 색인은 일억 사천 칠백 만이 넘는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800 개가 넘는 스테이크에서 현재 새로운 가족 기록 초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신들의 집에서 봉사하는 칠만 오천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회원들은 곧 본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회원들의 집회소에서 성전 사업을 위한 성명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므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도록 생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823년에 천사 모로나이를 요셉 스미스에게 방문케 하심으로써 죽은 자의 구속 사업과 교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모로나이는 요셉에게 구약전서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주님의 재림 전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엘리야에 대한 말라기의 말씀을 약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요셉스미스 2서 : 39)

천사 모로나이는 “심는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약속이란 주님의 성약에 관련된 것으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주님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서 그 계획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율법, 원리 및 의식에

# 예언자

틀린 지 크레이븐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정의 밤 시간에 예언자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예언자를 지지하고,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할 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 제 자매 여러분, 십삼 년 반을 십이사도 정원회 서기로 봉사하는 동안, 살아 계신 예언자에 관한 저의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이사도로 부름 받은 자들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 : 23 참조)

예언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서기로 일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부르신 이 분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성전의 윗층에 있는 방에서 갖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 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회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들을 때면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으며, 성도들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곤

하였습니다.

헌터 회장님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동안 저는 “이상의 어느 정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나니,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은 그 결의에 찬성해야 하느니라. 이는 저들의 결정이 서로 저마다 똑같은 권능 또는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교리와 성약 107권 27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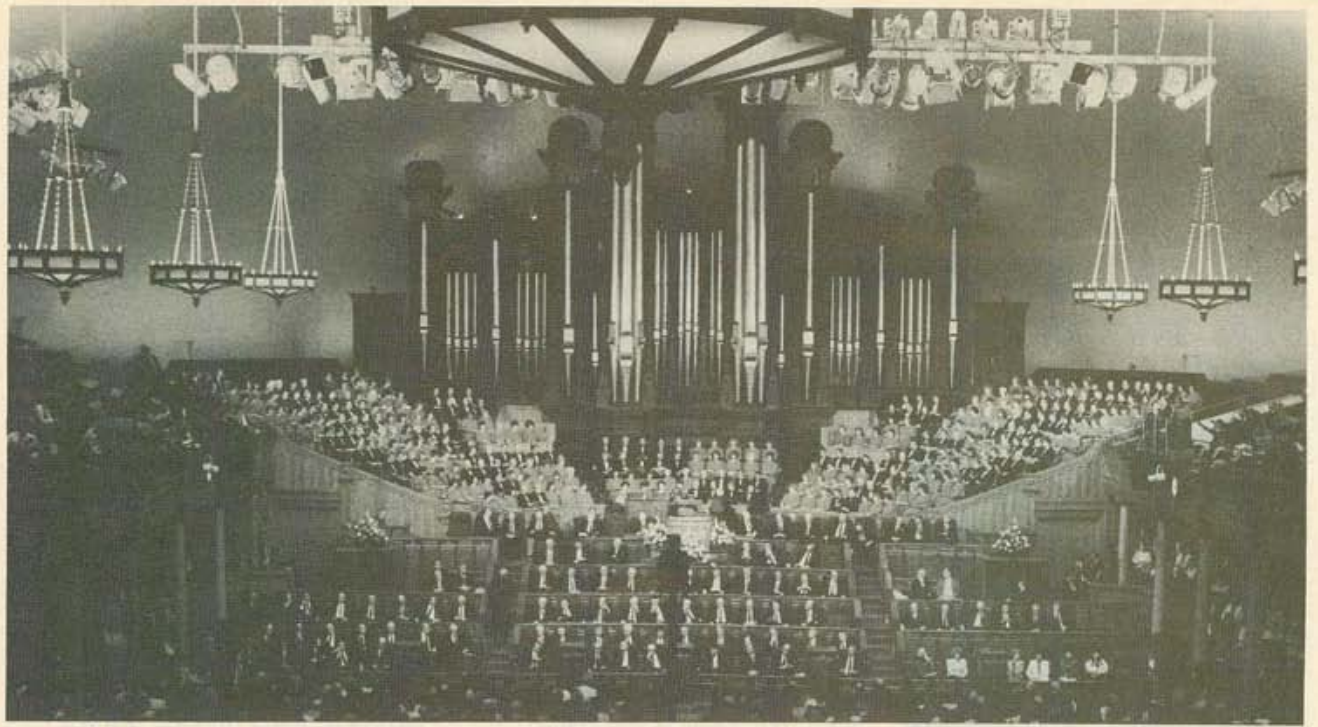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자신의 속마음을 기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시며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하십니다. 정원회 모임에서 그분들은 항상 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끌어 주는 성령의 지시를 듣고 느끼려고 애쓰십니다. 저는 성령의 권세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이성과 느낌에 와 닿아서 모든 결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관장단 평의회 및 십이사도 평의회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은 모두 성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주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정원회 또는 그 중 하나가 내리는 결의는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인내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 “이는 만일 저들이 이것들을 풍성히 지니면 주에 관한 지식이 결코 궁핍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약속이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 : 30~31)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및 관리 감독단은 진실로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며, 이분들이 갖는 정원회 모임에는 의로움과 사랑과 단합의 영이 충만합니다. 십이사도들은 정원회 회장님을 사랑하며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십이사도들을 사랑합니다. 헌터 회장님의 은유하고 설득력 있는 지도력으로 인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모임에 주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십이사도들이 서로에 대해 품고 있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정원회 모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는데, 헌터 회장님께서 저의 이런 결례를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 헌터 회장님이 다시는 견지 못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회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과 의지는 그 소식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다시 견을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매일 그 어렵고도 힘든 물리 치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몇 달 동안 헌터 회장님의 십이사도 정원회 동료들은 정원회 모임을 할 때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헌터



대회 광경.

회장님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목요일 아침, 저는 성전에서 갖게되는 모임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헌터 회장님의 사무실로 갔으나, 헌터 회장님이 이미 성전으로 떠나셨는데 걸어 가셨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헌터 회장님을 따라 잡았을 때, 그분은 보행 연습기에 의지하여 걸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레베이터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복도를 내려가서 성전 맨 꼭대기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헌터 회장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자 십이사도들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헌터 회장님이 자리로 가서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감동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존경심과 애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득한 모습으로 십이사도님들은 한분 한분 헌터 회장님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며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헌터 회장님은 십이사도에게 감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도움과 저의 의지력과 또한 무엇보다도 십이사도 형제님들의 신앙으로 다시 견지

되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본보기이시며, 십이사도들은 역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신앙을 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귀감이 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기를 염원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이 분들은 주님과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신의 권세가 그분들의 마음과 가슴에 임하시어 말씀을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간증을 갖고 있으며, 또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들은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지도자이신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 형제님들이 대관장님께 보여 드리는 사랑과 지지를 항상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뜻을 모아 전하시는 권고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의와 행복과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의 아내 도나와 우리 자녀들은 예언자의 말씀이 기록된 글을 읽고 그분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는 것이 습관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과 직장 및 개인의 생활 속에서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 의지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탐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예언자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예언자를 지지하고,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 7) 여러분의 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언자가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일 예배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희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성찬을 취하면서 구세주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연단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속에서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딱다구리가 연단을 파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제 무릎 사이에 배개를 끼워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서게되니 겸손해짐을 느끼며,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 모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감독님은 이 모임이 경건하고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고 애정이 넘치며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 진행되도록 성찬식 모임을 준비하고 감리하십니다. 저는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앞에서 환영을 받고, 감독님이 품고 계시는 큰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갖고 계신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며,

낯선사람 취급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성찬식은 주일에 갖는 모임 중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성찬식은 구세주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경건히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식 모임에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경전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찬식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속죄를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는데, 성찬이 전달되는동안 우리는 주님의 생애와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예언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니파이이사 25장 26절의 말씀대로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주님의 영을 느끼며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모임에 관해 구체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 9~13)

이렇게 하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움이 넘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이 모임의 성격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식 예배를 단순히 세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상적인 주일 모임들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진실로 구세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에게 전하며 주님의 영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뜻있는 모임이 되는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 자녀들에게 성찬식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며, 또한 주님께 보여 드리는 사랑의 한 형태인 경건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조용해질 때까지 예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성찬식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며, 그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 사랑을 보여 드린다는 것을 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니라.” (엘마서 32: 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성찬식에서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수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전을 펼쳐서 성찬 기도문을 공부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심오하고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의 어디에 성찬 기도문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리와 성약 20편 77절과 79절과 몰몬경 모로니아서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구세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물을 축복하는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증거(혹은 약속)합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여러분은 기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침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여기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주님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대하고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킬 때, 주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축복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니파이서 2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하지 않음이 바른 길이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여 너희의 정성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예배해야 하느니라..."

성찬식 모임이 구세주를 경배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저의 온 영혼을 다해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이 거하는 성찬식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참된 예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3.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함으로써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고히 하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세상에서 제일 가는 음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때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맥, 부탁이 있는데 노래할 때 입술만 움직여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열심히 노래하며, 그때마다 영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4. 성찬식에서 말씀을 할 때에는 성구를 인용하고 간증을 하며 구세주에 관한 말씀을 빼놓지 마십시오. 저는 성찬식에서 구세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모임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전은 구세주와 구세주의 교리에 관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성찬식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경전 구절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통해 복음에 관한 느낌을 받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말씀을 경청할 때 경전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복음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및 그분의 복음과 여러분이 영을 느꼈던 경우에 관한 개인적인 느낌을 두려워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간증도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간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해야 하는 강박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간증의 정도가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럼 없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보잘것 없는 간증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5. 성찬을 취하면서 구세주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이 축복될 때 성찬 기도문을 종종 잘 들을



# 구세주와 요셉 스미스...

## 닮은 점과 다른 점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요셉 스미스를 교회를 회복한 예언자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분이 지녔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또한 구세주를  
흠모하며 예배합니다.



147년 전 6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얼굴을 검게 한 폭도들이 쓴 총알에  
맞아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습격으로  
요셉 스미스와 함께 감옥에 있던 존  
테일러 형제는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요셉과 그분의 형 하이람과 함께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3대 대관장이 된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교리와 성약 135 :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을  
연관시켜 보면, 그분들의 삶과 인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두 분 다 육체 노동을 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두 분 다 부와 권력이  
없었으며 영향력이 많은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분 모두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두 분 다 영성이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요셉 스미스의  
아버지는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놀라운  
시현들을 보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 예수님이나 요셉 스미스 모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거나 저명한  
학술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두 분 다 어렸을 때 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열 두 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아주 어린 소년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셉은 열 다섯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과 목적에  
대하여 그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 두 분 모두 멀리 여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성지를 넘지 않으셨으며,  
요셉은 전 생애를 미국 동북부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 두 분 다 토론을 잘 하셨던 분으로  
과감하게 기존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을 힐책하셨고, 요셉은 거짓이나

틀린 것을 가르치는 성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 두 분에게는 훌륭한 사도들이 있는  
반면 강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명성과 현재의 영향력은 두 분 다  
그분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두 분 다 적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쓴 잔을 마셨습니다.

- 두 분 다 친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지만 의를 행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로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요셉도 몇 번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그분들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요셉은 39세에  
순교했습니다.

- 두 분 다 사도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 두 분 다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열렬한 기도와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변형의  
산과 겻세마네 동산 및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여러 다른 일로 하여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성역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성스러운  
숲 속에서 하신 기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생활은 크건 작건 간에  
그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 두 분의 탄생은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구세주는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선택된  
자” (모세서 4 : 2)였으며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절정의 시기에 오리라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자”였습니다. (모세서  
5 : 57)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구약의 요셉은 말일에 나타날 선택된  
예언자에 관하여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니파이서서 3 :  
15)라고 예언했는데, 그 고대 예언은  
요셉 스미스와 요셉 스미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요셉 스미스는 위에서 이미 말한 점들 및 그 외의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두 분이 근본적인 면에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세주께서는 지상의 어머니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셉 스미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의 일원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류의 구속주와 구세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대속으로써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니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여러 가지 역할과 이름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요셉 스미스나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여 독보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호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와 혹은 위대한 심판자라도 자주 불리우며, 때때로 우리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입법자, 혹은 중보자로서 칭하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언약의 사자, 구원의 반석, 모퉁이 돌, 인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를 건지는 자, 절고를 아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요셉 스미스와 같은 필멸의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며 모든 권능을 지니고 계시므로 전능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을 당시 주님께 대하여 "나는 그의 신들에게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할 말은 조금도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적인 상태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독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기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로 인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같이 필멸의 요소를 지니셨으나, 아버지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를 교회를 회복한 예언자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분이 지녔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또한 구세주를 흠모하며 예배합니다. 그래 우리는 매주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을 하면서 이같은 마음을 주님께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시는 지위 및 구원의 계획에서 말고 계신 지고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높으신 보좌에서 기꺼이 내려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그는 그의 백성을 잃어 댄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합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합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며...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함이니..."(앨마서 7: 11~13)라고 한 경전의 말씀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는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알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구세주는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분이며 우리 모두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지니셨음을 간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말씀 드린 요셉 스미스는 배도 후 수 세기가 지난 뒤 천사의 성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 회복하였으며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받은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았던 예언의 열쇠와 권능은 끊이지 않고 몇 세대를 걸쳐 전해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를 지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관장하시는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지니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의로운 결정을 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정한 기쁨은 의로운 성품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은 시종 일관되는 의로운 결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교회의 청남 청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개인적인 목표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전 생애를 결정짓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로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험 기간 동안 가장 훌륭하고도 오래 지속될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저의 친아들 친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성신을 통해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있으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결심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언은 실천해보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에게 근사한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계가 주는 사랑의 의미 때문에 자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소중하게 닦고 태엽을 감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저는 태엽감는 일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결국 그 시계는 제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자동 시계를 사용하는데, 항상 변함없이 시간이 잘 맞으며 또한 태엽을 감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태엽을 감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시계와 같이 그냥 두어도 됩니다.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처음부터 주님께 진실되고 신앙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신 자동시계 같은 청소년들을 치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을 광신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중이 하는 것을 왜 여러분이 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없이 내리는 단호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감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정직하게 평가하여 옳지 못한 사람이나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토할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원리는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회를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표준에 맞추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성장하는 기간 동안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발전은 경험에 경험이 축적되어 이해와 능력이 계속해서 쌓여 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의의 길을 걷는 청소년들은 용기와 이해력과 자부심이 자라고 숨겨진 재능과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원리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나에 의해 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의로운 성품에서 오는 것이며, 이것은 시종 일관되는 의로운 결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들을 가족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배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을 솔직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떠한 유혹과 압력을 받을지라도 주님께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는 도적으로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혼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신체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성적인 교제도 죄가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세상의 표준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이며, 또한 중한 죄로 여겨지는 이 계명을 위반할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스러운 계명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중요한 순간에, 유혹이 닥칠 경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확실한 표준을 세우고, 유혹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이 세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 합리화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을 왜곡시켜서 해볼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며, 존경하고 풍요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릇된 사랑, 즉 욕정을 부추켜서 개인의 욕정을 달래기 위한 굶주림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고통과 파멸에 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유창한 발립으로 상대를 기만하는 이면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순결하고 의롭게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결심이 주위의 압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과 비슷한 결정을 내린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현명하여서 질서있고 자제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대체로 탈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며, 여러분을 좀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진실된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다치는 대부분의 실망과 비극은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절대 필요한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아진 데서 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게 될 때,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인하여 좀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주어진 제약이 실제로는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남용하는 일에 성급히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경우, 범죄의 사슬로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의 표준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의로운 삶을 설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에 마음과 가슴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의 신앙으로 드리는 절박한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큰 발전이 이룩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 올 때에,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조용한 영혼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속삭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란과 큰 시련이 닥치는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을 받게 되고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주님이 주신 다음 약속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즉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능력을 받아" (교리와 성약 43 : 16)

저는 우리가 살펴본 원리들이 진실한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제 삶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들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해 강한 힘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 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8 : 2-5 참조)

우리가 살펴본 원리들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고 및 행위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원리들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멸의 길에서 방황하기 시작할 것은 아닙니까?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원리들이 올바른 것인가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때이며 기본적인 우선 순위를 확립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의롭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청녀 여러분은 경건과 더불어 영감을 주는 청녀의 참뜻을 상고하면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청남은 신권과 관련해서 경건을 상고함으로써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남 청녀 여러분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라는 소책자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게 되도록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거대한 독수리처럼, 높은 영광을 향하여 비상할 수가 있으며,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진리의 불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경험과 영원한 교리를 조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뜻임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시킬 때, 마음속에 시현이 보여질 것이며 진리를 따르고자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지닌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합당한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잠재 능력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원리에 순종하고 도덕적인 양심(교리와 성약 101:78 참조)을 일관성 있고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이 쓰시게 될 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간증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의로움을 통하여 이 일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앨레인 엘 잭 지매(중앙), 제1보좌인 지애코 앤 오까자끼 지매(좌)와 제2보좌인 앨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지매.

실현될 것입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심지어는 심한 압력에 부딪칠 때이라도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인식하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자석과도 같이 다른 사람들이 높은 표준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을 도와 부모님들이 힘을 주시며 신권 지도자들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갈 때에 여러분이 행하는 합당한 모범은 그 힘을 더해갈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비뚤어지고 망가진 성격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에 자신을 묶어 놓고 있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흐름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혼자서는 어디에서부터 시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손길을 주고 도와 주십시오.

결론으로 다시 저의 자동 손목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태양열에 의해 생성되는 전류로 작동되기 때문에 빛에 노출시켜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빛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빛을 계속해서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길에서 표류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은 빛 안에서 살 것이므로 그러한 도전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야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할수록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 결국은 그분들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생활상을 자세히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마음의 평화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철이사도 정원희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 근 몇 개월 동안 세계 어디를 가 보아도 평화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는 동안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와중에 휩싸였으며, 뉴스 매체들은 극심하고 고통스런 전쟁의 참상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전쟁은 극심한 불안을 야기시키며 가정을 파괴하고 실적을 유발시키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까지 앗아갑니다. 또한 다른 데에 더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자원들이 낭비됩니다. 걸프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으며 적은 사상자를 낸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과 전쟁으로 애통하게 죽은 사람들, 특히 무고히 희생된 어린이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할” (이사야 2:4) 영원히 지속될 평화의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는 평화가 투쟁과 다툼과 갈등

전쟁 등이 없는 상태, 또는 내적인 고요함 및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혜사 또는 개인이 느끼는 안정과 화평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사전에는 평화를 평정, 고요, 혹은 무질서한 사고 방식이나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대인 관계에서의 조화라고 규정합니다. (웹스터의 신간 대학 사전 제9판, 865쪽)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기아와 고통과 고뇌, 고독, 질병 및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르는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 죄없는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슬픔과 격정에 물려 사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고 자존심마저 잃게 되는 사람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저버리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여” (교리와 성약 1:16) 떠나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평화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을 멀리할 수 있으며, 주님이 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기대하고 요구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또한 매사에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선 생각과 행동의 자유 및 행복해질 자유가 있습니다. 장기간 간혀 있는 전쟁 포로까지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획자들이 아무리 혹심하게 전쟁 포로들의 자유를 억압해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 주신 가장 값진 축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구세주께서는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교리와 성약 59: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고요하고 화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화를 얻는 것은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원리대로 생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의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이라” (마태복음 11:28~30)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재우실 때 하셨던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에 부딪혔을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중 주님은 사도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라고 가르치셨으며, 가르침과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평화를 찾는 방법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로마서 8:6)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대가족을 꾸려 나가는 충실한 어머니는 구세주에게 나아오라는 말씀을 믿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는 주님에게 짐을 맡기고 주님이 결정하시게 하였습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주님의 평강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피상적인 것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가슴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과 욕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양심에 그릇되다고 생각되는 유혹을 참지 못하며, 동료와의 거래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범법자에게는 오지 않으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33쪽)

지상 생활은 시험의 기간으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강한 두 세력이 반대 방향에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로운 자들이 끄는 힘이며 다른 한쪽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내는 힘입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인류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전자를 따름으로써 얻는 보상은 성령의 열매인 평강이며 후자를 따름으로써 오는 대가는 평강의 반대인 육신의 고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평화는 사탄을 이긴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앤사인, 1983년 10월 4~5쪽)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사서 7:15~18 참조)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영을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심의 지시를 따를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양심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육신의 유혹이



본부 청녀 회장인 아데스 지 램 자매(중앙), 제1보좌인 제인 비 앨런(좌)와 제2보좌인 제니트 시 해일즈 자매.

우리를 지배하게 둔다면 결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57:20~21)고 하신 상태에 던져질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양심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손상시키는 일을 한다면 성신을 민감하게 느낄 수 없게 되므로 성신의 은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신의 느낌과 영향 밖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17:45; 에베소서 4:19 참조)

우리가 전쟁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평화는 항상 현실보다 이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대부분이 투쟁과 불화와 갈등이 평화를 뒤덮어 왔습니다. 평화가 가득 찬 시기에는 순종심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가슴에서부터 평화가 싹틔기 시작하여 사회 전체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전에는 최소한 두 번의 절대적으로 평화로던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번째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앤사인, 1983년, 10월 5쪽, 매리온 지 롬니 참조)

첫번째 평화의 시기는 대홍수가 일기 전에 살았던 예복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의롭게 살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을 건설했으며 때가 지나매 그 시온은 하늘로 들리워졌습니다. (모세서 7:16~21 참조)

두번째 평화의 시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실 때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금하고 성령의 열매를 취하였습니다. 물론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많은 백성들이 저희들에게로 와서 저희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느니라." (니파이사서 1:1)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15절,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2절),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16절),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한 덩어리가 되었" (17절)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 (2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 (16절)습니다.

니파이인들 간에 거의 200년 가까이 평화가 계속되었으나 그후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사악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두 세기가 지나기 전에 긴 평화의 시기를 누렸던 니파이 백성은 극심한 내란으로 인해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세번째 완전한 평화는 복년 동안에 올 것입니다. "사탄은 목여 인간의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45 : 55)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사탄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지상을 다스리시어 온 누리에 평화와 정의가 넘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평화가 한 도시에서든, 한 국가에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백성들 사이에서든, 어디에서 존재할지라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개개인의 가슴속에서 싹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삶을 통해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생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폭동의 소용돌이와, 사악한 동료들로 인한 고난과 허위 고소, 그리고 그의 삶을 상대로 짜놓은 교활한 함정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죽음을 당하기 며칠 전,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교리와 성약 135 : 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내적 평화가 그 큰 역경들과 순교까지도 감당해 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평화는 높은 이상보다는 더 고귀한 것으로, 노력에 의해 인간 삶의 일부가 되어 크고 작은 일을 접할 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일을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마음이 흥분하지 못해서 그 일을 끝마치고 정리해 놓을 때까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수행할 때, 마지막 시간까지 미루고 있는 것보다 적당한 시간에 일을 끝냄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공과와 말씀 준비, 또는 다른 임무를 행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결혼 성약에 조금이라도 충실치 못한 일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비록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속인수를 썼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교통 법규를 알고서 어겼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경찰관이 있는지 긴장해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용주에게 정직하지 않고, 받는 급료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일성도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탄절 메시지에서,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은 평화를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먼저 서로에게 형제애를

보여 주어야 하며,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합과 조화와 평화를 이룬 후에... 가르침과 모범으로써 이러한 미덕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리야호나, 장로 잡지, 1936년, 12월 22일, 315쪽)

죄로 인해 평강을 잃었다면, 회개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1 : 31~32)라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의 근본은 용서가 불안과 걱정과 좌절로 고통받는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폭동과 다툼의 세상에서 용서는 참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은사입니다." (용서가 낳은 기적, 363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췌지 않고 덕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장식" (교리와 성약 121 : 45)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져 오는 일만을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 및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행복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38년, 240~241쪽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교회를 회복한 예언자이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따라서 오늘밤 우리는 젊고 훌륭한 신권 소유자들에게 복음 선교사라는  
뱃지를 달기에 충분히 합당하도록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 18~20).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명하시는 위의  
말씀을 그의 복음서의 결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내용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침례받은 자들이  
교회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경륜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특히  
주님의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회의 젊은  
신권 소유자들을 볼 때마다 “미래의  
선교사이죠?”라는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긍정적인 대답으로 밝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위대한 경험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감동적인 봉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능력있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들이  
복음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독님 앞에 앉아 복음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감독이  
여러분과 친한 사이라면 감독님과  
접견하는 일이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해 감독님과  
접견을 하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감독님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집에서나,  
창고나 들에서, 또는 함께 차를 타고 있을  
때 등 저와 함께 있을 때면, 어느  
곳에서도 저와 접견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접견 약속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저와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감독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감독실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감독실이 깨끗하고 아버지의 책상에는  
서류 한장 없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온통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직  
경전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접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접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전을  
저에게로 내밀시면서 교리와 성약 59편  
6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토론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조금씩 죄를 지으며 친구들과 온갖  
재미있는 일을 다하여도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얼마 동안만 의롭게  
생활한다면 선교사로 봉사하기  
합당하다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일 순종하고 깨끗하며 건전한 생활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해주는 전신 갑주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미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는 일입니다.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우리는 교리와 성약 89편을  
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전하게  
가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토론하였습니다. 해로운 마약과 술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파괴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지지하는 것과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순종심에 관련된  
몇 개의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토론이  
끝날 때마다 저는 저의 생활이 위의  
원리와 부합되고 있는지 대답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교리와 성약 110편을  
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되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회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

그런 다음 우리는 구세주의 속죄로  
인해 갖게 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참여해야 할  
성스러운 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저의 선교사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셨으며, 제가 거기에  
서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서시더니 저와 다정하게 악수를  
하셨으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한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독실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았으며, 그것도 저의 감독님이신  
아버지와 저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독실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느 신권 지도자와의  
접견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감독님과 가졌던 그 접견을 통해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경전 속에 들어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과 그에 대한 간증이  
필요했으므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감독님과 한 접견으로 인해 복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준비 사항 이외에 재정적으로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 기금은  
가족의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젊은 신권 소유자가  
일찌기 어렸을 때 부터 이런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결심한다면 이런 재정  
부담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균등하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새로운 선교사 재정  
보조 프로그램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더욱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닌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이전  
거의 정확하게 선교 사업의 비용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저축 계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일찌기 적절하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선교사 비용을 본인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정직하게  
노력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점에서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기회를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시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최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음”이란 제목의  
감동적인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은 비디오  
테이프의 이용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독단과 지부장단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소년과 그의 가족들이 그  
테이프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특별 모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볼 때마다 목이 메이곤 합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는  
대관장단으로부터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장을 받는 미래의 여러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왔던 위대한 순간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 및  
친구들에게 이것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 중 하나에 참여하게 되는 부름장을 읽게 될 그 순간의 감동은 생애를 통해서 길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는 동안은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기간은 복음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 사업을 떠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곳 지상에 살도록 정하셨다는 진리를 가르칠 때 오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밤 우리는 젊고 훌륭한 신권 소유자들에게 복음 선교사라는 특별한 뱃지를 달기에 충분히 합당하도록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훌륭한 선교사들처럼 되십시오. 저는 그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솔직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만큼 우리가 주님께 베풀어 드린다면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주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여러분이 생애에 백 배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섬기라 영광 가득한 왕 그 이름을 증거하여야 온 세상에 말씀전파하고 예수 사랑 외치세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승리개가 부르며 면류관 향해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며"

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밤 이곳을 떠나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을 통해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신권을 존중함”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는 정원회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안목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 바퍼스 형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그의 어머니 마리는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매일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들 복이 신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만일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하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부분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어 거의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신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최근의 한 스테이크 신권 모임에서 한 젊은이가 지지를 받아 멜기세덱 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을 때, 그 형제가 보인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축하를 받아야 하죠?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나 아니라? 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의 아버지였다면, 그의 감독이었다면, 정원회 고문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좀더 성숙하게 된다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것들을 젊기 때문에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가 지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신권의 권세입니다...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명예나 축복을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8년, 219쪽)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의무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신권을 더욱 잘 존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권의 권세를 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운전 면허증을 받으므로써 우리가 책임감이 강한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권세로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 : 36)

신권의 권세는 점진적으로 오게 됩니다. 구세주조차도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육신을 훈련시키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교성 93 : 12~13) 성장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맺은 성약에 진심으로 충실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신권의 권세를 잃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는 민감하여 악한 영향력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베드로후서 1 : 4)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한 대중 음악회에서의 경험을 들려준 조지아주 터거 출신의 한 어린 제사, 릭 도우브 형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이들의 음주와 옷차림, 불경스러운, 무례함 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으며,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내 그곳을 떠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고 지내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신문을 사기 위해 잡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대체사 한 사람이 성인용 잡지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만 놀랐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의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더 밀러의 연극, *나의 아들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아들간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사업상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닌듯싶구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과 어른들에게, 도덕적 품위에 관한 표준은 오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화나 텔레비전 쇼, 음악, 또는 인쇄물은 어떠한 것이든 부모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인이라거나 교양인이라는 근거로 부도덕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이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말로 자신의 범법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완전히 이르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잘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설교집 2 : 129~30)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모사이아서 27 : 28) 회개하였던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서 나와 악을 버리며 저들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엘마서 5 : 57) 주님의 성스러운 그릇을 지닌 우리에게 그분은 “깨끗하라”고 명하셨습니다.(교성 38 : 42 참조)

주님은 신권 정원회를 세상에서 남자로 구성된 가장 순수한 봉사 조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와 신앙으로써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만큼 정원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며, 교회 회원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며 격려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신권의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원회에서는 형제애와 봉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신권 봉사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18살된 소년의 영감어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존은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과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만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 시절을 휠체어에서 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제사 정원회들이 보여 준 헌신적인 봉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 정원회들과 축구를 한 적도, 야영을 한 적도, 춤을 춘 적도, 그리고 또래의 아이들이 즐겨 하는 그 어떤 활동도 같이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정원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정원회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존이 보여 준 신앙과 교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존은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정원회에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존이 집사였을 때, 그는 성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존이 성찬기를 무릎 위에 놓고 전달할 동안 다른 한 소년이 존의 휠체어를 밀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보였지만, 곧 다른 사람들도 그가 신권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존이 제사에 선임되었을 때에도 몸이 약해서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원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존의 휠체어를 성찬대 옆에 놓기로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떡을 떼고 휠체어 옆에서 대신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으며 그 동안에 존은 성찬 축복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곧 정원회원들 간에 존경심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정원회 제일 보조인 그의 지도력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존은 보이 스카우트의 독수리장을 획득하고 싶은 그의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회에서는 돈을 건어 그가 행한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패를 만들어 성찬식에서 전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정원회에 대한 뛰어난 봉사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 준 훌륭한 모범을 기념하기 위해 이 패를 존에게 수여합니다.”

여러 해 동안 존이 속한 정원회원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친구인 존과 함께 나누었던 선택된 경험보다 더 큰 감동이나 가르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해롤드 홈 박사가 집사 정원회의 감독단 고문으로 봉사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병원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정원회원들을 간호사들에게 소개하자,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홈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들은 뛰어난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12살이 되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건잡을 수 없었던 엄청난 화재를 생각해 보시오. 바람이 강하게 불자 경찰은 그 지역을 통제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몇 가족이 남아 그들의 집을 구해 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내 삼을 든 정원회 형제들을 가득 채운 차 한 대가 어느 한 집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의 통제 구역을 통과했습니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막기 위해 땅에 끈을 파는 형제들의 수가 곧 39명에 달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경찰관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형제가 39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 왔습니다!"

한번은 매튜 카울리 장로가 한 장로 정원회장에게 어떻게 장로들이 한 정원회원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병원에 정원회원 하나가 입원해 있습니다. 원기 왕성한 젊은이인데 농장을 사서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은 농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로 정원회장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그



회중 찬송을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총관리 역원들.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은 빨리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부름을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의 장로 정원회장인 키크 바네트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그는 병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말일성도가 있는지 물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뇌출혈로 인해 첫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바네트 회장이 두 시간 동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그분의 성스러운 신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로서, 개인으로서 안목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롭게 살며 사랑이 가득한 정원회 봉사를 통해 신권의 치유 능력을 넓혀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교성 81 : 5)합시다.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물몬의 애정어린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모로나이사 9 : 25)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분명하고 사랑스런 권고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주님의 신권을 존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변화

야곱 디아가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영** 제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는 문자 그대로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인데, 제가 칠십인 정원회에 속한 지 15년 만에 처음 갖는 특권이며,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합당한 많은 청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개인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독신들이 많이 있으며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랑스런 아내인 내조자가 바로 위대한 힘의 근원임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모든 위대한 남성 뒤에는 위대한 여성이 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 격언을 다음과 같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위대한 남성 뒤에는 놀란 장모님이 있다.”

왜냐하면 장모님은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내 딸과 결혼한 사람인가? 그가 지금 감독으로 있던 말이지? 아냐, 믿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장모님. 그 청년은 성숙해졌으며, 보다 큰 책임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기에 저는 오늘 저녁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동유럽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보아 왔으며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최근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극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며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편치 못한 느낌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준비를 통해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변화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주의를 기울였으며, 주님 보시기에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집에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행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가족 기도와 경전 연구를 통해 가족을 인도하고 지도하며,

둘째, 아들이 신권을 받고, 다른 식구들이 신권을 존중하도록 준비시키며, 셋째, 내 가족이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며,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도록 격려하며,

넷째,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강화시키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개인적인 재능과 성스러운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도와 주며,

다섯째, 가족들이 굳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신권의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영원한 결과를 낳는 기적적인 변화에 대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4)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주님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려는 소망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느낌으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더 합당하게, 좀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곧 발전이다.”라는 옛 격언에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변화이며, 개심도 변화이며, 완전함도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구세주께서 원하는 것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그 모든 영광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의 전세의 생활과 지구로의 여행, 그리고 **물몬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생 이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가 물몬경을 읽어야 할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물몬경을 읽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책이 마치 가끔 인용할 때나 쓰는 참고 서적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읽고는 있으나 세밀히 보거나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가끔 훑어보는 책이 아닌 열심히 연구하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순간을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6년, 28쪽)

그러므로 엘마서 34장 30절에 기록된 엘마 이세의 선교 동반자였던 앰올레크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성스러운 경전이 이 일들을 증거함을 보아 이토록 많은 증거를 얻었으며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속히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는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기를 바라노니, 보라 지금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 너희가 회개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즉시 너희에게 내려지리라.

“보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른 대로 너희가 많은 증거를 가졌음에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다가 오느니라.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30~34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나, 그리고 교회 부름에서나 앰올레크의 이러한 권고를 늘 기억하며,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엘마의 절문 즉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엘마서 5:14)하고 누가 물었을 때, 큰 소리로 “예, 그러한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본부 초동협회 회장인 미셸린 피 그레슬리 자매(중앙), 제1보좌인 베티 조 켈슨 자매(좌)와 제2보좌인 루스 비 라이트 자매.

함께 보다 잘 행하며, 교회의 신권의 기초를 강화하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 주게 될 다음 세기에 우리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으며, 참된 개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세상을 가득 채우”(교성 65:2)듯이 주님의 왕국이 세상 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에스겔 11:19)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1987년 4월에 열린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은 시현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물론 개척자들은 유타 사막을 개간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진리와 의로움이 홍수처럼 지구를 뒤덮을 정도까지 교회가 숫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다가올 궁극적인 의미의 물론 개척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역사상 곧 우리에게 다가올 특별한 시대, 즉 이 복음이 제3세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는 시대에 앞선 짧은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들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굳건히 세우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를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진실하며, 물론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상에서 인간의 구원 및 승영에 관련된 가장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오늘날 지상에 계신 주님의 예언자임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간결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그리스도를 따르는 젊은이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나는 의로운 소망을 품어 그것을 키우며 지켜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가타와나’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열쇠이며 바로 행복에  
이르는 열쇠인 것입니다.”*



**제**가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임무가 놀라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미래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모든 장애물에 대해 매일 더욱 잘 알게 됨에 따라 이 부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물문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힐라멘서 3:29)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이들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성 세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저의 공식적인 직함이 본부 청남 회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 젊은이들을 형제애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실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젊은이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젊은이들”로

지칭하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리기는 하나 남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끈고 좁은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불행에서 우리를 도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갖는 특성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성은 제가 지난 청소년 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본 단어 하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장은 “아가타와나(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인디언 말 같다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소년에게 그 말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게 “지금 농담하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가타와나란 말이죠”라고 말을 꺼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직접 그 뜻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청소년 대회를 누가 계획했던지 간에 그들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타와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복음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신화가 지닌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님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 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 하느니라.”(아브라함서 3:17)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원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마음에 두신다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을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교성 8:2-3) 이를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행복과 평화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계시의 영이 “마음과 느낌으로 와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도록 권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라,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1956년 4월 10일, 8쪽) 이 영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교성 11:12)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을 주는 생각이나 찬송가, 혹은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며, 선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보에 매우 중요하며 영적이면서도 좋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느낌에 따라 행동을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앞서 말한 원리의 두번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실 때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도 간단하게 행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낌은 우리에게 행동을 하도록 주어졌으니 느낌만으로 끝날 때는 아무 소용도 없으리”(다니엘 케이트 샌포드, 국제 명상록 사전, 군 피 브래들리, 헤오 에프 다니엘스, 토마스 시 군스 공동 편집, 시카고: 제이 지 페트루슨 출판사, 1969년, 291쪽) 이 말은 우리가 일단 어떤 느낌을 갖게 되면 그런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의에 주리고 목마”(마태복음 5:6)라며 올바른 일을 향하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차 대회, 1976년 4월) 반대로 의로운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지는 않고 많은 것을 느끼기만 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느끼는 것조차 적어질 것이다.”



(스크루테이프 서간,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82년, 61쪽).

“아가타와나”를 통해 우리는 자유의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소망을 지닌 젊은이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들으면서 기다리기 보다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 (교성 58 : 27)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행함을 받기 보다는 먼저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제합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통제는 놀라운 느낌입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인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아가타와나”에서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엘마서 32 : 427)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소망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마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 (엘마서 29 : 4)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소망은 극적으로, 빠르게 혹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에스티 부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늙는 것이 싫어요, 그때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차 대회, 1974년 10월) 현재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미래에는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의롭게 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봉사보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제쳐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현명한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하는 선택은 우리의 영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당한 예배는 “아가타와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찬식 동안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임 중에 허리를 굽히고 턱을 바치고 있습니까?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멍한 상태로 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모임이 종전 나쁘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말씀 경청 태도를 들려준 한 훌륭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후덥지근한 날에 그 형제는 다섯번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층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고개는 뒤로 젖혀진 채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자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일 태버나클의 지붕에 있었다면 환기통을 통해 침을 잔뜩 바른 종이 딱지를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입으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훌륭한 것입니까?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어떤 두 사람이 맥케이 대관장의 말씀 동안에 그들이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영적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는데, 도대체 나는 뭘하고 있었지? 천장에서 침바른 종이 딱지나 떨어뜨릴 생각이나 하다니 말이야!

김블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연단에서 행해지는 말씀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임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실패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안식일-기쁨의 날, 성도의 벗, 1978년 7월호, 5쪽)

한 젊은이가 자신이 어떻게 처음으로 예배에서 영을 경험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 시절 동안에 그다지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면 대체로 친구들과 함께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는 경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늦게 왔고 친구들 옆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앉게 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눈을 감았으며, 찬송가를 불렀고, 성찬 축복 기도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사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첫 연사의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은 당황해 하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말씀에 감동된 듯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히는 몰랐지만 그 경험으로 그의 생활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영적인 준비를 시작한 때는 바로 그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느꼈으며 다행히도 행동으로 옮겨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소망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도덕한 행동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엘마서 38 : 12 참조)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녀들을 존중하겠다는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청녀들을 예의바르게 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순결은 큰 힘을 발휘함,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참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 나와 있는 표준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것들을 소중히 하고, 그 가치에 대해 어떤 것을 느끼며, 그것들을 잘 지킬 때, 그 교회 표준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표준에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며 선하고, 진실되며, 아름다운 것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인생의 도처에 있는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초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놓는다면 악마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히라만서 5:12 참조)

여러분은 선을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무도회가 끝난 뒤, 테이트를 위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한 청년에 관해 들었습니다. 한 쌍의 젊은이들이 가던 도중에 멈추더니 보고 싶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당황하여 부모님에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집에서 퇴폐적인 비디오 테이프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꺼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대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구제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단순한 사고였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선하게 행동하고 싶었던 한 청년과 일단의 젊은이들이 조그마한 악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하나의 상습적인 형태로 발전될 때, 그러한 행동은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에 퍼져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의로운 소망을 품어 그것을 키우며 지켜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야가타와나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열쇠이며, 신앙을 발전시키고 고결하게 표준을 지킬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의 의무를 수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때에 여기 모인 젊은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왕같은 제사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이웃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훈련시키며 영감을 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감에 찬 청중이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을 빌린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없이 근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밤에 모인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 봅니다.

제가 약 아홉 살 경에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떤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장차 자라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그 양식들을 방주 금속 상자에 넣어 시청과 군청 앞 잔디밭에 서 있는 깃대 밑에 묻어, 세월이 지난 후 상자를 열어 그 내용물들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손에 들고 앉아서 속으로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카우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 제가 적은 내용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은행가나 법률가로 바꾸도록 해!”라고 하시며 저를 꾸짖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했으며, 카우보이가 되고자 했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때 정한 꿈이 가장 훌륭하게 성취된 사람 중의 한 분은 전미 농구 협회에 속한 달라스 베이버릭스 팀에서 활약했던 스티브 알포드였습니다. 당시 8학년이었던 스티브는 담임 선생님이 그 양식을 작성해 주어야 했는데 NBA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는 써 줄 수가 없어”라고 말하자, 스티브 알포드는 “그럼 빈칸으로 두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NBA 농구 선수이니까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분이셨던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하신 영적인 말씀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 있었던 한 말일성도 청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요란스러운 파티가 열리고 있는 한 장교 클럽에 갔다가 파티를 조금도 즐겨워하지 않는 듯이 한쪽 구석에서 있는 젊은 영국군 장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종류의 파티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군요.”라고 말하자 이 젊은 영국군 장교는 자세를 똑바로 펴서 조금 전보다 몇 센치는 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종류의

파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국 왕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일성도 청년은 자리를 뜨면서, “또 한가지 이유는, 제가 하나님 왕국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라고 혼자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거룩한 것에 충실하십시오,” 1973년 *올해의 말씀*에서,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73년 100쪽)

아마도 그 청년은 사도 베드로가 하신 다음 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 :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거룩한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구세주께서 대속 회생을 치르시던 주에 하신 다음 말씀을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리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 : 34~40)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금식의 율법을 지키시고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시는 신앙에 찬사를 보내 드리며,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금식 헌금을



1990년 10월,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새로 부름받은 세 분의 총관리 역원. 4월 연차 대회서 지지 받았음(좌로부터): 얼 시 텅기 장로, 폴린 지 크레이브 장로,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장로 세 분은 칠십인 정원회의 로렌 시 던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거두어 들이시는 집사와 교사 여러분에게도 칭찬을 드립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감독은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복지 원리를 적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내시는 금식 헌금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오늘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헌금 외에도 특별 금식 헌금과 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며,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985년에 이들간 특별 금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구제 의연금에 기부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여러분이 내신 금액이 총 13,145,527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모아진 기여금으로 교회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8,662,765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미국, 남미, 아시아 유럽 및 중동 국가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11,460,780 달러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1,684,767 달러입니다.

여러분의 자비를 통하여 혜택을 받은 계획 및 사람들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산 에스테반시 근교에 위치한 과테말라 동부의 저지대의 황무지에서 교회나 에스라 태프트 밴슨 농업 및 식량 연구회가 공동으로 가난한 시골 농가들이 농작물 생산량을 증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량된 토지 관리법과 거름 주기 및 관개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서 소규모 농가들이 풍성한 수확을 하여 가족이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을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160 가족이 도움과 혜택을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가 400 가족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이웃을 통해 계속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의 굴레 속에서 풀려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저축해 두신 영적인 선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더욱 더 잘 갖출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 : 36)라고

하신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금세기 말까지는 아프리카의 모든 어린이들이 혼한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 접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로터리 클럽의 폴리오 플러스 노력 봉사대와 힘을 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회는 30만명의 어린이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충분한 소아마비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신을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때까지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 시골의 진료소에 가스 냉장고 및 전기 냉장고를 비치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과 일반 자선 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접 유타주 전 지역과 텍사스주 국경 지역 및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애팔래치아 부락에 있는 고아원과 식량 배급소에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통조림 공장에서 음식을 가공하고 포장하여 각지에 있는 창고로 보내지며, 그곳에 있는 교회 복지 물품 수령인과 자원 봉사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회원 및 비회원들을 도와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태복음 25 : 35)라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케냐산 서쪽 경사지 저 멀리에 있는 산기슭을 따라 형성된 거대한 리프트 계곡 가장자리에는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교회는 일반 자선 단체인 테크노서브와 협력하여 40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수관을 설치하여 15개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여 1,100가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같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간단한 축복을 통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태복음 25 : 35)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여러분이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셔서 그 은혜로 이제 걸어 다니게 된 어린이들과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은 사람들 및 이제 자녀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부모 등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교회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2천년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아서 어느 여인과 함께 생명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꿈이 실현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 태버내를 가까이에서 살고 계시는 인정 많은 치과 의사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집없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들 치과 의사, 위생사 및 기타 전문인들이 자원해서 시간과 기술을 바치셨으며, 교회는 필요한 치과 의약품을 공급하여 이분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집없는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물하고, 영을 고양시키며,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 : 35)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그같은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화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기형이 된 입천정과 입술을 바로 잡으며 또한 골절되거나 불에 데인 상처를 치료하도록 돕고 있는 마부헤이 테저렛 재단에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때는 남을 피하며 생활하던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힘찬 발걸음과 즐거운 목소리는 마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마태복음 25 : 36)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테저렛 산업에 후하게 제공하는 의복 역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입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제공받은 옷을 분류하여 루마니아, 페루, 짐바부웨 및 시에라리온 등 먼 지역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북미의 여러 도시로도 보내져서 난민촌에 살고 있는 망명자와 고아들을 따스하고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기증한 아름다운 모양의 옷들이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과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의 훌륭한 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마태복음 25 : 35~36)라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미국내에 있는 여러 도시에도 교회의 인도적인 노력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 :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 소중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에 관하여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사이아서 2 : 17)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이웃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훈련시키며 영감을 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교리와 성약 18 : 10)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과 심지어는 목말라 하는 사람까지도 잘 찾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의 물”들은 자신의 삶과 봉사를 통하여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그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되신 제임스 콜리어 형제님의 생활 속에서 참다운 사랑과 영감어린 가르침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콜리어 형제님은 많은 노력을 들여 유타주 바운티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을 재활동화 시키셨습니다. 어느날 저는 콜리어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임에 초대되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장로에 선임되어 아내와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서 그들이 것처럼 갈망해 오던 영원한 성약을 맺고 축복을 받고 돌아온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에서 저는 집이 그가 가르치고 구제한 사람들에게 대해 갖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짐 콜리어는 당시 중한 병에 걸려 있어 이 마지막 감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고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함박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콜리어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농담을 하신 후에, 목소리를 낮추어 “저는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제 사랑하는 친구인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병원으로 돌아갔으며, 몇주일 후에 콜리어 형제님의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과 어른이 되어서 겪은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사였을 때, 야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수용 글러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선수인 “벨모트”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공놀이를 자주 하였는데, 골목이 좁기는 했지만 중견수 쪽으로 똑바로 치기만 하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을 우측을 향해 치는 날에는 문을 때리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에는 한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놀이를 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가 공이 자기 때문 앞으로 굴러 오기만 하면 문을 열고 영국산 개를 시켜 쾅쾅하게 공을 물어 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시나스 여사는 문을 닫고 이전에도 여러번 그랬듯이 공을 압수한 채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시나스 부인은 우리의 보복의 여신이며, 삶의 독소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 시나스 부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아이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때가 되면 그 집 창문은 다른 어느 집보다 비누칠을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시나스 부인과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시나스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은 한쪽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 걷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며, 늘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적인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영감에 찬 해토 작용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관계가 풀리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앞 마당 잔디에다 당시의 스타일인 호스 주둥이를 손으로 잡고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가, 시나스 부인 집의 잔디가 말라서 누렇게 죽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몇 분을 더 수고해서 제 호스로 부인의 잔디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그 일을 했으며, 가을에는 우리 잔디를 물로 청소할 때 시나스 부인의 잔디도 함께 청소를 해서 길가에 잔디 잎을 모아 놓아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 해 여름 내내 저는 시나스 부인을 보지 못했으며, 골목에서 하던 야구 놀이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공이 다 떨어졌고 더이상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저녁에 시나스 부인의 집 현관 문이 열리더니 부인이 저에게 낮은 담장을 뛰어 넘어 현관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갔더니, 시나스 부인은 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안락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야구공과 소프트볼이 가득 들어 있는 큰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몰수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견한 보물은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나스 부인이 얼굴에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토미, 이 야구공들을 가져가거라.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서 고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 때보다는 더 훌륭한 소년이 되어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적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였습니다. 황금불이 다시 한 번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가장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터론토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해 임지를 향해 출발할 때, 누군가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참가 시키기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다면, 제가 오랫동안 알아 왔던 셸리라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의 상냥한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했으나 허사였으며, 셸리가 애지중지하는 딸과 더없이 소중해하는 아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요지부동인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단지 셸리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와드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셸리는 늘 밖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셸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암으로 잃은 때문이 아니라면, 그가 가끔 오전이나 오후에 찾아가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학교 앞 건널목 안내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셸리는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 와드에서 지명한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들이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3년 후 저는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으며, 그 후로 제친구 셸리와 대화를 나눈 것은 제가 12사도로 부름받은 뒤의 일입니다. 어느날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저에게 그의 가족이 성전에서 영원을 위해 인봉을 받도록 의식을 집행해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셸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는 큰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셸리가 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지금은 멜기세렉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셀리와 그의 아내 유지니아 및 딸 유타나 그리고 아들 로버트 대리인을 솔트레이크 성전내의 아름다운 인봉실로 맞아들이면서 저는 참으로 특별한 축복을 느꼈습니다. 영원을 위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3년 후에 저는 셀리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의심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앙인으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위를 향해 전진하여, 이생에 작별을 고하고 낙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셀리는 사랑하는 아내 유지니아와 아들 로버트와 함께 하면서 유타나를 환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리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그 겸손한 건널목 안내인과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들과 인내심 많은 그의 아내와 딸 및 셀리와 그의 가족에게 영원한 축복이 펼쳐지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값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주 구세주께서는 “와서 나를 좇으라” (마태복음 18 : 22) 주님은 그분의 초대에 응하여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곧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저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 : 19~21)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 : 38)라고 주님께 드린 찬사를 우리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교회의 형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말일성도들의 신앙과 충실함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할 때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정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밤 이곳에 참석하신 총관리 직원들과 두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 대해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바친 형제님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전세계에서 오신 수백 수천의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드립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은 신권 정원회의 회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느낌과 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속하고 그 중요한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1985년 10월에 열린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저는 교회의 형편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을 제시하고 대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얼마 전 한 지역 대회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테 오늘 저녁에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려야 하는 보고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격려를 드리는 것이므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고가 모든 면에서 정확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에게도 업무 보고를 드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제가 아는 데까지 충실하고 솔직하게 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세상 어디를 가나 교회 회원들로부터 받는 질문인 “벤슨 대관장님은 좀 어떠십니까?”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벤슨 대관장님은 연세에 비해 상당히 건강하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올해로 91세가 되시며,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르는 중압감이 항상 따르는 일로 가득 찬 생애를 정령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고령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벤슨 대관장님은 매일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때때로 저희들이 갖는 모임에도 참석하십니다. 대관장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대관장님을 본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벤슨 대관장님이 모임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렸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이 임명하신 예언자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실 거룩한 목적으로 그 직책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여러분, 벤슨 부대관장님의 지식이 없이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 올 일을 결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몬슨 부대관장님과 같이 그분의 보좌를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업을 추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부름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만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두번째 질문은 "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입니다.

물론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두드러질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1년 월드 북 이어북에는 미국내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보다 더 큰 종교 단체는 여섯 개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일성도들의 신앙과 충실함이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할 때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정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찬식 참석율이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심지어는 80퍼센트에 달하는 와드 및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가운데 이러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조직은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반세기 이상 스테이크 또는 지역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의 회원들이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저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 중의 하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로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주님이 성공하신 것이며, 우리는 일의 성취로 얻은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선교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입니다.

선교 사업은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우리가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왓슨 형제님이 작년말까지 집계한 통계 보고를 한것같이 전세계에서 현재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는 43,6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총 256개의 선교부가 있는데 이 가운데 28개가 1990년에 새로 세워진 선교부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12개의 선교부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선교사 훈련원의 시설을 크게 증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신축할수 있습니까?"입니다.

1990년에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의 수는 약 330,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회원이 3,000명에 달하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110개나 새로 세우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1990년 한 해에 개종한 회원수가 애리조나주나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회원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는 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520개의 새로운 예배당이 헌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30개의 예배당이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상의 여러 국가에서 교회가 놀라운 정도로 두드러지게 확장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현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같은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시설이 건축될 수 있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성전 사업 및 가족 역사 사업은 어떻습니까?"입니다.

전례에 없는 속도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승영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고 불사 불멸과 영생으로 인도되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어깨에 짊어지워 주신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성전에서 의식을 수행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1990년에는 터론토 성전이 완성되어 헌납되었으며, 샌디에이고 성전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44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엘버타, 스위스 및 런던 성전은 오랜 사용으로 낡은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당분간 의식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버타 성전은 아마도 6월에 재헌납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프리리다주의 올란도, 유타주의 바운티풀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이미 발표를 했으며, 최근에는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성전이 건립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성전들의 설계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또 다른 성전 건립을 발표하겠으나, 오늘밤에는 그 장소를 밝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은 "교회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약 403,000명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밖에 약 46,500명의 학생들이 교회 대학교 및 학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고 많은 경비를 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학문을 크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취와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을 기르는 면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에 주목할 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질문은 "복지 프로그램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입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여러분에게 복지 프로그램의 일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원리는 복음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라는 내용의 황금률은 복지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감독 및 그 회원과 가장 가까이 사는 교회 역원, 그리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빨리 알아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도움을 주는 기금은 우리가 금식일과 금식 헌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매년 필요로 하는 수백만 달러의 돈이 회원들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두 끼 금식을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돈이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감독님께 드려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금식일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금식 헌금을 바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집없는 사람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힘들어 하지 않고 절제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관심사와 이타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물론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된 것임을 의심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덟째 질문은 "지역 단위 조직의 예산 보조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에서 건물 신축 및 유지비와 활동 프로그램 경비를 포함한 스테이크 및 와드의 모든 운영 기금을 교회의 십일조 기금으로 충당하는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는 십일조가 매우 많이 지출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 결과,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먼 곳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어느 스테이크 부장이 총관리 역원에게 보내 온 편지를 일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0년 초에 새로운 예산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저희 스테이크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심지어는 비판적인

사람도 약간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회원들에게 재정 자원과 연료 및 시간을 절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회원들을 가르치고 우정을 증진하는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 및 고등 평의원들이 함께 모여 1990년을 결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예산 프로그램의 예언적인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통계를 검토해 보니 우리에게 할당된 예산의 약 70%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스테이크는 다음 기금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1. 1990년도 예산 잉여금 약 2만 달러.

"2.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을 위한 13,000 달러."

그러고 나서 이 형제님은 다른 기금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말 후에 교회로 잉여 기금을 돌려 보낸 많은 스테이크 부장들이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 프로그램이 전세계적으로 실시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홉째 질문인 "교회 예산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라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교회 재정 프로그램은 교리와 성약 119편과 120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간략한 계시에는 금식 헌금과 선교사 기금을 제외한 주님의 재정 율법 및 교회 재정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9편에는 모든 회원들은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라고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십일조를 통해 들어오는 돈을 지출하는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원과

나의 고등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써 십일조를 처리할 시기가 이르렀느니라. 이는 저들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 해야 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교리와 성약 120편)

대관장단, 십이사도 및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이 열여덟 명이 십일조 사용 심의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평의회는 집행 위원회로 간주될 수 있는 기구로 예산 위원회 및 지출 위원회가 있으며, 교회의 모든 예산 지출은 이들 기구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우리는 두 가지 고정된 원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수입의 범위내에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수입보다 지출이 많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수입을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회원들에게 혹시 닥쳐 올지도 모를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식량과 돈을 비축해 두도록 하는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의 암울한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시다시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핀 암소와 파리한 암소 및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에 관한 바로의 꿈이야기를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참조)

저는 신권을 소유하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부채를 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전, 집회소, 세미나리 또는 신학 연구원 시설, 복지 시설, 건물 또는 자산 중 그 어느 것도 저당잡힌 것이 없습니다.

열번째 질문은 "다른 일부 조직처럼 교회도 많은 부를 축적하는 조직입니까?"입니다.

교회는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건물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건물에는 와드



및 스테이크 모임을 위한 집회소, 학교 및 신학 연구원 중등부 건물, 대학, 그리고 신학 연구원 건물 등이 있으며, 복지 계획을 위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 밖에 선교사 숙소, 선교사 훈련원, 성전 및 가족 역사 기록 보관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 장소 및 시설 등 모두 선교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이 돈을 소비하는 자산이며 돈을 생산하는 자산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축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경비를 요하며, 재정적인 부를 생산해 내는 대신 말일성도들을 강화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 소유의 공장 등도 있지만, 이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교회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이며, 주님의 재정 법칙은 십일조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법칙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몸소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주어진 원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의 진정한 부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 한번째 질문은 “왜 교회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본래 개척자들이 서부에 정착했을 때에 시작한 것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이며, 교회가 성장하면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그 숫자가 계속 적어져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많은 액수가 못되며, 이 돈으로는 극히 짧은 기간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러한 상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있는 지역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 두번째 질문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가 상당히 많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입니다.

교회에서 농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복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장은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또한 법적으로도 면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농장도 있습니다. 교회의 비축에 관해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농장을 약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유능한 관리자들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비옥한 농장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회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될 경우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산은 모두 그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적용되는 정부의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업용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젊은 회원들 가운데 가장 흔히 제기되는 “교회의 장래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젊어지고 있는 책임은 거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막중합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 : 14)

이 밖에도 교회는 이 지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대의 영원한 복지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어떤 조직도 이처럼 큰 과업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역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밤 이곳에 모이신 청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크게 발전할 훌륭한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기에 참으로 놀라우며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아름다운 성장 과정 및 활력을 복돋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이 사업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리하고 남을 잘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꾀방하며 파괴시키려고 노력할지라도 아무도 그같은 일에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밤 이곳에 모이신 청남 여러분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며 지식을 쌓고 이해력을 키워서 미래에 여러분이 떠날게 될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더 많이 건설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강한 신앙으로 충실하게 걷고 계신 위대하고 훌륭한 여성들인 여러분의 아내와 어머니와 차매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 겸손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참되고 충실해지기 위해 주님께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미소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겸손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말씀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 대장관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애스 몬슨 부대관장

## 십이도 정위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튼



로웰 펄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라센 핑 벵트슨



스튜어트 에이 스노우



머릴 제이 배트먼



조셉 비 워스틴



리처드 지 스코트

## 최신인 회장단



디터 피어 우치어



마크 에드워드 피터슨



로버트 리언 테일러



제프리 리언 홀랜드



리처드 드리스콜



마크 디 퍼너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최선의 세계 경영회



인혜 아노헤이



강리명 알 노라드포드



데이비드 리



몬트 제이글러



에프 앤드조 부커



제임스 게이 스투어트



칼리 카스퍼



로버트 에이 윌리엄스



로버트 피 조지스



로버트 기 ...



로버트 ...



로버트 ...



로버트 ...



로버트 에이 윌리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롭지 않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 주신 권세와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그와 같은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식일은 감사와 고마움의 날이며 기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으로써 하나님의 지녀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고 마음이 부풀며, 위대한 국가인 미국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에 찬 느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송 매체와 기사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어리둥절해 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그 애처롭고도 생생했던 장면들을 우리 중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영문을 모르면서 울었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처하게 될 위험과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손을 흔들면서 다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작별하는 그들의 표정들은 한결같이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쁘게 충성합니다.” “나는 곧 가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 속에서 포탄과 미사일에 의한 폭격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추락한 조종사가 나의 남편인가?” “포로로 잡힌 부조종사가 나의 아들이 아닌가?”하는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걱정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류 시인 엠 루이즈 하스킨스는 “한 해의 문”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전쟁에 직면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의 느낌을 이렇게 요약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새해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빛을 주시오, 미지의 곳으로 안전하게 여행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빛보다 훌륭하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하리라” (종교시 모음집, 제임스 델튼 모리스 편집, 뉴욕 : 하퍼 앤 브라더스, 1948, 92 쪽)

마침내 총소리가 멈추고 항공기들도 날지 않으며 순찰차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조용한 정막이 전장을 덮었습니다. 전쟁의 소음은 평화의 정막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사막 위에 펼쳐진 잔인한 전경과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 마디가 한층 그 뜻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 미국 병사는 포로로 잡힌 병사를 내려다 보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가 모두 가정,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표정은 누구나 같았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대신했고, 따뜻함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가득 찼으며, 동정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장기 흥행했던 러너와 로웨의 뮤지컬 카멜로에서 아더왕은 무대를 떠나며 하는 “폭력은 강한 것이 아니며 동정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머나먼 광야에서 그 깊은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소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케니온 제이 스쿠너는 귀향하는 길에 그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느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한 친구가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가 먼 감옥에서 석방되어 돌아오는 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면회도 오지 않았으며 편지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지 그들이 여행할 만큼 돈이 없고 편지를 쓸 만큼 교육받지 못한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가족이 자기를 용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차가 그 마을 외곽에 있는 그들의 작은 농장을 지날 때에 그가 볼 수 있도록 한 표지를 붙여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그의 가족이 그를 용서했다면 철로 가까이에 있는 큰 사과 나무에 흰 리본을 달고, 만일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지 않기로 하여 그는 그냥 기차 속에 남아 계속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고향에 가까이 오자 그는 너무도 긴장이 되어서 창문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 분 안에 이 기차의 기관사가 고향



칠십인 정원회의 열린 알 리버트 장로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와 이야기하고 있을.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접근함을 알리는 기적을 올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제 친구에게 칠길 옆에 있는 사과 나무를 잘 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탁을 받아들여 청년과 자리를 바꾸어 앉았습니다. 1분이 몇 시간 같았습니다. 결국 기적이 올랐습니다. 젊은 청년은 "나무가 보여요? 흰 리본이 붙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하얀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입니다. 각 가지마다 리본이 달렸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사람의 삶을 괴롭혀 왔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는 "꼭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본 것입니다. (존 코드 레그만,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문, 1961년 5월호, 41~42 참조)

지금은 그 흰 리본이 노란 리본으로 대체되었지만 "귀향 환영!"이란 메시지는 같습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가로등, 거리 표시대 및 우체통은 물론 심지어는 애완 동물의 목에까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노란 리본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리본 공장 사람들은 24시간 줄곧 일을 해도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귀향 군인들을 데려오는 비행기들도 노란 무늬로 장식하였습니다. 제 짐작에는 노란 리본을 달던 모든

사람들이 "참나무에 다는 노란 리본"이란 노래말을 흥얼거리거나 최소한 생각은 하면서 달았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공향을 가득 매운 사람들이 미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은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노란 리본이 달려 있는 나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와 주는 귀향 환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없이 그들의 순진한 느낌을 나타내서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홀로 집 지키기"란 제목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목이 메이게 합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예배당 안에 외로운 두 사람이 교회내의 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중 나이가 많이 든 등장 인물은 가족과 친지로부터 버림받아 혼자 살고 있었으며, 맥 켈킨이 역을 맡은 그 이웃집 사람은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두고간 "홀로 집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은 외로운 노인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노인은 아들네 가족이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서로 내왕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순진한 소년은 "왜 아드님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하시고 크리스마스에 초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아들이 싫다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사랑을 표시 못하고 사과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객은 대화의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소년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층 침실에서 이 노인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웃 노인이 아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껴안고 노인은 소중한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집에 들어갈 때에 이웃 노인은 이웃집 이층 침실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그의 작은 친구가 이 용서가 낳는 기적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손을 꼭잡고 반가움을 나눕니다. "귀향 환영"이 "외로운 가정"을 대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극장을 나왔습니다. 극장의 불이 다시 켜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적을 베풀시고 진리를 가르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자비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40~42)

예수께서는 이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 가운데 절름발이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와 수족을 못쓰게 된 자와 무릎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린 자와 귀머거리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저들을 고쳐 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가엾게 생각함ियो...

“예수께서 그 앞에 데려온 자를 낱알이 고쳐 주시니,

“고침을 받은 자나 성한 자들이 모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를 경배하였고, 수많은 무리가 일일이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춘데 그 발이 눈물로 씻긴 바 되었다.” (니파이삼서 17:7, 9~10)

주님이 배푸신 성역 가운데 슬퍼하는 나인의 과부에게 보여 주신 동정심보다 더 감동을 주었던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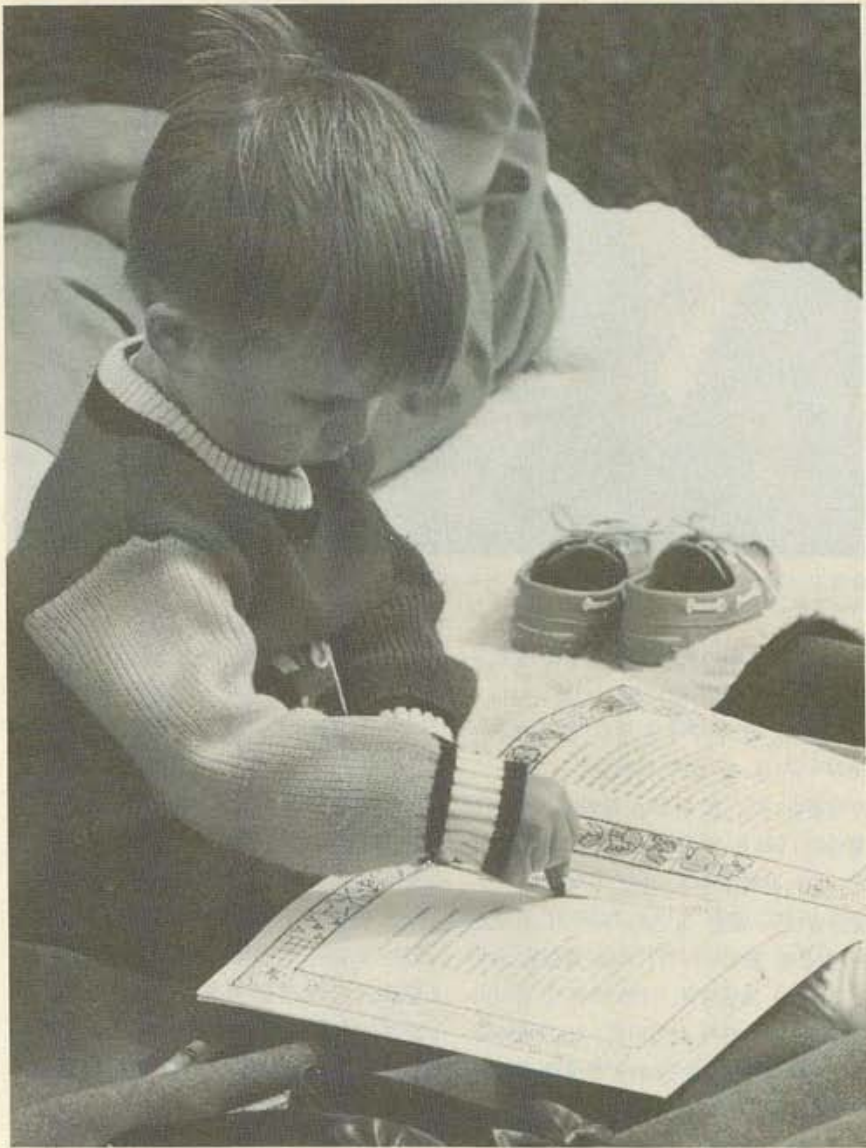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누가복음 7:11~15)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 보여 주신 권세와 은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범을 따른다면 그와 같은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는 눈과 상한 심령의 말없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과 마음으로까지 통할 수 있는 자비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태버내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처와 치과 진료실 및 무료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사회의 자비심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회원들은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궁핍한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으로 마련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식량이나 의복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근방의 또 한 곳에는 선린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교파를 초월해서 사랑에 찬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혼자된 어머니의 취약 자녀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며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곳은 또한 노인들에게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며 환담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고귀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억눌리고 유린된 사람들의 삶과 내일의 부모가 될 어린 자녀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고생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 분들은 예외없이 “나는 전에 이처럼 평화스럽고 보람된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한 작가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새 난 흐느껴 울었다.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데,  
찾을 수 없는 내 근시안이 안타까워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의 후회도 없었던 것은 한웅큼의 친절을 품었던 것이다. (작자미상, 리차드 엘 에반스 인용, 임프르브먼트이라, 1960년 5월, 340쪽)

우리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단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 사무실에 익명을 요청하는 두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각 봉투에는 수백 달러의 돈이 들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 그 돈이 성전에 가기



철심인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와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이 분들이 이 대회를 보고 계시다면  
블리비아 포르투갈의 가족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페루의 리마 성전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성전에 가는 데 사용될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런 자선금 익명으로 헌납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헨리 케이 버튼의  
글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이에게 전하십시오.  
그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전하십시오.  
후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이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그 선생이 천국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전하십시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어느 소녀가  
이곳에 있는 노인 요양소에서 먹을  
음식이나 입을 옷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영혼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고독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손에 활을 잡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을 켜기 시작하자  
휠체어에 앉은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한 환자는  
“정말 멋지군요.” 하고 칭찬을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따라서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저와 함께 요양소를 오면서  
“이처럼 잘 연주한 적이 없었어요. 제  
생애에 최고로 만족스러운 날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주님으로부터 지휘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절망과 슬픔이  
극복되었으며 자비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히  
싸웠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한 뉴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첫번째로 목숨을 잃은 미군은 장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며, 마지막 희생자  
가운데는 아버지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던 여군이 있었습니다. 182명의  
희생자 중에는 최근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으며 임신중인 부인을 두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꿈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한 미망인이 자신의  
외아들의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서부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한 청년은 그의  
결혼 계획이 영원히 좌절되었습니다.  
앨라스카에 사는 한 아내는 곧 남편이  
안아볼 수 없는 아기를 낳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군인 중에 왜 하필이면  
나의 식구만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무언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을 할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텅빈 공백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애통해  
하는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희망과 가장 밝은 꿈으로 가는

길에 시체만을 남겨 놓을 뿐입니다.”  
(테니스 스미스, *데저렛 뉴스사*, 1991년  
1월 11일, CI쪽)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마음을 치유해 주는 방법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이 비극적인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분들에게 위안의 길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땅으로부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하신 약속과  
주님의 임재하심은 돌보심으로 매여지고  
동정심으로 표시되어진 노란 리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께  
주님은 “귀향 환영”이라고 손짓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결코 외롭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으로서 성스러운  
확신을 주시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  
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오늘밤 저는  
아내와 수많은 여러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스러운 손길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1830년 4월 6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나 그날 그들이 “한 일은 절정의 시대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래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161년 전 어제인 1830년 4월 6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소수의 남녀가 피터 휘트머의 집에 모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오늘 모인 것같이 전세계적인 연차 대회를 갖습니다. 말일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되리라고 예언되었던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6명이 그날 모인 교회의 모든 회원수였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특별한 학식이나 뛰어난 지도력을 지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존경할 만한 시민들이었지만 가까운 이웃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지역 주민 중의 한 사람이었던 조셉 나이트에 대해 교회 정사에 기록된 글을 통해 그곳에 모였던 여섯 사람의 도덕성과 경제적인 여건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농장과 체분기와 소면기를 갖고 있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과 안락하게 생활할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교회 정사 1 : 47) 그런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약 150년 전 뉴욕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집에 모여서 그룹을 이뤘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위대한 사건들은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초라한 모임에서 행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기록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절정의 시대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래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젊은 요셉 스미스 이세의 아주 놀라운 주장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련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결과로 요셉 스미스는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기록인 물문경을 출판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 24살밖에 안된 젊은이에게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 즉 교회의 모퉁이 돌이며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불리어질 교회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세대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위대한 교회 역사의 첫 장면이 보잘것없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으며, 그 교회의 교리가 거룩한 계시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구세주께서 친히 유대의 좁은 길과 갈릴리 언덕을 걸으셨던 이래로 세상에 전해진 가장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소년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아테네에 있던 학식있고 능력있는 이들이 그들을 가르치던 한 비범한 사람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요셉을 조롱하고 등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그 위대한 학문의 도시에서 바울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엄격한 의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쟁론했던 에비구레오와 스토이코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장이 또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들이 가지고 아래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바울이 아래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 : 19-20, 22-23)

실제로 요셉 스미스가 받은 정규 교육을 생각해 보면 그는 바울과 같이 성역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그가 받은 교육과 훈련은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아주 당당하게 유아 침례, 스스로 취하는 신권, 예정설 및 기타 그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에 관한 그릇된 교리에





반대되는 것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그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반면에 윌라드 리처드가 요셉 스미스를 사랑한 것처럼 요셉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세계 함께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카테지로 오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함께 감옥에 들어가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혹 반역죄로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대신 형을 받고 형제님을 풀러나게 하겠습니다.” (교회 정사, 6:616)

이것은 갈릴리 해변을 걸으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박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유죄 판결을 받아 마침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의 심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 도마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16)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감받은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을 굳건히 주장하였으며 자신이 받은 거룩한 계시를 성취하였다는 데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계시의 일부는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재건하여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존재했던 것과 같이 이 현대에 회복시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 전서에 기록된 교회의 반차를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계시에 따라 조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정사, 1:79)

하나님은 18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이 하나가 아니며 분명한 개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서 2:17)고 소년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심으로써 재확인되었습니다. 1830년 4월 6일, 침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개체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실재와 교회를 세우는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도 믿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은 개체를 지니신 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실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은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원히 존속하게 해준 기본 요소가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영원한 기초인 것입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는 6명의 회원으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일은 그 당시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회가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모든 진리와 일치하는 영원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오직 교회의 참됨을 통해서만 교회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의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비롯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전세계에 교회의 단위 조직과 회원들이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놀라운 발전으로 회복된 복음의 이 진리가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복음에 따라 생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조직되어 세워진 전세계적인 교회를 대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61년 전 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조직되었던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개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경전에서 항상 자신이 실재한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 존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커다란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시대에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을 시작케 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의 161년의 역사상 여러 면에서 가장 큰 기적의 소년 예언자가 하나님의 손길과 세상의 구세주의 지시하에 약한 것이 나아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쳐부순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됨을 간증드립니다. 교회가 조직되었음을 기념하는 이때에 저는 이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 감독관 제1보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감화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여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건넸으며 그분은 제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분의 말은 억양이 너무 강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부친의 추도식에 가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의식을 위해 세번째, 일곱번째, 열세번째 그리고 열일곱번째 모임에 갔으며 지금 다시 한번 더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부친에 대한 정성에 경탄한다고 말하자 그분은 조용하게 자신은 조상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아뇨,

누가 죽으면 그때나 가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네요, 그분이 필요한 때는 ‘이리 오십시오’라고 말해야죠.”라고 하면서 손짓으로 부르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저는 또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먼 조상 중 한 분 같은 분이시겠죠.”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들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타락, 속죄, 부활, 회개, 영생,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같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말씀이 그분에게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가 낳는 기적의 앞 부분에서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생의 숭고한 목표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회개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용서라는 것도 불필요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도 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함도

없으니 희망이란 있을 수가 없다.”(용서가 낚는 기적, 스펠서 더블류 킴블, 15쪽)

저는 킴블 대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과 제가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이시지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여인처럼 때때로 그분에게서 떨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녀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감화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고자 원해야 하며 다시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지나 다른 쪽으로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지 또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얼마나 낮익을 지를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은사 및 기대,” *올해의 말씀, 1974년, 프로보*: 브리감영 대학교 출판사, 1975년, 313쪽)

벤슨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느낀 일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누군가와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그와 대화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할 것이며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그것은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며 사랑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 질 것입니다. 만일 서로간에 대화와 귀기울여 듣는 것과 행함이 없는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그러한 결속은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필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즉 말하고 귀기울여 듣고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말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시듯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 19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내가 받을 복이 크리니, 참으로 네가 얻게 되는 세상의 보화보다 많고 씩어 없어질 정도보다도 많으리라.

“보라, 너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벅차는 일없이 이를 읽을 수 있겠느냐?”

“또한 너는 눈먼 안내자가 되어 여기 저기 뛰어 다닐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겸손하고 온유하여 내 앞에서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네 구세주인 내게로 나아오라. 아멘.” (38-42절)

이 교리와 성약과 그 밖의 다른 경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분과 대화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어상으로는 정규적으로,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부활 후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때때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에만 기도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전하게 하신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가 복되리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꾀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

“또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서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자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4-16)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매우 주의깊게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고 귀를 기울이며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기울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으며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예언자의 음성을 듣게 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 그분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분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아멘.”(교성 1:38-39)

경전을 읽을 때에나 주님에게서 위임받은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증거하는 이는 바로 성신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성신을 묘사한 것에 대해 올바르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귀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꿰뚫으며 때때로 나타날 때에는 나의 뼈까지도 떨게 하시는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으로 이같이 속삭이듯 말씀하시는도다.”(교성 85:6)

저는 그것이 참으로 조그마한 음성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아주 조용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기울이고자 할 때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시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고요하고 조용한 음성은 마치 우리를 깨우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뼈까지도 떨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부드럽지만 우리를 고양시키고 확신을 가져다주는 뜨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후에는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항상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꾸밈음이 수반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겸손한 회개 및 그분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마음에 느껴야 함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잠언 3 : 11-12)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의 절립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강박한 마음으로 "왜 불완전한 사람이 내게 회개하라고 하는걸까?"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시고 사랑에 찬 징계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초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징계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권고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제럴드 디 오를리 형제가 태버네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지휘하고 있음.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그분께 회개의 심령을 바친 후에는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친구라면 제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저의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부모보다도 그분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시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하도록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순종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훨씬 더 관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절함을 나누는 것에 관한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나, 너희가 이를 행하면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니, 이미 너희가 행한대로 갚으신 것이요, 그 일로도 너희가 빛을 진 것이요, 현재가 그러하며, 장차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며, 너희가 무엇을 뵈낼 수 있겠느냐?" (오사이사서 2 : 24)

세상의 구세주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진 느낌을 일시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압니다. 베냐민 왕은 그 방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항상 그 이름을 너희 마음에 간직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원편에 있지 않게 하며, 그리하여 너희를 부르실 음성을 듣고 알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을 들어 알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 (모사이사서 5 : 12-13)

벤슨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얼마나 낮익은가를 깨닫고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뵈게 될 때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안 기도했으며 귀 기울였고 순종했으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나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가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회개 없다면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가시덤불과 영경귀와 날카로운 조각 및 가시로 된 면류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아름다움과 향기에 관해서,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스런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그 성스러운 목적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리하이는 한 가지 이유로서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과 사랑스러움을 맛보고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파이서서 2 : 10-13 참조) 아담에게는 땅이 우리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영경귀로 저주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 : 17-18 참조) 마찬가지로 이 현재의 삶 역시 우리가 시험받고 자신을 증거하도록 세상적인 유혹의 가시덤불과 죄의 날카로운 조각들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주셨으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 : 7)

우리가 죄와 이기심과 약점을 부인하면 그것은 마치 가시 면류관과도 같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회개 없다면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의 날카로운 조각들과 육욕적인 유혹의 가시덤불을 신속히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낮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회개하고 개심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9 : 13)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며 꺾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굼게 하는 영경귀를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들에게서 보는 약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 : 13)라는 말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가려해도 가시덤불과 영경귀와 날카로운 조각들을 반드시 지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여름 방학이 되면 농장으로 가서 신발을 벗고 지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내내 그렇게 신발을 벗고 지냈습니다. 처음 한 두 주 동안 발바닥이

약할 때에는 아주 부드러운 조약돌이나 나무만 밟아도 발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 발바닥이 단련되어서 가시 따위를 제외하고는 길에 있는 어떤 것들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은 다른 잡초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전하여 성숙해지며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그분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유혹과 고통을 견디기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의로운 결심은 더 굳어지며,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더 확고해지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제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들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의 가시가 제일 없는 길로 걸어야만 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보드라운 영경귀 씨를 쳐다보려고 영경귀 관모를 흔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야 우리는 그 씨가 우리와 이웃의 정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함께 씨름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자신이 어떻게 불행의 씨를 심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 이웃의 행복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살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상처에 대한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양심은 죄의 고통에 대한 우리 영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바울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 : 14)고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양심이 화인맛”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 : 2) 예민한 양심은 건강한 영의 표시입니다.

인생의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조각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모로나이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자비가 충만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사 10:32 참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통을 조래하는 가시를 제거하기 보다는 죄를 덮을 봉대를 찾게 됩니다. 가시를 제거하면 굵은 상처의 고통을 영구히 가시게 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시를 제거하는데서 오는 순간적인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가시나 날카로운 조각을 살에서 빼내지 않는다면 굵아서 고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벤이라는 아주 좋은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우리는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벤은 땅에 코를 대고 쿵쿵거리며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즐겁게 우리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냇가 독에 앉아 쉬면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가을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이 다리를 절며 자신의 주인인 우리에게로 와서 고통에 찬 눈빛으로 앞발을 들어올려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며시 개의 발을 들어 손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두 발가락 사이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시가 제거된 후 벤은 신이 나서 더욱 꼬리를 흔들었고 우리는 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벤은 더 이상 절룩거리거나 고통에 시달림 없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벤이 본능적으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시를 빼야 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구조받기 위해 항상 우리의 주인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날카롭고 가시같은 나무조각에 대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그분은 바른 방법으로 나무를 다룰 때 날카로운 조각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자지만 고통을 주는 이 조각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철심인 정원회의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와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

중요한 일에서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시로 인해 부분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 손에 들리고 그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그에게 짐뻔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27-30)

이 무자비한 행위는 아마도 그분의 머리 위에 황제의 월계관을 씌우는 것을 흉내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눌러 씌웠습니다. 그분은 전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위대한 은사의 일부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속죄가 맺는 매우 훌륭한 열매입니다. 교만의 가시덤불과 이기심의 영경귀와 자기중심의 날카로운 조각 및 욕망의 가시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사옹 파울루 외곽에 있는 로제란디아에는 수천 평의 땅에 아름다운 장미들이 자라납니다. 장미밭 위의 작은 언덕에 서면 장미 향기가 향긋하게 감돌며 그 아름다움이 기분을 돋웁니다. 덩굴에는 가시가 있지만 그것들이 향기와

풍경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접하게 되는 가시와 날카로운 조각과 영경귀 등을 올바른 안목에서 바라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미와 선인장의 꽃에서 나오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겨야 합니다. 만발한 꽃의 달콤한 향기를 즐기려면 우리가 경건 공부와 기도와 올바른 우선 순위 및 옳은 태도 등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수양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삶은 성전 방문을 통해서 더욱 다져집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를 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들은 꽃의 감미로운 향기와 뛰어난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16)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국의 수필가 토마스 카알라일은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다.” (과거와 현재, 런던: 제이 엔텐트 앤 선즈, 1912년, 3:173) 라틴어 격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덧없이 지나가 버린다네.” 세상적인 보상이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충실하며 남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 가시덤불을 내도록 하신 것처럼 가시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써 가시를 그분의 영광의 상징으로 변형시키셨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다음의 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높이신 분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관을 쓰시어  
신성케 하셨네.

(에밀리 디킨슨 시 전집, 토마스  
에이치 존슨 편, 보스턴 : 리틀 브라운사,  
1960년, 703~4쪽)

그분은 베푸는 것에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세상의 찬사나 경멸은 그분이 사명을 이루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은 번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가시와 날카로운 조각들을 잘 알게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산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업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엘마서 7 : 11-12)

우리는 육신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끊어 들어가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끊어서 쓰라리고 고통을 주는 것들일지라도 지금부터 제거하여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것이 낮게 될 때 쓰라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되리라” (교성 75 : 5)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존귀나 시련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고린도전서 9 : 25 참조)에 대해서 말씀했으며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 : 12)을 얻게 될 충실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 : 11)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권력, 돈에 대한 사랑,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인간의 영예와 같은 세상적인 면류관들이 바로 가시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는 것 보다 받고 획득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은 우리가 고귀한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가시 면류관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직업을 갖고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 사무실의 한 고참 사원이 다른 동료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아주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라는 철학이 바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가시 면류관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 : 2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세주께서 권고하신대로 자기의 욕구를 부인하며, 또한 “내 것만 한다”는 식의 이기적인 좁은 세상에 빠져들기 보다는 자신을 수양하며 자제하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기록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 : 21)고 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세주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봉사하고자 하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저는 통조림 제조 공장에서 김이 나는 뜨거운 강통을 만지며 한 시간당 25센트를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이기심이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더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이기적일 수도 있고 부자가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저는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특권에는 베풀고 봉사하며 축복하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권도 그분의 전능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베풀고 봉사하며 축복하라는 그 말씀에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초기의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예나 조롱을 똑같이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 말찌어다” (에스겔 2 : 6)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 신앙, 구원의 성약, 가족의 사랑과 형제애 등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매달릴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죄의 날카로운 조각과 세상적인 유혹의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세주를 따르는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작은 종으로서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존귀와 영광과 영생의 면류관(교성 75 : 5 참조)을 쓰게 해줄 구세주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일**흔 전에 저는 이곳 태버나클의 동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명의 아름다운 쌍둥이 자매가 그들이 택한 청년들에게 각기 인봉되는 두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합동 피로연이 열렸는데 그곳에는 많은 친구들이 사랑을 전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결혼식에서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자매들도 또한 그런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버지들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조부모들이 눈물을 흘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저의 손녀딸들이었으며, 이 늙은 할아버지도 격양된 감정을 감추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쁜 행사였고 우리가 꿈꾸고 간구해 왔던 것이 성취된 것인데 말입니다. 아마 사랑스런 신부들과 멋진 신랑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통해서 그들은 현재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행복과 안전 및 인류의 지속을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지혜로 준비하신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태초부터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창세기 2:23~24)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고린도 전서 11:11)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도 주님은 “진실로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라” (교성 49:15)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자도 여자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승영에 이를 수도 없으며 어떤 여자도 혼자서는 하나님 왕국에서 온전함과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유대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짝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화 보고, 1913년 4월, 118~119 쪽)

분명히 고대 경전과 현대 경전을 읽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분명코 결혼의 성스러운 뜻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과 고결하고 만족스런 감정을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결혼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야말로 온 세상의 남녀들이 간구하고 갈망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뉴욕 매거진이라는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잡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구인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159명의 외로운 남녀들이 배우자를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한 증거가 엿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성명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듯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치있고 빈틈없게 묘사된 그들의 광고 이번에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으려는 강한 열망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 중 결혼하기를 갈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특히 독신 자매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약속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회의 관례에 따라 이 문제를 솔선하여 주도해 나갈 특권을 쥐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훨씬 덜 갑니다. 과거에 교회 대관장님들은 청년들에게 강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은 보통 자녀와 가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아기를 낳은 젊은 어머니가 출산의 신성함과 기이함과 그런 모든 것의 기적에 대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쳐다보는 젊은 아버지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켄킨스 로이드 존스가 쓴 칼럼에서 다음 말씀을 오려 내어 지금까지 보관하고





대회 방문자와 함께 있는 본부 청녀 회장 아데스 지 캡 지매.



대회 방문자와 함께 있는 본부 초동협회 회장 미셸린 피 그레슬리 지매.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다니며, 드라이브-인 극장 안에서 입을 맞추는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이 영원히 지지않는 접시꽃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영원히 젊고 잘 생긴 남편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정이 식어가고 슬픔과 지볼해야 할 청구서들이 나타나면 이혼 법정이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속았다고 불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사, 1973년 6월 12일)

어느 가정이라도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는 반드시 육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는 많은 긴장과 다툼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계속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병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우리 중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가족들과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그래 왔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다툰 후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마음은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은 세계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분노와 야망과 슬픔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였으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악한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왕위를 노렸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고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은 왕을 배반한 이 반역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며, 결국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왕에게 호의를 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그 아들이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반역했을지라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이 하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부르되” (사무엘하 18 : 33 : 19 : 4)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반항적인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이 끊일 날이 없었으나, 그들이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도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정은 그들에게 손을 뻗쳐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무분별하고 탐욕스러운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을 몫을 요구해 상속받고 나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가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해 가족이 슬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이면서도 가장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비극은 이혼입니다. 이혼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월드 옵머번지의 최근호를 보면 미국에서 1990년 3월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결혼한 부부수는 2,423,000쌍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1,177,000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드 올머넥, 1991년, 834쪽)

미국에서 결혼하는 부부 중 거의 반이 이혼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에 기록된 통계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배신감과 슬픔, 무관심, 가난 및 갈등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는 이혼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외롭고, 좌절에 빠지며 불안하고, 불행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홀로된 부모들이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자녀들이 보통 부족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있는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열쇠를 지니고 다니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빈 집에 들어가서 먹을 음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한 친구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스스로 초래한 환경에 대한 무서운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며, 그 중 많은 숫자가 범죄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수가 직업을 갖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인생을 허송하게 됩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무관심과 악습과 좌절로 자신의 몸을 망친 채 사회의 부랑자가 되어 왔습니다. 뉴욕시의 문제를 다룬 타임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60퍼센트에 해당되는 60만 명 정도가 편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대도시와 세계의 대부분의 대도시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한다 해도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감옥을 지어 유지하고 있으며,



높고 복잡한 태버태를 오르간 연주대에서 연주하고 있는 클레이 크리스찬슨 형제. 앞쪽에 헤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존 지 키니어 형제. 키니어 형제는 연차 대회 계획 및 인공 위성 방송 담당 매니저로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중계를 위한 대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혼을 통해서만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마태복음 19: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자신의 어깨에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율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갈 때 아름다운 것이며, 반면에 서로가 결점만을 들추어 내고 유덕함을 보지 못할 때에는 추하고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에이 게스트는 언젠가 "가정이 강해지고 하나로 단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좋거나 나쁜 여러 경험들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정을 버려 어머니 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헛되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파탄에 빠진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놀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손 가정이 많습니까?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한 결혼 사랑과 화평과 규율과 정직과 관심 및 헌신을 통해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회원 가족이 수천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결혼의 엄숙함과 신성함 및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사소한 잘못들은 눈감아 주고 용서해주며, 잊을 수 있는 너그러운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불만을 자제하고 말을 함부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을 내는 행위는 애정에 금이 가게 하고 사랑을 식게 하는 악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자기 수양이 필요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신앙에 영양을 주어 강화시키는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간단한 대답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다루면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단지 로맨스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종종 가정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인 금전 문제의 근원이 되고, 간음의 근원이 되며, 이기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파괴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기심은 파괴적인 탐욕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제심을 파괴하는 것이며, 충성심을 말살하고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남녀 모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숫자가 집에서 귀하게 자라 버릇이 없으며 만사가 항상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은 즐거움의 연속이고, 그들의 행위가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며, 보호해 주고 모범과 훈계로써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아버지가 필요함에도, 그런 아버지가 없는 자녀의 생활에서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약 2년 전에 태베내클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갖은 훌륭한 모임이었으며, 매리온 디 행스 장로가 공개 토론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당시 5세부터 16세까지의 일곱 자녀를 거느린 매우 매력적이고 유순하게 생긴 이혼한 주부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까지 그 자매님이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느날 저녁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에 어떤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는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섰을 때, 저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분전에 집을 나서면서 들었던 아이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무엇을 먹을거예요?’ ‘나를 도서관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오늘밤에 포스터 종이 몇 장 있어야 되는데요’ 피고하고 지친 상태에서 집을 바라보니 각 방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의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오늘밤에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이에 맞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홀로 자녀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밤만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요?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귀로는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된다 내 딸아, 너는 지금 나에게 올 수 없어. 다시는 이곳에 올 생각을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갈 수 있단다.’”

세상에는 이 젊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성스러운 권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도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속에서 자녀들이 마약과 범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탈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채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곡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각자에게 타고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실들을 거스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고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의와 화평과 진리의 반대편의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혼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혼의 간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오락물과 사악한 욕구와 비난받을 행동으로 이끄는 충화를 추방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귀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위험과 영광을 통해 햇빛과 폭풍우를 거치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간주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책임이 지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대하십시오. 그들의 후견인으로, 보호자로, 안내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구의 역할로서 함께 하십시오.

국가의 힘은 국민들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 제도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을 아버지와 어머니 및 자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고 진실한 아버지와 선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그리고 순종심과 큰 뜻을 지닌 자녀들이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 (이노스서 1:1) 양육되는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인간의 가족을 연결시킴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계보는 오랫동안 지루하고도 힘들어 연구해야 하는 일이나 케케묵은 서류를 다루는 일과 관련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탐구'라고 하는 현대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정사, 1 : xxiii)

영감받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륜의 시대(가)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28 : 18)

복음은 물론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복음은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늘 왕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태초로부터 인간의 진보와 구원을 위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교회 정사, 1 : xxiii~xci 참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는 지상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지상에 이미 살았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식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분간만 동남 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 와사치 산맥을 멋지게 꾸며주는 아름다운 계곡 가운데 거대한 화강암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계곡으로 깊숙이 연결되는 도로를 주행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산 중턱에 높이 파인 아치형의 커다란 입구를 못보고 지나갑니다. 이 입구 뒤에는 단단한 화강암을 깊이 뚫고 들어가 만든 여섯개의 거대한 저장소가 있고 그 내부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계보 기록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상에 생존했던 20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출생, 결혼 및 사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것들은 교회

역원,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기술자 및 산속에서 깊이 들어가있는 마이크로필름 캐비닛에 질서정연하게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쏟아 부은 각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이 사업의 규모는 실로 놀랄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왜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전과 시간을 이렇듯 광범위하고 특이한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어찌서 이미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간단하지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똑같은 축복을 누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것 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합니다. 조상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헌납된 성전에서 복음의 의식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식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구원받도록 돕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해 행해지는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기차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글래스고우로 여행했습니다. 저는 글래스고우 시 위원회에 의한 종교적인 차별 대우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논지를 대변해 주기 위해 고용한 저명한 영국인 변호사와 함께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교역자 그룹의 부추김을 받아 비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교회 건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시 위원회에 의해 계속 부결되는 건물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각료 중 한분이며 스코틀랜드 담당인 국무 장관 앞에서

**어**제 4월 6일은 주님의 교회가 말일에 회복된 지 16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합당성의 여부에 따라 축복이나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륜의 시대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복음 원리와 의식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로 행하도록 성스런 권능이 선택된 자들 위에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기타 모든 일을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과 지구자체의 구축”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조상철을 활용한다면 컴퓨터 스크린상으로 7백만 명 이상에 관한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여기에 더함으로써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과 저의 친척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컴퓨터 스크린상으로 각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볼 수 있기에 상호 연락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사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두살인 엘리는 꿀벌 반원들과 함께 가족 역사 도서관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엘리는 전에 그곳에 가 본 적이 없으므로 다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컴퓨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 엘리는 미소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컴퓨터를 켤 수도 없거든요."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와 친구 카미는 컴퓨터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곧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사용법 설명을 읽고 그대로 따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는 흥분한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네가 아는 성명이 있든?"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맨 처음에 할아버지 성명을 찾아보았더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티브 삼촌을 찾았더니 역시 있었어요. 제 성명도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났단 말예요! 그 밖의 모든 가족들의 성명 역시 화면을 꼭 채웠죠. 언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위스콘신의 한 비회원은 자신의 증조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데 실망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상철을 보기로 다루는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탐구"라고 하는 현대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가족 탐구란 강력하고 혁신적인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 컴퓨터의 키보드에 여러분 조상 가운데 한 명의 성명을 치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잠시 후 수백만 명의 성명이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며, 여러분이 키보드에

타이프한 내용과 부합되는 성명을 찾아냅니다. 컴퓨터는 철자는 달라도 소리가 같은 이름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양의 정보에서부터 컴퓨터 화면 전체를 채우는 정보에 이르기 까지 제반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즉 출생, 결혼, 사망 날짜와 장소, 부모님, 자녀 및 배우자의 성명 등을 안내해 줍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가족 탐구는 여러분이 레코드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전자 제품의 총아라 할 컴팩트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각 디스크에는 최고 5백만개까지 성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탐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함됩니다. 즉 군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정부의 기록, 가족 역사 도서관의 목록, 완료된 성전 의식에 대한 색인,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기증된 가계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화일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가족 탐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은 조상철입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들 모두를 같은 조상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좀더 가까운 지구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교회의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컴퓨터의 키를 누름으로써 새로운 사촌과 수천 명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가족 역사 도서관이나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간략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저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도 포함해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에 관한 초기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해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모두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 : 29)

우리 측 변호인은 우리 사건을 아주 훌륭하게 변론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단언하거니와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 (교리와 성약 128 : 15)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당장 이용이 가능한 수백만 통의 마이크로필름과 솔트레이크시티 가족 역사 도서관이 있으며 전세계 스테이크 센터 및 와드 집회소에 가족 역사 센터가 있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마이크로필름내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어 저의 조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보는 오랫동안 지루하고도 힘들어 연구해야 하는 일이나 케케묵은 서류를 청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열차가 글래스고우를 향해 달릴 때 저는 이 저명한 변호사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번창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현대식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지, 또 영국에는 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있는지에 대해 아주 조금만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겠노라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교세 확장에 대한 다른 측면을 논의하면서 그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그렇게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 의식의 영원한 원리를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합당한 자녀들은 언령에 관계없이 그분의 왕국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마음먹었고 어느 정도 찾다가 마침내 수년간 찾으려 애써 온 중증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은 자신의 디스크에 수천 개의 성명과 1,300건이 넘는 결혼 기록을 추가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계도를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조상철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천 개의 성명을 다른 가계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어떤 회원은 조상철을 활용하여 자신의 혈통을 14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며, 수백 개의 성명을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조상철은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인간의 가족을 찾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조하면서 그들의 가족 역사 기록을 제출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조상철은 일종의 전자 기억의 책으로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위한 기계도와 가족 기록서가 가득 담겨 있으며 대가족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계는 무수한 다른 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조상철에 어떻게 첨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지침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 그리고 미국내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 위치한 가족 역사 센터 및 와드의 집회소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멀지 않아 세계 어디서나 입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와드의 가족 역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계보 데이터를 컴퓨터에 첨부시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시며, 우리가 읽거나 듣게 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가르침보다 신속히 우리의 주의를 끌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도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아는 한 과거 세계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경륜의 시대에 더욱 완전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출되어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이와 같은 경이로운 발전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벵게이에서 엘라베마주의 버밍엄까지, 아이다호주의 샌드포인트에서 뉴욕의 앨버니까지, 호주의 시드니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모든 성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집회소에 가서 조상에 관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역사 및 계보 탐구에 참여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감격적인 결과는 우리의 조상들과 친밀하게 되며, 특히 그분들의 용기와 업적에 대해 잘 알게 되며 그런 다음 그분들이 모든 은사 가운데 최대의 은사인 영생을 얻도록 조상을 위해 의식을 행함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데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점에 관해 경전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 놓고 있지 않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똑같은 공의와 자비에 따라 심판받아 보상받거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 모든 주민을 위한 것이다. 그분은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신다.” (신앙 개조, 134쪽)

“보라 주의 크신 날이 가까왔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또 말일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주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 (교리와 성약 128 : 24)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어린이들을 가르침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공을 거두어 사회에서, 또한 주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은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도 치를 가지가 있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지**난 성탄절 기간 동안 저는 워싱턴 디시에 있는 방문자 센터의 성탄절 기념 점등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십만 개의 전등을 켜는 순간, 그것들을 웅장하게 빛나는 성전을 배경으로 나무들 가운데에서 찬란한 불꽃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련 대사관 학교에 다니는 35명의 어린이들이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국의 춤과 노래를 아름답게 펼쳐 보였습니다. 이어서 교회 회원들로 구성된 소년 소녀들이 22개국의 대사관 관리들이 포함된 수준이 높은 청중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교회 회원인 어린이들은 방문자 센터 로비 중앙에 있는 2.4미터 높이의 그리스도 상 정면의 약간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련 어린이들은 우리 어린이들과 떨어져서 그들의 교사 및 부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기 위해 제가 연단에 섰을 때, 초롱 초롱한 모습의 아름다운 어린 친구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소련의 소년 소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앉도록 요청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앉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으며 성탄절기를 맞이하기에 적합하게 보였습니다. 양대 강국의 귀엽고 순진 무구한 어린이들은 그리스도 상 받치에 함께 어울려 앉으면서, 서로를 향해 즉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가 국가의 통치권을 이 어린이들에게 며칠만 맡긴다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통해 그들은 세상 어른들의 오해와 불신 및 비행 등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스런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국가의 운명이 오늘 이 어린이들의 손에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 익명의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미래가 어린이의 어깨를 넘겨지는 것을 보았네.

그리하여 아이들의 모습과 표정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미래를 보았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현명하고도 신중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의 유리창을 통해, 바퀴가 달린 자그마한 요람이 여러분에게 다가 오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그 귀여운 신생아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한 새 생명이 아들이나 딸, 손자, 혹은 친구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의 생은 예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경외심에서 서있다가 새 생명의 신비에 대해 숙고하시면서 눈물을 억제하셔야 했습니까? 이 신생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순진 무구한 상태로 이 지상에 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했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필멸의 육체를 부여할 지상의 부모에게 그분의 영의 자녀들을 맡기셨고,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빛과 진리로 양육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언젠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오도록 할 성스런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은 순진 무구한 상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형제 자매, 조부모, 교사, 이웃, 그리고 이 소중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과 이러한 성스런 임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베나민 왕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가르치라.”(모사이사서 4:15)

감수성이 예민한 초기 성장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묘판에 있는 묘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똑같이 보일지라도, 각 어린이는 점차 성장하여 독립하며 개성을 가질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먹이고, 보살피며,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다 펼치며 완전히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머리를 땅아 올린 어린 소녀의 내면에 감춰진 잠재력을

간파해야 하며, 무릎에 구멍이 난 바지 차림에 때묻은 얼굴을 한 남루한 모습을 한 어린이라고 해서 잘못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교사와 지도자는 어린이들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서 장차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같이 나눌 선교사의 모습을 보며 그후에 신권을 존중하는 의로운 가정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영감받은 교사는 지금은 비록 교실의 뒷 줄에서 키득거리며 수다를 떠는 소녀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에게서 미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과 상호부조회, 청년회 및 초등 협회 회장 등의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글쎄, 애들은 어디까지나 애들이라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성인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공을 거두어 사회에서 또한 주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을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도 치를 가지가 있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자녀들은 전세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모든 부모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아낌없이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가르치고 축복하신 점에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입니다”(마가복음 9:37) 그분은 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14)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여쭙자 구세주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1-4, 사체 추가)

최근에 한 경험이 이러한 어린이들이 소중함을 잘 나타내 줍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손자와 더불어 교회의 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입문을 나서려는 순간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간청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같이”가겠다고 진정 원하는 사람을 때어 놓고 간다면, 그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부가 뒤에 남겨진다면, 천국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자녀는 가기를 원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나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 주고 기도와 인내로써 자녀들과 더불어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녀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울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을 사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헌신으로 자녀들을 아끼고 보살피어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은 우리에게 더욱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지위 따위는 하찮은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새로이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부모들을 금전적인 이득, 세속적인 안락, 혹은 뭔가 성취하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일이나 모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위한 시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영원한 권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4년 6월호, 445쪽).

우리는 학교나 지역 사회, 텔레비전, 혹은 교회조직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피하거나 위임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남들이 도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신성한 곳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훨씬 전에 자녀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해 인식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세 살 난 손자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제 아내는 손자를 안고서, “아가야, 잘 지냈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제 아내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가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로 그 아이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과 나름대로의 위치와 소속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위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최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모범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 자녀들을 인내와 친절, 그리고 가식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향해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 주신 사랑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장은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여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크나큰 기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므로, 어머니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랑의 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들을 감싸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 손자 중 하나는 다섯 살 때 가족이 새로운 와드로 이사했기 때문에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모임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자기 혼자뿐이었으며, 가족이나 차도 보이지 않자, 그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몇 분 뒤 초등학교 회장단의 보좌인 한 자매가 밖으로 나와 그에게 길을 잃었는지 물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문에서 그 자매를 불러 누군가가 안보인다고 이야기 했고, 그 교사는 초등학교 보좌에게 누가 없어졌는지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보좌는 밖으로 나가 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 곧바로 손자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교사와 초등학교 보좌는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며 늘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가르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헌신적이고 영적으로 무장된 초등학교 교사들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뒤 사랑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 사랑으로 충만한 교사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누그러뜨려 주고, 그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다섯 살 난 여자 아이는 가족이 일요일 모임을 준비할 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자 아이는 훌쩍이면서, “누가 저의 선생님이 되실지 몰라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달에 걸쳐 그 아이가 속한 반에서는 교사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잦은 변화가 그 연약한 어린이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데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건물의 벽돌을 쌓는 일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담벽을 벽돌과 벽돌을 지탱시켜 주는 강력한 회반죽에 의해서 한 단, 두 단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물의 벽돌에 비유컨대, 침대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줌, 자녀의 기도에 귀기울임, 취침 시간에 자녀의 잠자리를 돌봄, 그날 하루 있었던 활동을 조용히 되돌아 봄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벽돌들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즐거운 대화, 잘한 일에 대한 칭찬, 생일 파티, 가족 외출 등의 이름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벽돌로는 일상적인 과제를 행하는 것, 서로에게 친절하기, 경전을 함께 읽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기를 배움, 책임을 완수함, 노인을 공경함, 함께 노래함, 숙제하기, 초등학교에 참석함 및 안식일을 잘 지키 등 이름 붙일 수 있는 벽돌들도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더 큰 벽돌로는 가정의 밤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그리고 가족 기도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놓여진 것처럼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의 담벽을 세상의 혼란과 사악한 물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의 요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들을 사랑이라고 불리는 회반죽으로 서로 지탱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및 선물 택하는 사랑 등으로 접착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의 편부모 슬하에 있으며, 어떤 어린이에게는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공간을 채워 주고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어두운 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대단히 멀어진 나머지 자녀를 확대하는 부모나 어린이들의 생활 보호자에 관한 슬픈 보고를 듣습니다. 이러한 확대 행위는 육체적인 것이든 언어에 의한 것이든 혹은 이에 못지 않게 어린이의 정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며 매우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 : 6)

우리는 여러분께 자녀나 손주가 어릴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청합니다. 일생에 있어 특별한 순간은 한번 밖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나이가 들게 되며 그들에게 성취감을 맛보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과 성취적인 삶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이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미래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축복이 있으며, 어린 자녀를 가르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장벽을 쌓기 전에

로렌 시던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사랑과 용서가 융화된 상호 존중의 원리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삶에서 어떤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성품의 일부인 듯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존경이 융화된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 어떤 의무를 갖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명하시라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니피아이서 26 : 30) 우리는 또한 경전에서 “너희도 서로 허물을 사하라” (모사이야서 26 : 31)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자신이 고수하는 원리를 저버리거나 진리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합니다.

얼마 전, 나부 출신의 폴 쇼월터 신부는 나부 지역의 초기 카톨릭 교회사에 실려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부와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할 당시, 인접한 맥더너프 군에 살고 있던 프랑스 계의 카톨릭 교회 소속 존 팻러먼 신부는 교구내의 한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 교통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나룻배로 그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행선지까지 마차를 제공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요셉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정성을 쏟아 교인들을 돌보시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십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일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은 그들의 신앙이나 종파와 관계없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의 일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운명할 날까지 진리와 회복된 복음을 수호했으며, 고의로 악행을 일삼거나 말일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에게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신앙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형제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분과 초기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를 고려해 볼 때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때 자신을 사랑이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일 자신이 원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좋아하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오는 원리에 충실한 가운데 교회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대했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 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은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교리와 성약 121 : 41~42)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교리와 성약 121 : 45)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권능과 권세로 회복의 교리를 선포했고, 이 사업이 진실됨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세상에 나가 그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 저의 교리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원리들이 사람들의 관습을 대신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요셉 스미스 이세가 조셉 엘 헤이우드에게 보낸 서한, 교회사, 6권 213쪽)

그분의 생애가 다할 무렵, 나부시가 안팎으로 폭도들과 반대 세력으로 포위되었을 때, 요셉과 하이람은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떠난 보스턴 출신의 튜키스버리라는 사람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서한을 썼습니다. 그 서한의 일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타는 소망을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께서 하나님의 종들 중 한 분인 너커슨 장로님께서 다시 침례를 받으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온화한 감화를 다시 받으시고 성도들의 우정을 다시 느끼시길 바랍니다.”

1985년 대관장단 서한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활동 회원이며, 다른 몇몇 분들은 비판적으로 남의 결점 찾기를 즐겨 하며, 어떤 분들은 중대한 죄로 인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선도조치를 당한 분들에게 저희는 사랑의 손길을 보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영으로 기꺼이 용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한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 대회장으로 들어오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10)”

오늘날 우리는 논쟁, 불화, 이견, 잘못에 대한 비난과 역습, 그리고 불일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랑과 용서가 융화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의견이 다르고도 불쾌해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을 낮추고,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간 후에 우리는 다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몇 년 전 동부에서 살았을 때, 저는 미상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중요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토론은 한 정당을 대표하여 미내스타주 출신의 험프리 상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당의 원내 총무는 메인주 출신의 마가렛 체이스 스미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험프리 상원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승리가 굳어져 갔습니다.

결렬하는 날 아침, 험프리 상원 의원은 정원으로 나가 장미 꽃 몇 송이를 잘랐습니다. 그날 아침 마가렛 체이스 스미스 의원이 상원 원내 총무석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책상에는 장미 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논쟁에 대한 스미스 상원 의원의 심경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지위에 상관없이 좀더 많은 장미 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타주 서부 계곡에 있는 한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개척자들이 틀러 마을에 정착한 후, 매우 값진 광석이 매장된 광산이 인근 산맥에서 발견되자 유럽의 남부와 동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그들은 광산과 제련소에서 일할 목적으로 오게된 것입니다.

마을 동쪽에 정착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새로운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관습을 갖고 온 새로운 거주자들과 대개가 개척자들의 후예인 마을 사람들 간에는 분열과 의심 그리고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집단은 좀처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한 고등학교가 유타 주립 대학교를 갓 졸업한 스티링 해리스라는 미식 축구 코치를 채용했습니다. 해리스 코치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다지 존경을 못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미식 축구부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 주었는데, 나중에는 스티링 해리스가 주는 별명을 갖는 것은 일종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두 마을 출신의 청소년들이 같은 축구단에서 함께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강훈령을 시켰지만 모든 선수들을 동등하게 대했으며, 그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단원들은 함께 어울려 경기하는 법을 배웠으며, 해리스 코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세 차례나 주 선수권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구 부원들이 경기를 잘 치르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마을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허물어 졌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상호 존중과 감사의 토대 위에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링 해리스가 그러한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터링 헤리스 형제님은 아직도 틀러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91세이십니다. 그들은 생애에 다른 일도 많이 이루셨으며, 학교 교장 및 교회 지도자도 역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를 하나로 단결시켜 여러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존중하는 원리를 재수립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든지 지방이든지 이 세상의 어느 분야에서나 스테링 헤리스 형제님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러한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장벽을 쌓기 전에는 먼저 의문이 생긴다네 벽 안에는 무엇을 두고 밖에는 어떤 것을 둘까

누구에게 벽을 쌓을까

우리에게는 벽이 싫은 천성이 있다네”

(“벽을 고치면서” 로버트 프로스트 시집, 뉴욕 : 헨리 홀트사, 1979년 34쪽)

사람들은 언제나 이견을 갖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갈등이 생기고 오해까지도 빚어지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융화된 상호 존중의 원리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되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첫째,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둘째,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존중의 특성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는 훌륭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이란 우리가 사람의 진리나 원리를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형제애와 자매애를 낳게 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주시기를 간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의로움의 본보기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의로움의 본보기를 정립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본보기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 저는 자녀들이 아주 어려울때에 밤에는 우유를 먹이는 일과 낮동안 기저귀를 갈아 주는 일이 마치 우리가 살던 군인 아파트 밖의 얼어 붙은 땅처럼 결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해 겨울 저는 도움이 매우 절실했으므로 좋은 해결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 평상시에 입는 상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옷을 재단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가게에 가서 가장 좋은 옷 본과 옷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큰 열의를 갖고 옷 본에 설명서를 꺼낸 순간 저는 거의 심장이 멈출뻔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러 장에 걸쳐 138단계의 지침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저의 능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옷 본을 갖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 능력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두 단계 이상은 밟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단계가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 날 해야 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두었습니다. 이따금씩 지나치게 걱정만 나머지 퀘맨 부분을 뜯었다가 다시 퀘매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천이라 실수했던 부분을 조심해서 뜯으면 그 자국이 남질 않았습니다. 수개월 만에 저는 하나의 걸작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옷 본이 있었기에 그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옷 본은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옷 본에 대한 느낌이 계속되면서, 저는 주님의 본보기에 대단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알려 주신 본보기는 경전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방주, 제단 및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재료는 중요하며 목적 역시 원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가장 중요한 본보기인 의로움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16)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가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본보기라 반복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의로움의 본보기는 반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가상의 수직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의 위에 있거나 그들보다 앞서감으로써 발전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마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낮지 아니하며, 제사가 저의 말을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더라, 이같이 저들은 모두 동등한 가운데, 사람마다 저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써 일하였으며” (엘마서 1:26) 의로움은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의로움의 본모습을 정립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본모습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이사야서 26:9) 때까지 이것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듭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교성 52:14)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의로움의 본모습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세 가지, 즉 기도, 경전 공부 및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 막내 딸은 언니가 다른 사람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도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 시절, 저는 기숙사에 8명의 같은 방 친구들과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식사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만일 우리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당시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은 틀림없이 이에 대해 걱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게 너무도 훌륭한 본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아파트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달 전, 뉴 멕시코 주 엘버키키에서 한 젊은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눈을 떴을

때, 저는 원을 지어 기도하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매우 따뜻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본모습이 우리들 가정에 정립된다면, 각 가족 구성원들은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이 제게 해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본모습을 실천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움의 본모습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진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98:12) 저는 집에서 보게 되는 경전 읽기의 모범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제 딸 중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따스하게 하는 버릇이 있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애가 목욕탕 가운데에 앉아 온수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경전을 읽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각기 두 살과 네 살난 두 손자는 매일 기도를 드리고 경전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발전 도표에 붙여 주는 스티커에 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본모습들을 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 찬 봉사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의로움의 본모습입니다. 경전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며, 지도자들은 그 중요성을 증거합니다. 프로보 성전의 초대 성전장이었던 해롤드 글렌 크라크 형제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일 중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 감독? 축복사? 아니면 성전장으로 봉사하던 때였는가? 잠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 여섯 살 때 제 어머니는 종종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데려오셔서 돌보아드렸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 두 분을 동시에 보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구함”이라는 뜻말을 걸어 두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분을 목욕시켜드리고 옷을 갈아 입혀 드리며 식사하는 일을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재미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16세의 소년인 저로서는 밖에서는 재미있는 농구 게임이 행해지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의 젖은 잠옷을 힘들여 벗기고 있는데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참기 힘든 상황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잡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 가득히 눈물을 머금고 계신 할아버지와 마주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날 위해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거다.’

“저는 마음속으로 화를 낸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그 의지할 곳 없었던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봉사를 해드린 것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서도 순수한 사랑으로 늘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활 가운데 의로움의 본모습을 정립하는 과정에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저의 의무를 생각해 보는 중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의 말씀이 그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패커 장로님은 힐라맨 시대의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엘마와 힐라맨이 전한 경고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성장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명예욕 그리고 특별히 부유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러한 것들은

존재했으며, 교회는 점차 의로움에서 이탈했습니다.” 다시 저는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 한 청소년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현대의 젊은이들의 생활에서도 거의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시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종종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경전 공부 및 봉사 등 개인적 의로움의 본보기는 물론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니파이는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의의 손으로 나를 감아 주시며” (니파이이서 4 : 33)

본보기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저는 이것이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분인 아버지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보기를 세워 주셨으며 저희에게 ‘나를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즐겨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니파이이서 31 : 10)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움의 본보기를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시는 예언자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본부 청녀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은 지 며칠후, 교회 대관장단에서는 저를 성별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제가 앉은 의자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제 머리에 그분의 손을 놓으시는 것을 실감했으며, 그분에게 크나큰 존경심과 경탄감을 느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 예언자를 빙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저는 그렇게 영적인 느낌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를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의로움을 본보기로 보여 주셨다는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평화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늘의 축복을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말일성도들은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부활절을 기념하고 경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렸으며 그분의 부활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쿠웨이트가 해방되고 군 병력의 본국 귀환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항구적 평화가 깃들도록 염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 : 14 참조) 하지만 그러한 선포 이래 2천년 동안 세계에 평화가 깃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전운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 간에는 불안한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어떤 나라들의 국내 상황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 전 인류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평화 역시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산상 수훈으로 주신 바 있는 이러한 영적인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과 화평케 하는 자들에 관한 그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모두 우리가 완전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활용해야 하는 청사진입니다. 동시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완전함과 화평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영원히 노력하는 가운데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여러 성품과 특성을 알려 주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 설교를 처음 가르치시던 당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눈으로는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정경이 보입니다. 4월초 어느 화창한 날 오후로 상상됩니다. 미풍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황혼이 깃들려고 하며, 다발 모양의 하얀 새털 구름은 청명한 하늘 가운데 미동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갈릴리 해변에 정박한 배들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서 부딪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열성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잔디나 바위 또는 이른 봄의 꽃들 사이에 앉거나 섭니다. 구세주께서 그들이 생활 가운데 화평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자, 모두 얼굴을 들고, 주님을 주시하며 경청하면서, 모두가 잠잠히 생각해 잠깁니다.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홍정역, 마태복음 5 : 9) 다른 성경 번역자는 구세주의 그 말씀을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의회 회원들(좌로부터) :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 하이트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앤 넬슨 장로.

번역했습니다. (영역 신약전서, J.B. 필립스 번역, 뉴욕 : 맥밀란 출판사, 1958년, 9쪽) 여하튼 우리는 “화평을 조성하다” 혹은 “화평케 하는 자”에 내포되어 있는 강한 의미의 동사 “만들다” (make)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늘의 축복을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지역 사회,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해야 합니다.

절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압제 받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화평을 주셨지만 이것은 외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화평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베트남 전쟁 기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미국이 승고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에 개입했다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변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대관장님은 해로드 비 리 장로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역 대회에 참석 중이었던 그분은 국제적인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리 대관장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귀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질문이 오해받거나 왜곡될 위험없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식했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이에 대해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국제뉴스 담당 기자는 아마 이렇게 논평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신앙개조를 지지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반대하다니! 한편 대관장님께서 “우리는 전쟁을 찬성합니다.”라고 응답한다면, 그 기자는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찬성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든, 그 대답은 교회 안팎으로 여론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구세주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영감과 예지로 다음과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우리는 전쟁을 거부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 : 3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요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다른 성구를 인용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 : 27).’” 리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군사력에 의해서나 국회 의사당내의 협상에 의해 국가간에 쟁취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계명대로 생활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의 생활 중에 갖게 되는 화평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엔사인, 1982년 11월호, 70쪽 참조)

경전에서 받게 되는 화평에 관한 캐롤 세그밀러 자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엔사인 1991년 1월호에 실렸습니다. 그 자매의 기사 가운데 몇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겠습니다 : “... 제 동생 브루스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집중적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브루스가 떠나기 전에 우리 목소리를 테이프에 녹음시켜가면서 물론경을 한 번 다 읽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로 한 장씩 읽어 갔습니다... 몇 달 후 우리 가족은 물론경 읽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약의 4복음서를 읽고 녹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낭독해 녹음한 경전 녹음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듣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캐롤, 어느 날엔가 이러한 녹음 테이프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거란다.’라고 하시면서 완강한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러한 시간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어떤 성구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이 좋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경전 공부를 할 때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브루스가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나기 직전에 4복음서 읽기를 마쳤습니다.

“...브루스가 떠난 뒤, 저는 그 녹음 테이프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브루스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아버지께서는 그 테이프를 자주 들으셨으며 어떤 때는 브루스의 목소리 듣는 데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한밤중에 테이프를 들으시다가 잠이 드시곤 했으며, 저는 그럴 때마다 테이프가 다 돌아가 녹음기에서 짹까다 거리는 낮은 소리를 듣고 혼자서 살며시 웃곤 했습니다.

“...브루스가 집을 떠난 지 일 년이 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심장 마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선교 사업을 끝내기로 결심을 한 부르스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그날 저녁 저는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층에 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간 저는 낙심한 채 아버지께서 쓰시던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애용하시던 녹음기가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약전서를 녹음해 둔 테이프가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날 밤에 들으셨던 테이프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자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처음으로 되돌리다가 중간에 이를 쳐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테이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앉아서 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저는 그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다가와 포근한 팔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평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저는 신약 성경이 주는 따뜻한 마음의 평화를 느껴 왔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앤사인, 1991년 1월호, 27쪽)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시스 아씨시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4월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노래한 물론 청소년 합창단원.

####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22)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느끼는 화평과 위안과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형제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그의 신권 지도자는 제게 그의 전화를 받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개인적 분류와 화평의 결핍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죄,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지 못함, 이기심, 교만, 사랑의 결핍, 실천력의 부족,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열의의 결여, 혹은 단지 무고한 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화평을 얻기 위한 해결책은 늘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십시오. 그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광풍이 일어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39)고 하신 명령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얻는 화평과 영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매일 그리스도에 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신 희생에 더욱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함, 선교 사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매일 더욱 잘 섬김, 주님의 길없는 양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함, 그들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 줌, 성전에 더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 우리 가족의 역사를 더 부지런히 탐구함 등. 충실한 선교사 양을 돌보는 목자, 헌신적인 성전 의식 봉사자들이 누리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세주를 따를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안에 이르는 길이며, 평안의 진리요 생명이며 근원이십니다.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평안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히브리서 12:3)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인생은 “신앙으로 승리”(교리와 성약 76:53)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지적인  
에리함이나 재력 또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연차 대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았으므로, 잠시 동안 영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피곤하여 낙심”해 있는 (히브리서 12:3) 교회의 소수 회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심각하거나 마음을 놓지 못할 질병, 경제적 압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및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깊은 실망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신앙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경은 신앙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쓴 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히브리서 12:15) 합니다. 일부 회원들은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현상계의 걱정거리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6,7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에머슨이 다음과 같이 탄원한

말을 인용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나에게 진실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제는 현상적인 것들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좌절” 랄프 왈도 에머슨 전집, 뉴욕: 더블류 엠 와이즈 앤 출판사, 1929년 874쪽)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혼자서 짊어 짐으로써 지쳐 있거나 또는 “판결의 골짜기”(요엘 3:14, 열왕기상 18:21 참조)에서 망설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확실하고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힐라맨서 5:12 참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면 낙담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의식을 상실하고 “하나님을...어리석게 원망”(욥기 1:22)하는 경향을 낳게 됩니다.

선행을 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추구하는 데에는 그와 같은 상태를 피하라는, 훈계가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 6:9; 데살로니가후서 3:13; 엘마서 37:34) 우리는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일해야 하면서도 추수 때가 이른 후에(갈라디아서 6:9 참조) 거두기를 기대해야 하며, “온유하여 마음을 낮추어”봉사함으로써, 자기 연민과 위선이라는 끈고한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엘마서 37:34) 또한 항상 기도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여, 그저 생각이나 목적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니파이서서 32:9; 교리와 성약 75:11; 교리와 성약 88:126; 니파이서서 32:5)

또한 당연한 꾸지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는 것은 인간을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5~6)

따라서 신앙이 충만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역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이 때때로 겪게 되는 시련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으며, 또한 지혜를 배우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서 시련이 없이는 결코 겪을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설교집, 2:198 쪽)

따라서 이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마치 “주님이시여 저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슬픔과 비애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버림을 받지 않는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겪으신 모든 경험을 제가 겪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데살로니가전서 3:10)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근본적인 요소는 봉사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네가지 구체적 방법으로 신앙을 살찌우기를 그치게 된다면, 곧 악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영양실조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에는 말씀으로 행하기”(신앙 강화 7:3) 때문에 영감 받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수록 굳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베소서 6:17;

에이름서 1:12)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화합” (히브리서 4:2)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 (모사이사서 5:13)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 신앙이 침식을 당하게 되어 “곤고의 날에 지쳐 쓰러지” (교리와 성약 109:38)게 될 것입니다.

지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육의 인간으로 남아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 지고 가야 할 다른 짐들과는 달리 육으로 난 인간이라는 짐은 매우 무겁고 또한 그것은 성도의 편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개인의 신앙에 의존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5)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고린도후서 5:7)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앙으로 승리” (교리와 성약 76:53)하도록 설계 되어 있지, 지적인 예리함이나 재력 또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따르는 보상을 구하는 자들은 “연구하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을 들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문둥 병자인 나이만 장군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어떤 대단하고도 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열왕기상 5:13 참조)

신앙을 갖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1)를 얻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 (고린도전서 2:14)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참되고 영적인

증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동기를 받게 되는 증거를 탈취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을 쌓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엘마서 32:6) 사람들을 위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믿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아주 “작은 신앙” (엘마서 32:27)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단 “장소를 마련하여”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는 눈으로 볼 수 있을만큼 성장하게 되며, 씨가 부풀어 올라 짝이 트게 되면 우리의 힘을 복돋아 주게 됩니다. (엘마서 32:28~30 참조) 따라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성장”을 관찰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평범한 과정을 통하여 신앙을 살찌우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여 신앙을 얻고 나서 나중에 삶의 보편적인 어려움을 당해 좌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험하고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 몇 가지 성스런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이더서 12:6)

더구나 신앙은 단 한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아니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뽑지 못하여 햇빛이 비쳐 마름에, 뿌리가 없는 이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요, 너희는 이를 뽑아 던질 것이라.” (엘마서 32:28)

형제 자매 여러분, “소홀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또한 나무를 시들게 하는 “태양 열” 역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감지됩니다.

경험에 경험을 거듭함으로써, 신앙은 복음 진리와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엘마서 32:34 참조) 아랫의 동생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의심없이 분명히 알았더라” (이더서 3:19; 엘마서 32:34 참조)브리감 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시는 모든 원리는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참됨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149 쪽.)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요한복음 7:17.)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점진적 과정을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교리와 성약 98:12) 더하시는 과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고, 실험하며, 확인하고, 알게되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는...알게 하시고...또 어떤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 (교리와 성약 46:14~15)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앙은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반면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경험하는 범위가 극히 국한돼 있어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경전 탐구를 통해 우리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신성하고 영적인 원리들의 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전은 “기억을 새롭게”해줄 수 있습니다. (엘마서 37:8)

완전하게 형성된 신앙은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그분들의 존재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권능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내가 능히 나의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인간들에게 보이리라” (니파이이서 27:21)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진정으로 승리하리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습니다.

신앙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 (교리와 성약 64:32)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정하신 때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 (모사이사서 23:21)하시는 것을 볼 때, 신앙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적용되는 데 문제를 갖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것보다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롭게 확신을 심어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가서 왕국이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교리와 성약 84 : 80)

그러나 만일 봉사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네 가지 근본 원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때때로 약속된 만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장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네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보이거나 작동불량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겠다는 의욕” (엘마서 32 : 27)이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약을 의미하며 세상에 속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경전을 공부하고 봉사하는 것을 진심에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고지식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마음속으로 회개한 사람을 맞으실 채비를 “온종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어나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니파이서 28 : 32 ; 몰몬서 6 : 17 ; 누가복음 18 : 15.)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 : 5) 저희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36 : 31)”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응답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합당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니파이삼서 18 : 20 ; 교리와 성약 88 : 64, 65 ; 18 : 18.) 간구하는 자가 지나치게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8 : 26 ; 교리와 성약 46 : 30 참조)

예를 들면, 때가 이르면 우리의 잘못이 하나 둘 눈에 보여질 것 입니다. 그밖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불결한 것들을 순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결한 것들을 더 한층 정결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베드로전서 4 : 12)

이와 같이 꼭 필요하지만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참다운 신앙이 요구됩니다. 이따금씩 공공연하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입원하여 극진한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수술하여 회복중인 사람들을 어찌 비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로부터 회복 될 때 함께 있어 줄 동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우리는 분별력 없이 그를 혼자 남겨 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통없이 신속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되기를 원하고, 만일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매로 몇번” (니파이서 28 : 8)  
맞는 것으로 끝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고립시킨 것 입니다. 우선 잘못의 결과를  
느끼고 이것들로부터 돌아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처럼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회개의  
노정을 밟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은  
없지만,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  
(앨마서 34 : 16)음으로써 길을 가로 막는  
걸림돌인 교만을 치워 버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하는 점에 대해서만  
걱정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러했듯이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지도자들을 지지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도록  
지지 받은 분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전체가 하나되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러했듯이 그를 승계한 교회·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배신자의 증언” (교리와 성약 122 :  
3)으로 말미암아 배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실한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주님의 목적이  
결국 실현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  
(아브라함서 3 : 17)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말일의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분이 정하신 경로를 통해 주님의 교회의 발전과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일 벤슨  
대관장님이 과거에 늘 하시던 대로  
권능과 영감으로써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셨을 것입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대관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계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 대회를  
마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여러분과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제가 대신 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예언자로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고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지상에  
말일의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다시 지상의 인간들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의 승영에  
필요한 성스러운 모든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권능인 성신권을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고대에  
받았던 것과 같은 모든 영적인 은사와  
함께 인간들 사이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서 4 : 5) 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임박한 심판을

**우**리는 데릭 커스버트 장로님이  
별세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  
다. 우리는 고인이 되신 커스버트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으신 후 칠십일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열성을 다해 충실하게 훌륭히  
봉사해 오셨습니다. 또한 영국 노팅엄에서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오셨으며, 모든  
면에서 참되고 충실하셨습니다. 커스버트  
장로님은 미대륙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망인이 되신 유리얼 커스버트  
자매님과 유족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사랑과 조의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회를 마치는 지금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인이 되신  
커스버트 장로님의 유족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대관장님이 대회를 마칠때



벗어나기 위해 영감받은 사자들은 이 간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상의 여러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 대회 보고, 1974년 8월 18일, 128~29쪽)

“저는 주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바를 좀더 신속히 이루시기 위해 그의 왕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분이 정하신 경로를 통해 주님의 교회의 발전과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본부의 모든 부서를 위한 전체 모임, 1977년 3월 16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대관장님의 권고입니다. 이 훌륭한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대관장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지내 온 사람으로서 저는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대하고 독특한 부름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성장, 훈련, 양육, 교육 그리고 훈육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의 권고에 따른 때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들이 이미 가리켜 주셨고 앞으로 계속 가리키실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계속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슴 속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 무릎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을 대신해서 제 간증과 축복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1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 1991년도 벨기세택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연사
1	조셉 비 워스런
2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로렌 시 던
3	헨리 비 아이어링
4	롤런 지 크레이븐
5	야곱 디아가
6	보이드 케이 패커; 델린 에이치 옥스
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딘 엘 라슨
8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1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3	프랜시스 엠 기번즈
16	엠 러셀 벨라드
18	에프 버튼 하워드;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잭 에이치 고슬린드
1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0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2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2	러셀 엠 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리차드 지 스코트
23	닐 에이 맥스웰
27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2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1	엘 톰 페리

## 1991년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영적인 생활	연사
5	제임즈 이 파우스트
7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8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0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12	마빈 제이 애쉬튼
13	제임즈 이 파우스트; 헨리 비 아이어링
16	닐 에이 맥스웰; 잭 에이치 고슬린드; 에프 버튼 하워드

## 공과 가정 및 가족 교육 연사

5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6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7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8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공과 자신 봉사/ 사회 관계 연사

5	엘 톰 페리
6	로런 시 던
7	리차드 지 스코트; 딘 엘 라슨; 제니트 시 헤일즈
9	마빈 제이 애쉬튼; 엠 러셀 벨라드

## 1991년도 방문 교육 공과 연사

6	6월 리차드 지 스코트
8	8월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9	9월 로런 시 던
10	10월 엠 러셀 벨라드
11	11월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엠 러셀 벨라드; 헨리 비 아이어링

##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첫 연차 대회 특징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실리지 않는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들은 대관장단의 일원이 행한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하여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한다.

## 1991년도 복음 교리반-신약전서

공과	연사
16	토마스 에스 몬슨; 엠 러셀 벨라드
18	보이드 케이 패커; 롤런 지 크레이븐
20	에프 버튼 하워드
22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롤런 지 크레이븐
23	헨리 비 아이어링;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4	마빈 제이 애쉬튼; 로버트 이 헬즈
25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워스런
26	엘 톰 페리
27	롤런 지 크레이븐
30	하워드 더블류 헌터
31	닐 에이 맥스웰
32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3	보이드 케이 패커; 로런 시 던
34	마빈 제이 애쉬튼
35	프랜시스 엠 기번즈
37	러셀 엠 넬슨; 야곱 디아가
38	델린 에이치 옥스; 잭 에이치 고슬린드
39	제이 리차드 클라크 제니트 시 헤일즈; 딘 엘 라슨
40	닐 에이 맥스웰; 딘 엘 라슨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42	헨리 비 아이어링

## 1991년도 초등학교 정의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 러셀 엠 넬슨
21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2	로버트 이 웰즈
25	리차드 지 스코트
28	보이드 케이 패커
30	델린 에이치 옥스
32	로런 시 던
36	리차드 지 스코트
38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9	제니트 시 해일즈

정의반 제2과정

공과	연사
24	엘 톰 페리
26	에프 버튼 하워드
27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29	로렌 시 던
32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4	리차드 지 스코트
37	엘 톰 페리; 리차드 지 스코트
38	델린 에이치 옥스
39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용기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5	보이드 케이 패커; 로렌 시 던
16	조셉 비 워스런
24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6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7	델린 에이치 옥스
29	리차드 지 스코트
33	제니트 시 해일즈
34	널 에이 맥스웰
39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0	에프 버튼 하워드
43	제니트 시 해일즈

용기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7	널 에이 맥스웰
25	로버트 이 웰즈

불꽃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9	엘 톰 페리
1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22	리차드 지 스코트
23	마빈 제이 애쉬튼; 널 에이 맥스웰
24	에프 버튼 하워드
25	잭 에이치 고슬린드
28	엘 톰 페리; 리차드 지 스코트
31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2	헨리 비 아이어링
3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프랜시스 엠 기번즈
40	롤런 지 크레이븐
44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벼포리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6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21	리차드 지 스코트
23	에프 버튼 하워드

25	널 에이 맥스웰
26	리차드 지 스코트
27	보이드 케이 패커
28	리차드 지 스코트
31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8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러셀 엠 넬슨
39	하워드 더블류 헌터; 프랜시스 엠 기번즈
44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벼포리반 제2과정 / 불꽃반 제2과정 /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연사
1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17	리차드 지 스코트
19	에프 버튼 하워드
20	제니트 시 해일즈
23	헨리 비 아이어링
24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5	에프 버튼 하워드
26	에프 버튼 하워드
28	엠 러셀 벨라드
29	러셀 엠 넬슨; 제이 리차드 클라크
30	리차드 지 스코트
32	러셀 엠 넬슨
39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42	리차드 지 스코트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10	조셉 비 워스런
12	보이드 케이 패커
1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엘 톰 페리
14	리차드 지 스코트; 잭 에이치 고슬린드
21	롤런 지 크레이븐
2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프랜시스 엠 기번즈
29	로버트 이 웰즈
38	널 에이 맥스웰
40	야곱 디아가
41	널 에이 맥스웰

주일학교 제13반

공과	연사
3	리차드 지 스코트; 잭 에이치 고슬린드
4	하워드 더블류 헌터
8	널 에이 맥스웰
9	마빈 제이 애쉬튼
12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1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7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19	마빈 제이 애쉬튼
20	엘 톰 페리
21	제이 리차드 클라크
22	조셉 비 워스런; 잭 에이치 고슬린드; 제니트 시 해일즈
24	엘 톰 페리
25	롤런 지 크레이븐
27	야곱 디아가; 에프 버튼 하워드
28	로버트 이 웰즈
29	리차드 지 스코트; 잭 에이치 고슬린드

37	조셉 비 워스런
38	리차드 지 스코트; 잭 에이치 고슬린드
41	러셀 엠 넬슨
42	보이드 케이 패커
4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연사
5	롤런 지 크레이븐
6	하워드 더블류 헌터; 로런 시 던; 프랜시스 엠 기번즈
12	널 에이 맥스웰
14	엘 톰 페리
16	제니트 시 해일즈
1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제이 리차드 클라크
18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9	리차드 지 스코트
20	잭 에이치 고슬린드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23	던 앨 라슨
24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제임스 이 파우스트
2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로런 시 던
27	조셉 비 워스런; 로버트 이 웰즈
28	델린 에이치 옥스
34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38	에프 버튼 하워드
3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4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연사
6	프랜시스 엠 기번즈
8	리차드 지 스코트; 잭 에이치 고슬린드
9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11	보이드 케이 패커
14	던 앨 라슨
16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18	프랜시스 엠 기번즈
21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러셀 엠 넬슨; 헨리 비 아이어링
22	조셉 비 워스런
24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프랜시스 엠 기번즈
28	제이 리차드 클라크
30	널 에이 맥스웰
31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야곱 디아가; 에프 버튼 하워드
35	델린 에이치 옥스
36	던 앨 라슨
37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8	롤런 지 크레이븐
4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제이 리차드 클라크
41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주일학교 제16반



9	아이어링
10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17	닐 에이 맥스웰
18	보이드 케이 패커
19	마빈 제이 애쉬튼
21	로렌 시던
29	엠 러셀 벨라드
3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3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리차드 클라크
39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4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신권 모임); 제이 리차드 클라크

꽃별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헨리 비 아이어링
2	헨리 비 아이어링
3	헨리 비 아이어링
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9	마빈 제이 애쉬튼; 러셀 엠 벨슨
11	몰런 지 크레이븐
14	제임즈 이 파우스트
1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6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20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에프 버튼 하워드; 리차드 지 스코트
21	제니트 시 헤일즈; 헨리 비 아이어링
23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27	델린 에이치 옥스
31	리차드 지 스코트
32	리차드 지 스코트; 에프 버튼 하워드
34	에프 버튼 하워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런 시던
38	제임즈 이 파우스트
39	보이드 케이 패커
40	던 엘 라슨
41	보이드 케이 패커
46	몰런 지 크레이븐

장미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리차드 지 스코트; 헨리 비 아이어링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닐 에이 맥스웰
4	제임즈 이 파우스트; 헨리 비 아이어링
6	러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8	델린 에이치 옥스
9	러셀 엠 벨슨
10	조셉 비 워스런; 로버트 이 웰즈
1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5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17	프랜시스 엠 기번즈
18	로런 시던
19	러셀 엠 벨슨; 헨리 비 아이어링
2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1	제니트 시 헤일즈
22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3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24	에프 버튼 하워드
2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제니트 시 헤일즈
30	리차드 지 스코트
31	에프 버튼 하워드
34	리차드 지 스코트
37	에프 버튼 하워드; 제니트 시 헤일즈
38	마빈 제이 애쉬튼
44	러셀 엠 벨슨

월계반 제2과정

공과	연사
1	로버트 이 웰즈
2	헨리 비 아이어링
4	닐 에이 맥스웰
6	엠 러셀 벨라드
7	로버트 이 웰즈
8	제임즈 이 파우스트; 로런 시던
9	로런 시던
10	엠 러셀 벨라드
11	델린 에이치 옥스
12	야곱 디아가
13	제이 리차드 클라크
1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9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22	리차드 지 스코트
23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헨리 비 아이어링
2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27	러셀 엠 벨슨; 리차드 지 스코트
28	마빈 제이 애쉬튼; 제니트 시 헤일즈
29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3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31	보이드 케이 패커
33	엠 러셀 벨라드
35	던 엘 라슨
36	리차드 지 스코트
3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3	닐 에이 맥스웰
44	마빈 제이 애쉬튼

복지 사업

주제	연사
노인율	
돌봄	델린 에이치 옥스
연민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장애자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봉사	보이드 케이 패커
부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던 엘 라슨

복지에 관한 특별한 주제와 관련된 대회 말씀은 산권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과	연사
2	리차드 지 스코트
5	보이드 케이 패커; 닐 에이 맥스웰
8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러셀 엠 벨슨; 헨리 비 아이어링
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2	몰런 지 크레이븐
13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5	닐 에이 맥스웰; 야곱 디아가; 에프 버튼 하워드
20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1	야곱 디아가
22	조셉 비 워스런
26	제이 리차드 클라크
27	더블류 맥켄지 로렌스
29	던 엘 라슨
30	마빈 제이 애쉬튼
32	로렌 시던
3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신권 모임); 엘 톰 패러; 제이 리차드 클라크
3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8	마빈 제이 애쉬튼
4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1	델린 에이치 옥스
42	엠 러셀 벨라드
4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4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얼 시 텅기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연사
2	보이드 케이 패커
3	리차드 지 스코트; 썸 에이치 고슬런드
7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러셀 엠 벨슨; 헨리 비



#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총관리 역원 중에서 다섯 분이 제161차 연차 대회의 첫번째 모임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또한 새로 여섯 분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 중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은 네 분은 다음과 같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해롤드 지 힐람 장로, 엘 리오넬 켄드릭 장로,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엘 알든 포터 장로.

유타주 랜돌프 출신인 브러프 장로(51세)는 1988년 10월에 부름받았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이다. 아이다호주 슈거시 출신인 힐람 장로(55세)는 1990년 3월에 부름받았으며, 현재 브라질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이다. 루이지애나주 뱅튼 루즈 출신인 켄드릭 장로(59세)는 1988년 4월에 부름받았으며, 현재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회장이다. 캐나다 앨버타, 에드몬튼 출신인 모리슨 장로(60세)는 1987년 4월에 부름받았으며 현재 북미 동남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솔트레이크 출신인 포터 장로(59세)는 1987년 4월에 부름받았으며, 현재 유타 남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가족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 보조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얼 시 텅기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와 툴런 지 크레이븐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이 세 총관리 역원의 부름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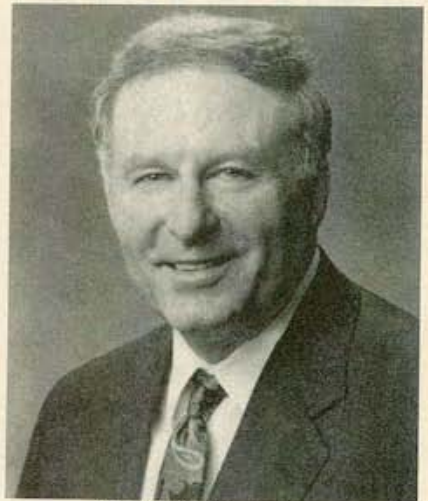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받은 여섯분은 다음과 같다.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 크리 엘 코포드 장로, 조셉 시 뮤른 장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 호르헤 오 로하스 장로,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해롤드 지 힐람 장로



엘 리오넬 켄드릭 장로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엘 알든 포터 장로

#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희



**“저**희 가족은 함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는 말한다. 최종 결과를 내다보고 활동이 어떤 것이든 이를 함께 즐기는 능력을 뉴엔슈안더 장로와 그이 아내 르안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뉴엔슈안더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희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재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뉴엔슈안더 장로는 1939년 10월 6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지 헨리와 제네비브 브렐 뉴엔슈안더 부부의 네 자녀중 두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후일 그의 가족은 옥든으로 이주했으며 데니스는 1957년 옥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공군에서 6개월간 복무한 뒤 핀란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없었으므로 선교사들은 핀란드에 도착한 후 언어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11개월간 전도 사업을 한 후, 뉴엔슈안더 형제는 나머지 기간 동안 대부분 다른 장로들에게 핀란드어를 가르쳤다.

언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귀환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러시아어를 공부하여 웨버 주립 대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받았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는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4년),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는 학사 학위를 받은 후 (1966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한편 뉴엔슈안더 형제는 르안 클레먼트를 만나게 되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쿠바 미사일 사태시 전시 편성 되었었으며, 당시 그는 콘택트 렌즈를 맞추러 갔었다. 르안은 검안사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그분은 안경 없이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택하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뉴엔슈안더 자매는 웃으며 이야기한다. 1963년 6월 13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뉴엔슈안더 부부에게는 제프리, 마이클, 브래들리 및 스티븐 등 네 아들이 있다.

졸업 후, 뉴엔슈안더 형제는 유타 대학교 및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으며, 그후에는 교회의 계보과에서 일을 맡아 동유럽에서 마이크로필름 촬영 작업을 시작했다. 5년간의 임무 수행을 위해 그의 가족은 그를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갔다. 그 후에 그는 계보과의 기록 입수 업무 책임자가 되어 교회 본부로 돌아왔다.

이 기간 동안, 뉴엔슈안더 장로는 주일학교 교사, 워드 선교 책임자 및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다. “그분은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라고 그의 아내는 말한다. “그분은 조용하지만 강인하십니다. 그분은 도전을 받아들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십니다.”

1987년, 뉴엔슈안더 형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 선교부를 관할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선교부 산하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집트, 터키 및 키프로스 등이 이 선교부에 소속되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다른 선교 부장들이 그들의 선교부를 떠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교부로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농담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직책에서 봉사하면서 뉴엔슈안더 선교부장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및 한스 비 링거 장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회가 동구권 국가에서 인정받도록 했으며, 나중에 선교사가 파견되고 지부가 조직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뉴엔슈안더 장로는 말한다. “수십년간 쌓여온 무신론도 우리를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것, 즉 믿음을 갖고, 봉사하고 싶어 하며, 행복해지고, 건설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등 복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뿌리뽑지는 못했습니다.”

뉴엔슈안더 부부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교회 대관장단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일년만 더 머무르라고 요청했다. 대관장단은 그곳에서 네 선교부가 새로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소련의 일부 지역에서 계속 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유고슬라비아도 관할하기를 원했다.

열 해 동안 많은 친척과 떨어져 살면서 뉴엔슈안더 가족은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며, 촛불을 켜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을 하나의 가풍으로 삼고 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라고 뉴엔슈안더 장로는 말한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적인 경험입니다. 저희는 어떤 것을 얻기 보다는 경험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가 여행하는 곳이면 어디나 자녀를 데리고 다니길 좋아합니다.”

뉴엔슈안더 장로가 성공하게 된 그 중심부에는 구세주에 대한 간증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놀랄만큼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생활과 태도와 가치관 등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

# 크리 엘 코포드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희



1 51년 겨울 어느 날 저녁, 고등학교 학생이던 크리 엘 코포드와 아일라 맥도널드는 아일라의 집 식탁에 앉아서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다. 아일라의 가족 중 유일하게 활동 회원이던 아일라는 그녀의 친구에게 간증을 전했다. 교회에서 활동이 약간 저조했던 크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포드 장로의 이름)는 아일라의 간증을 듣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 즉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할 것"을 결심했다.

"실제로 제가 개심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 아일라의 집 식탁에서 부터입니다. 아일라는 저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인생에서 의에 굽주리도록 저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간증이 점차 자라게 되었으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이 내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라고 코포드 장로는 말한다.

코포드 장로는 소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부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크리 엘 코포드 장로는 1933년 7월 11일, 유타주 산타켄의 조그만 마을에서 크리 코포드와 델바 델슨 코포드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코포드 장로는 건축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하여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의 여러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홉 살 때에 가족과 함께 유타주 페어필드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긴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네바다에서 건축 일을 하는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자주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크리는 농장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좋아했다. "그때가 이차 세계 대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농기계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말과 개척자들이 쓰던 쟁기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으며, 그때 저는 참으로 힘든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라고 코포드 장로는 회상한다.

3년 후 크리의 아버지는 건축회사에 취직하였다. "우리 가족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의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마을에서도 꽤나 거친 지역에서 자라났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비활동 회원이었습니다."라고 코포드 장로는 말한다.

그러나 코포드 장로가 열 다섯 살 때, 가족이 유타주 오렘으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아일라 맥도널드를 만났다. 그리고 "식탁에서의 토론"이 있던 지 3년 후인 1953년 11월 11일 크리와 아일라는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다. 코포드 장로는 유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법과 대학원에 다닐 돈을 저축하기 위해 유타주 오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후 코포드 형제 부부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여 크리는 밤에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면서 샌 마리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61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열기 위하여 일하던 초창기에 그는 몬로비아에서 세미나리 새벽반을 가르쳤다.

코포드 형제 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몬로비아와 아카데미에서 삼십 여 년을 사는 동안, 지금은 결혼한 샌디(김 장),

제인(포드), 브래들리와 켄 그리고 현재 텍사스 휴스턴 이스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트레이시, 이렇게 다섯 자녀를 키웠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코포드 장로는 몬로비아 와드 감독으로, 스테이크 부장으로 (두번), 그리고 지역 대표로 봉사하면서 가정과 직장을 교회 일과 잘 조화시켰다. 코포드 장로는 문학 작품을 읽거나 말을 타면서 여가를 즐긴다.

"때때로 크리는 직장 일을 마치고 몹시 지친 상태로 돌아와서는 청바지에 장화를 신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언덕으로 나가 말을 타고 나서 한 시간쯤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 옵니다."라고 아일라 자매는 말한다.

최근 뉴욕주 뉴욕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코포드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도시 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복음이 도움이 된다는 강한 간증을 지니고 있다. "우리 선교부 안에는 팔백 오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매달 침례를 주는 백 여명의 새로운 회원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라고 코포드 장로는 말한다.

아일라 자매는 남편 못지않게 선교 사업에 대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 "저는 교회 봉사 가운데 선교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퀸즈에서 가진 성찬식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온 와드 회원들이 각기 그들의 모국어로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를 때 느낀 하나님의 권세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뉴욕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회원들로 인하여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코포드 자매는 말한다.

1950년 3월 그 저녁에 그 일이 있는 후로 코포드 장로는 계속해서 간증을 키워왔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닥치는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조셉 시 무른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희



**조**셉 시 무른 장로와 그의 아내 글래디스는 교회의 제 일 세대 회원이다. 조셉 무른 장로는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한 저희는 종종 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희 회원으로 부름받고 지지받은 뒤, 무른 장로는 자신이 교회로 개종한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 다른 개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 수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회원보다 4배 이상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하였다.

1936년 2월 5일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출생한 조셉은 이탈리아계 어머니와 유고슬라비아계 아버지가 계시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결혼 전 이름이 글래디스 스미스였던 무른 자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콜루사에서 감리교도로 성장했다.

조셉은 산호세 주립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그를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반으로 초대했다. “그후 이년 반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일성도들과 교체하면서

지냈습니다.”라고 무른 장로는 회상한다. “저는 복음 토론폰공부를 할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스물 한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례를 받게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독서광인 조셉은 선교사들이 건네주는 책이나 소책자는 무엇이든 열심히 읽었다. 스물 한 번 째 맞는 생일이 가까와 질 무렵 그는 침례를 받았다. 이로써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당시 가족들은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믿고 있었다.

젊은 시절 조셉은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었으며 제 목숨을 다해 그분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갖고 싶기도 했습니다.”라고 무른 장로는 설명한다.

산호세 주립 대학교를 졸업하고 침례받은 지 일년도 못되어 그는 가르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이탈리아어 외에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도 늘리게 되었다. 선교 사업 후 그는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산호세 주립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무렵 글래디스도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 함께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반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곧 침례를 받았다. 무른 부부는 1963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듬해, 무른 형제는 남가주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 1969년에 이 과정을 마쳤다

“제가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반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엘카미노 대학에서였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한다. 그후 그는 14년간 교회 교육 기구에서 봉사했으며, 점차 늘어나는 가족들을 통비치 주립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교로, 웨버주립 대학으로 데리고 다녔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그는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면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그곳에서 무른 부부의 여섯번째 자녀인 나타샤가 태어났다.

그후 무른 가족은 남아메리카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조셉은 7년간 페루 및 아르헨티나지역을 위해 교회의 실무 책임자로 봉사한 바 있다. 실무 책임자는 지역 회장단의 지시하에 해당 지역에 속한 교회의 업무를 돌보는 일을 한다. 이 임무를 마친 후 그는 태평양 지역을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실무 책임자로 봉사했다.

무른 부부의 나머지 다섯 자녀로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신시아(바셋),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인 마이클(22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실업 대학에 다니는 미셸(20세), 유타



#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희

대학교에 재학중인 트리시아(19세), 그리고 올해 17세인 마션이 있다. 마션과 나타샤는 부모와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뮌 장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아일랜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뮌 장로가 개종을 했다는 사실과 교회에서 국제적인 실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새로운 부름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뮌 장로와 가깝게 지내본 사람은 그러한 사항과 뮌 장로의 봉사 정신 및 지도력은 그리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신 분입니다.”라고 뮌 자매는 이야기한다. “저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혹은 감독이나 교사로서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은 권고를 하시는데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아버님은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감명받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미셸은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길고도 훌륭한 시간입니다. 저희는 모두 그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 이전에 참석했던 그 어떤 수업보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에서부터 개인적인 의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님은 저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십니다!”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뿐만 아니라 신학 연구원 대학부 반과 교육 주간 반에서도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후에 교회의 실무 책임자로 봉사해 온 뮌 장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칠십인 정원희의 일원이 된 지금, 그의 영향력은 교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널리 퍼질 것이다. \*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의 할아버지 톰 독시 형제는 십대 소년으로 영국에서 교회에 가입하여 고아의 몸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성장 시절을 대부분 홀로 지내면서, 톰은 가정을 그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였다. 그의 2대 후손인 독시 장로는 할아버지의 최우선 순위를 물려받았다.

“가정은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조직입니다. 기타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지속될 가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라고 새로 칠십인 정원희 회원으로 부름받은 독시 장로는 말한다.

독시 장로의 부인인 매리 루 영 독시 자매 역시 가정에 헌신적이다. 독시 자매는 평생의 꿈이 열두 자녀를 두는 것이었는데, 1974년에 매리 킴을 낳음으로써 이 꿈을 성취하였다. 그 당시 독시 형제는 미주리 인디펜던스 선교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두 형들과 경영하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일을 쉬고 있었다.

독시 형제 부부의 열두 자녀는 매리 외에, 아이언 (존즈), 캐롤 (리차즈), 매릴리 (페이지), 그레이엄, 로버트, 리사

(패치), 스코트, 메그 (버우드), 갓난 애기일 때 죽은 에이미, 베키 (세트러), 그리고 세라이다. 오늘날 이대가족은 뉴욕에서부터 애리조나에까지 흩어져 살고 있다. 독시 형제 부부는 항상 함께 여행하기를 즐기며, 미주리 주에서 보낸 3년을 부부가 결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기간으로 본다. 최근 독시 형제의 가족 가운데 성인들은 삼일간의 “가족 대회”를 즐긴다.

“교회에서 대회를 갖는 것이 좋다면 가정에서도 대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결정했습니다.”라고 독시 장로는 말한다. 독시 가족은 미주리 주와 일리노이주 및 유타 산맥에서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대회는 수년 전에 시작된 전통을 잇는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독시 장로는 일요일 오후에 자녀들을 저녁 식탁에 모으거나 바깥 나무 밑에 돛자리를 깔고 그곳에 불러 모아 자주 가정 교육 모임을 가졌다.

“남편은 경전을 사용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원리와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르치곤 합니다. 그 밖에도 남편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과 세상 만물을 주심에 감사드릴 것을 가르칩니다.”라고 독시자매는 회상한다.

독시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라면서 그러한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레이엄은 1927년 3월 30일에 아버지 그레이엄 에이치 독시와 어머니 리온 와슨 독시 사이의 두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레이엄이 열 여섯 살 때 독시 형제의 가족은 켄터키주 루이스빌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레이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루이스빌 대학교에서 일 년을 보낸 다음, 해군에 입대하여 18개월의 임무를 마친 후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번째 일요일에 그는

# 호르헤 오 로하스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희

장래의 아내를 찾아냈다. 그들은 어릴 때 같은 와드에서 자랐지만 독시 자매가 그 당시에는 독시 장로보다 세 살 아래였고, 독시 장로가 두 사람은 그레이엄이 샌트럴 매트렌틱 스테이트 선교부로 떠나기 전에 단지 두 번 데이트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 년 동안 두 사람은 자주 편지를 주고 받았다. "제가 1949년 10월에 귀환했을 때, 우리는 서로 무척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독시 장로는 말한다. 그들은 1950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솔트레이크 벨리에 정착했다.

독시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할 때 처음으로 물몬경을 완전히 읽었다. "어느날 밤 침대에 앉아서 물몬경을 읽다가 느낀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로나이의 약속이 적혀 있는 부분을 읽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참되다는 느낌이 담요와도 같이 저를 감쌌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설레이는 가슴을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한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저는 경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얼마 후 복음이 경전상의 증명만으로 참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복음이 적용되는 것을 봄으로써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독시 장로는 덧붙여 말한다.

독시 장로의 생활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선교부장 이외에도, 그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성전 인봉자, 그리고 본부 청남 회상단 보좌로 봉사했다.

"교회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순수한 간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독시 장로는 말한다.

"참으로 막중한 부름에 겸손해짐을 느끼며, 일어서려고 애쓰는 갓난 새끼양과 망아지를 생각하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뚝 일어서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



**비**록 교회 책자를 공부하고 말일성도들의 모임에 가야 하기는 했지만 어린 호르헤 로하스는 영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배운 공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로하스 장로는 지난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희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이러한 부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낸 다음 신앙과 용기로 그것을 해내는 일입니다."

호르헤 알폰소 로하스는 1940년 9월 27일 멕시코의 치와와시 텔리치아스에서 로돌포와 힐라리아 오르넬라스 로하스 부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유년 시절을 북 멕시코의 수도인 치와와시에서 보냈다. 그곳은 한 성공한 국민학교 교사가 그에게 그의 능력으로는 결코 영어를 배울 수 없으리라고 말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는 영어를 배우리라고 굳게 결심한 후 아버지에게 자신을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있는 교회가 세운 학교로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후아레스 아카데미에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호르헤의 아버지는 북 멕시코 지역의 말일성도 개척자 후손인 베르타와 윌라드 스프와 함께 살도록 그를 보냈다. 그는 그들을 제이의 양친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스프 자매는 후아레스 아카데미와 관련이 있는 국민학교의 교장이었다. 스프 자매는 그에게 영어로 된 교회 책자들을 건네주면서 만일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면 영어를 좀더 빨리 배우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권고했다.

스프 자매는 엄격한 교사였다. 그 자매의 엄격하면서도 정성어린 지도를 받으며 호르헤는 유일한 비밀성도로서 경전 경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적도 있다.

스프 가족 및 신학 연구원 중등부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으며 열 아홉 살에 침례를 받았다.

주야로 열심히 수업을 받은 결과 호르헤는 치와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육학과 체육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경 넘어 뉴 멕시코 주립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받았다. 그곳에서 공부하던 그는 1964년 멕시코 시티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인 베네메리토 학교에서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는 콜로니아 후아레스에서 마르셀라 브르고스를 만난 적이 있지만 그녀도 베네메리토 학교에서 재학 중일 때였다. 1969년 그녀는 졸업한 직후 교사가 되었으며, 며칠 후인 8월 22일 그들은 애리조나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로하스 형제는 교회를 위해 처음에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교회 관리 본부에서 근무했다. 그 후 그의 가족은 그가 사업을 하게 되었던 치와와로 다시 이주했다. 1988년 그들 부부는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들을 위해 기술 전문 서적을 번역해 주는 사업을 했다.

그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그는 1964년에

#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 칠십인 제이 정원회

멕시코 시티에 도착한 다음 날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부름을 받아 봉사했으며 여기에는 지부장,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스테이크 부장(두 번 역임), 지역 대표(두 번 역임) 및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포함된다.

그들의 다섯 자녀 가운데 장남인 호르헤(20세)는 현재 미시간 랜싱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미르셀라(17세), 길레르모(16세)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로하스 자매 역시 교회에서 다양한 직책에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및 와드의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한다. 로하스 장로는 아내가 "매우 큰 간증을 지닌 훌륭한 어머니"라고 하면서 지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내라고 말한다.

한편 로하스 자매는 교회 봉사 및 일상적인 일에서 "남편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단히 적극적인 분이여, 그분에게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물론경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는 것은 그가 멕시코 파다라하라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선교부 내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그는 "물론경을 활용"해야겠다는 분명한 영감을 느꼈다.

물론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멕시코인의 조상이 기록한 책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물론경은 우리에게 작업복을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신권 소유자와 용기있는 자매들로 구성된 군대에 들어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하스 장로는 자신이 맡은 일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취한 일을 돌이켜볼 때 부름받은 만한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름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



**이** 리오 다빌라 장로가 1968년에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빌라 장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홀리오 다빌라 장로를 아는 콜롬비아인 중에는 그분의 복음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91년 4월 6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을 때, 다빌라 장로는 그 부름을 그저 더 멀리 복음을 전하라는 책임으로 생각했다.

처음에 그는 다른 것은 다 해도 교회 회원만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공부하자고 간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는 앞으로 선교사들의 방문을 거절하려고 결심했으나,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동안 영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후 십일조에 대하여 배웠다. 그는 아내에게 내 월급으로는 십일조 까지 낼 형편이 못되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빌라 장로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빌라 장로와 그의 아내는 거의 잠을 여탈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그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마침내 이른 새벽에 그들은

부름을 끊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다. 그런 후 잠이 들었는데 그는 꿈에서 침례에 그의 월급과 불필요한 지출 내역이 쓰여진 것을 보았다. 그의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수입의 1/10이 넘었다.

다빌라 장로는 선교사들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도 "형제"라고 부르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선교 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어떤 계인으로 인해 침례도 받기 전부터 임무를 띠게 되었으며, 곧 "다빌라 형제"는 열성적으로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그후 다빌라 장로는 아내와 함께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아내인 메리는 남편이 천성적으로 사교적이며 유모어 감각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쉽게 사귀었다고 하며, 덧붙여 "남편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아 준다라고 말한다.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는 1932년 5월 23일, 콜롬비아의 부카라망가에서 홀리오 다빌라와 아나 리타 페나로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곧 카타리나로 이사회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 강좌를 가르치는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신문 잡지업, 섭외 사무, 광고, 출판 및 그래픽 예술 및 출판과 관련이 있는 전자학을 공부했으며, 한때는 인쇄업과 섭외 사무 및 광고업을 했다.

홀리오는 보고타로 이사한 지 얼마 안되어 이웃에 사는 메리 자파타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매우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빌라 부부는 침례받은 지 5년 후인 1973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비행기표로 다빌라 부부는 솔트레이크 까지 갈수 있었다. 다빌라 부부를 알지도 못하는 비행기표 기증자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를 알려고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다빌라 형제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때 그는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다빌라 장로에게 "형제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함께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결국 다빌라 부장은 그때의 성전 방문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그 여행이 그와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했다. 인생을 그리 선하게 살지 못했다고 느끼던 그 사람은 자신의 선하고 관대한 마음씨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빌라 장로를 보내신 것이라며 깊이 감동하였다.

그 후 다빌라 형제는 아내와 함께 다시 유타에 가서 두 딸과 함께 인봉받았다. 큰 딸 리아나는 보고타에 살고 있으며 막내 딸 매리썬(백키)은 유타주 바운티풀에 살고 있다. 또한 다빌라 부부에게는 두 손자녀가 있다.

1972년 초, 다빌라 형제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하여 시간제로 일하다가 1973년에 전임이 되었다. 그 이후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3년(1981-84)을 제외하고는 줄곳 남미에 있는 교회 교육 기구 행정을 맡아 왔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다빌라 장로는 지부장, 지방부장단 보좌, 지방부장, 스테이크 부장 및 지역 대표(두번)로도 봉사했다.

다빌라 장로는 그의 부인이 지성적이고 지혜로워 사회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서도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왔다고 말한다. 될 수 있으면 그는 결정을 할 때 부인의 조언을 구한다. 다빌라 장로는 "제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잘못 됩니다. 그래도 아내는 결코 '제가 그럴거라고 말했잖아요!'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새로운 부름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의 모든 부름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껴 왔습니다. 부름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아니며, 그저 일하라는 부름이라고 다빌라 장로는 말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는 준비되어 있다. \*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1년 4월 6-7일에 개최된 제161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고 진실한 아버지와 선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그리고 순종심과 큰 뜻을 지닌 자녀들이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 (이노스서 1:1) 양육되는 가정에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예언자께서는 어린이들이 인사 말씀과 대관장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 편지를 받으실 때면 쉽게 눈물을 보이시며, 자비와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가정적인 분이십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철없는 아이들... 장애자를 놀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를 흉내내거나 놀리거나 혹은 조롱하는 행위는 잔인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불행한 사람들 절대로 놀려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다음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8)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부모의 권고에 따라 의롭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드릴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회를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표준에 맞추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저는 그것이 참으로 조그마한 음성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외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아주 조용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기울이고자 할 때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시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저는 혼자 힘으로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서도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늘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